hyunbulnews.com

현대불교

당신은 100원어치 땀을 흘리고 200원 어치를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하겠다면, 생활 하나하나에 부처님 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합시다.

– 천안 각원사 주지 법인 스님



제839호 2011년 6월 8일 수요일 (음력 5월 7일 · 불기 2555년 · 주간)



문수 스님 추모 다례제에 참석한 자승 스님(사진 맨 앞)이 부도탑 가림막을 걷어내고 있다.

문수 스님, 스님…

법안·퇴휴 스님, "추모행사 형식적이다" 질타

문수 스님 소신공양 1주기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지만 불교계가 4대강 반대를 외쳤던 스님 유지 실천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수 스님 선양사업회 준비위원회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준)는 5월 30일~ 6월 4일을 문수 스님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중 조계사 마당 '가피'에서는 '생명평화 대화마당'이 매일 저녁 열렸다.

관련기사 11~12면

5월 30일 열린 첫 날 강연에서 법안 스님은 '문수 스님 소신과 그리고 1년'을 주제로 강연했다. 법안 스님은 추모 1주기와 4대강 반대 활동에 소홀한 종단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법안 스님은 "소신 공양 1주기를 맞아 부도탑을 세우고 제막식을 한다. 하지만 1주기가 됐으니 시대적 흐름에 맞춰 행사를 진행한다는 인상이다. 종단이 왜 이렇게 밖에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또, 스님은 "중생의 고통을 걱정하고 생명을 살리려했던 수행자의 보살적 원력이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것 같다. 불교시민사회단체가 더 발전해 종단의 잘못을 강력히 지적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기 위해 참석한 퇴휴 스님도 종단의 실천력 부족을 질타했다.

퇴휴 스님은 "오늘은 지난 1년간 문수 스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을 보고해야 하는 날이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며 현재 심정을 밝혔다. 퇴휴 스님은 문수 스님의 유지 실천과도 일맥상통하는 종단의 5대 결사에 대해서도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퇴휴 스님은 "전국에서 결의가 일어나고 종단의 뜻에 동참해 힘을 보탰지만 목표가 달성되긴 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추진 중인지 어리둥절하다. 종단의 명쾌한 대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식민지불교 청산해야 불교에 미래있다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 불문연 봉축세미나서 주장



조계종이 정부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이에 앞서 역사의 과오 속에서 치열한 자기성찰의 필요성과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는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개최한 2011 봉축세미나에서 '한국의 역사와 불교'를 주제로 진행된 발제에서 고려불교와 조선불교를 비교하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종교는 쇠퇴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대 불교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일제 식민지 불교의 잔재와 이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1911년 6월 조선총독부가 반포한 사찰령으로 구성된 본말사제도는 조선총독부가 통제를 위해 편리성을 위주로 편제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재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최 교수는 "사찰 주지는 산중공의에 따라 추대되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이었으나 사찰령과 사법에 의해 주지에 사찰운영 권한이 집중됨으로서 본사주지들의 재산 축적과 처첩을 거느리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주지들의 윤리적 타락은 친일 성향을 노린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사찰령에 기인한 것으로 교단 구조적 문제로 심화돼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이러한 잔재를 청산해야 하지만 불교계는 종단 분규로 인해 그 정화이념이 아직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종단 분규를 겪은 끝에 비구승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으로 정통성을 확보했으나 불행한 휴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비구승의 수적 열세는 정치권력과 법정 소송에의 지나친 의존, 급조승 양산 등 반불교적 행태로 이어졌고, 교단 자주성 상실, 간화선 지상주의 및 교학연구 경시풍조 등을 남겼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제의 핵심은 각 시대의 요구에 맞춰 성공적인 역할을 한 경우는 새로운 불교교학과 실천방법을 계발하며 자정노력을 추구했던 때로 끊임없는 자기변화의 추구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최 교수는 이로한 적극적인 개혁의식을 통해 일제 식민지불교 잔재의 청산, 교단 운영의 구조개혁, 파벌싸움 지향과 화합 승가 구성 등이 추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 社告 | 자비의 미얀마 돕기 dream 꿈

인구의 89%가 불자인 나라, 미얀마 불자의 희망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합시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양곤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지원 ■ 식수가 부족한 마을에 공동 우물 건설
■ 신규 출가의식 지원 ■ 불자 어린이 학용품 지원 ■ 전달 가능한 물품 지원

◐ 후원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문 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해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얀마문화원 · 현대불교신문사 공동 연간캠페인

대장경 천년축전, 이운으로 시작

18~20일 해인사–조계사–개경포서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개최 100일을 앞두고 국민대통합을 기원하는 대장경 이운 행렬이 재현된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위원장 김두관)는 6월 18일 합천 해인사에서 고불식을 시작으로,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대장경 천년 국민 대통합 기념식', 20일 고령 개경포와 합천 해인사에서 대장경 이운행렬과 장경판전 봉안의식을 봉행한다.

행사는 9월 23일~11월 6일 합천 해인사 일대 주행사장과 창원컨벤션센터 등에서 열리는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개막 D-100일을 기념해 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코자 마련됐다.

19일 오후 1시부터 개최되는 '대장경 천년 국민 대통합 기념식' 후에는 인사동과 종로 일대에서 대장경 이운 행렬이 진행된다. 행렬은 10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운 행렬은 오후 2시 조계사를 출발해 인사동길, 종로2가, 청계2가를 거쳐 청계천로 광통교에서 종료된다.

대장경축전조직위원장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축전 개최 100일을 앞두고 대장경 천년의 가치와 문화,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되살리고, 서울~합천을 잇는 이운 행렬을 통해 대장경 천년을 기념하고 대장경 축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해인사 출발은 역사 왜곡

강화 선원사 "해인사 것 1000년 아냐"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와 강화 팔만대장경이운보존회(회장 김경일)는 5월 31일 성명서를 내고 "〈태조실록〉에 팔만대장경이 강화 선원사에 147년간 보관되다 1398년 선원사를 출발해 해인사로 옮겨 갔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이운 행사의 출발지를 해인사로 한 것은 명백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전통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원사는 "지금의 해인사 대장경은 재조대장경이다. 해인사 대장경은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과는 무관하다"고도 강조했다.

선원사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가 이운 행사와 관련해 선원사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가 일방적으로 공문 내용을 취소하고 이운 재현의 출발장소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축전을 홍보하기 위해 이운 행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현충일, 사찰마다 추모법회 이어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 6월 3~4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또 12일에는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호국영령천도법회를 봉행한다.

7일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와 은평구청불심회는 북한산 진관사에서 제23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하는 등 전국 사암에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법회가 이어졌다.

이상언 기자

839호 CONTENTS

현장속으로 연꽃전통문화체험행사 5



특집 · 문수 스님 1주기 추모 행사 11 · 12

기획인터뷰 · 본각 스님 여성지도자를 만나다 16 · 17







국내 최초, 불교계 최초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출간!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품위 있는 선물!
Concise Buddhism Dictionary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 명확하고 풍부하다.

불자 모두 선물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김승동 편저(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17×178mm / 고급 사전 용지 사용
1,216쪽 / 4,950여 개 항목 수록
고급 양장 / 특수 제본 / 값 38,000원

구입 문의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 법보시는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 각 지역별 판매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특징

1.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단어 4,950여 개 항목을 엄선했다. 불교와 관련된 교리 · 사상 · 역사 · 인물 · 문화 · 문헌 등 불교도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항목 중심으로 뽑았다.

2. 단어의 개념 설명이 매우 간결 · 명확 · 풍부하다.

3.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4. 사이즈가 작은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고급 사전 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로 가볍다.

5.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한 단어만 찾아도 관련 지식이 쏟아진다. 부처님 생애는 물론, 인도 · 중국 · 한국 · 티베트 · 일본불교의 역사와 초기 · 원시 · 부파 · 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의 교리와 역사 · 사상 · 철학 · 문화가 다 서술되어 있다. 특히 반야,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대승불교, 선사상, 무아, 열반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되어 있다. 이 한 권만 있으면 중요한 불교용어는 물론이고, 불교교리와 상식,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까지 모두 해결된다.

6.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승화된다.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발전합니다. 법문이나 강의를 듣고 나서 질문을 하고 싶지만, 막상 "그것도 모르냐"고 할까봐 질문하지도 못합니다. 또 타인을 의식해서 질문하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오기도 전에 잊어버리기 일쑤!

통도사 주지에 원산 스님 임명

자승 스님 "문중화합을 최우선 해 달라" 당부



방장 불신임까지 이어졌던 영축총림 통도사의 문중간 갈등이 새 주지 원산 스님의 임명으로 일단락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원산 스님을 통도사 제28대 주지에 임명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통도사가 그동안 잡음이 많았다. 문중화합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 주지 원산 스님은 "통도사 문제로 종도들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원장 스님의 어려운 결정에 감사하다. 산중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방장스님이 추천한 원산 스님에게 결격사유가 없고, 사중의 시비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을 고수한 빠른 임명이 산중의회 등으로 분열된 통도사를 화합시키는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산중회의 측은 조계종 총무원을 항의방문 하려했으나 前 주지 정우 스님의 만류로 일정을 취소했다. 원산 스님의 주지임명에 산중회의 측은 "총무원의 원산 스님 임명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8일로 주지 임기를 마친 정우 스님도 "총무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누구가 주지가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의 공의를 거쳐 추천권이 행사되길 바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 스님은 1964년 통도사에서 경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수지했다. 1968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원산 스님은 칠불사 운상선원 선현, 극락암 호국선원 선현, 백련화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문중 화합에 최선 다할 터"

"통도사 제28대 주지 문제로 인해 종정 스님을 비롯한 종단 사부대중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제28대 주지 원명 스님은 5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임소감을 밝히기에 앞서 종도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원산 스님은 "통도사는 이번 주지 선출에 따른 갈등을 계기로 반성·참회하며 불교와 종단의 발전을 위해 자성과 쇄신의 5대 결사뿐만 아니라 모든 불사에 힘껏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무엇보다 통도사는 화합이 중요하다. 산중의 대중이 화합과 단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임을 살겠다"고 말했다.

원산 스님은 "옛부터 '어른을 잘 모시고 존경해야만 복을 받아 잘 산다'고 했다"며 "상경하애(上敬下愛)하는 불가의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법일 스님 승적 삭제는 부당

초심호계원, '승적 복원할 것' 판결

초심호계원이 총무부의 법일 스님의 비구계 삭제는 직권남용이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직권을 남용한 총무부장 영담 스님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밟으라고 권고했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재원)은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2차 심판부를 열고 법일 스님이 신청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판에서 초심호계원은 "종법에 승적 변경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총무부장이 임의로 승적을 변경한 것은 종법 위반으로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일 스님의 승적을 복원하고, 진행한 행정조치들도 백지화하라"고 판결했다.

조동섭 기자



"문화재청장님 서산마애불을 지켜주세요" 조계사가 서산마애삼존불 성역화와 보원사지 복원불사를 위한 '민족문화수호 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6월 2일 실시했다. 조계사 신도들은 미리 마련된 엽서에 마애삼존불 성역화와 보원사지 복원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엽서를 작성했다. 작성된 엽서는 최광식 문화재청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기범 기자

이나은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불교관련 지명변경 조사해야



최근 서울 안암동 개운사 진입로인 '개운사길'이 친일인사의 호를 따 '인촌로'로 변경될 뻔했다가 불교계와 항일 단체들의 반발로 해당 구청이 사과하고 복원을 약속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전국의 불교관련 지명에 대한 명칭 개조의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페이스북 부루나에서 "개운사길에 대한 명칭이 원상복구 된다는 군요. 날아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일을 겨우 막았네요. 그런데 전국의 불교관련 지명이나 산 이름을 바꾸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와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게재했다.

이에 대해 부루나 회원들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N모씨는 "개운사길 명칭이 원상복구 된다니 일단은 다행이다. 앞으로의 대처가 중요하다. 명확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며 각자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웃종교의 활동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K모씨는 "다음 총선이나 대선 때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 교회사람들은 10만원씩 쪼개어 그 동네 정치가에게 후원하지 않았을까?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며 "부처님 시대에도 돈 많은 장자가 기원정사를 세워주고 왕이 부처님을 후원했다. 국가의 상류계층이 호응하지 못하는 종교는 아무래도 밀리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이어 K모씨는 "기독교의 식민지 역사 왜곡은 심했다. 남미역사는 사라지고, 유럽의 초대 역사도 모두 사라지고, 그리스 내의 모든 불교 흔적도 사라지게 만든 것이었다. 대규모였고 시간도 오래 된 왜곡이었다. 그런 맥락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일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자성과 쇄신 결사 공감대 확산

조계종 6월 중 결사 운동본부 발족

조계종이 자성과 쇄신 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성과 쇄신 결사 운동본부'를 6월 내에 발족하며 대정부입장 변화 등 집행부 추진사항에 대해 종정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5월 23일 중앙종무기관 및 유관기관 종무원을 대상으로 대중공사를 연 조계종은 6월 1일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대정부 긴장관계 해소 및 전환의 필요성 △대정부 긴장관계 국면전환과 이에 따른 자성과 쇄신 결사 집중 등 종단 집행부 입장이 발표됐다.

특히 6월 중으로 예정돼있는 결사 운동본부 발족 등 총무원 각 부서의 진행경과 보고와 함께 의견청취 등이 진행됐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총무원은 민족문화수호활동의 성과로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를 계기로 민족문화수호에 대한 종도의식이 전환된 점과 공감대 형성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가시적인 조치를 비롯해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취약하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총무원은 세부적인 계획 추진 방안을 담아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종도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종정 예하와 원로회의 의원 스님들에게 보고하고 6월 7일 종단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10·27법난, 혜성 스님 패소

10·27 법난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국가로부터 처음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이끌어 냈던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0부는 6월 1일 혜성 스님이 10·27 법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과 달리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혜성 스님의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제4회 한암사상연구원 학술회의

鏡虛선사와 漢岩선사

한암사상연구원(오대산 월정사, 한암문도회)에서는 오는 6월 15일(수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조계종 총무원 건물)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4차 '한암사상연구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본 학술회의에서는 근대 한국선의 중흥조인 경허(鏡虛)선사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한 한암(漢岩)선사의 선사상과 師資관계(스승과 제자), 그리고 한암(漢岩)선사와 만공(滿空)선사의 역할, 한암 육필본『경허집』간행과 그 이후의 여러 경허집에 대하여 (각본의 동이점과 오역 등) 고찰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근대 한국선은 그 정점에 경허선사가 있고 그의 제자로서 혜월, 만공, 한암선사 등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산 월정사 회주 玄海
오대산 월정사 주지 正念 합장

● 학술회의
● 일 시 : 2011년 양력 6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6시까지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총무원 청사)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 오대산 월정사, 한암문도회
● 학술회의 사회 :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철과 교수)

● 발 표
▣한암의 격외관문과 간화(看話) -경허와 한암의 조사선 傳承-
발표자 -변희욱(서울대 철학과, 간화선 전공)
▣『경허집』편찬, 간행의 경위와 변모 양상 발표자-이상하(민추 교학처장)
▣한암(漢岩)과 만공(滿空) 발표자- 김광식(동국대 연구교수)
▣경허선사의 지음자(知音者) 한암 발표자- 윤창화(민족사 대표, 한암사상연구자)
▣종합토론 토론자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 교수, 선, 화엄 전공)
전보삼 교수(신구대학 교수, 만해기념관장)
자현스님(철학박사, 월정사 교무)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전화 033-339-6800, 서울 02-732-2404(민족사)

불교생태운동 '말보다 실천'

불광연구원 봉축 학술연찬회… 류정길 대표 "스님 의존 한계 명확" 지적


류정길 대표


이도흠 교수


서재영 연구원

"지역자치, 분권화를 토대로 지방사찰을 기본 모델로 지역의 도덕적 권위그룹을 형성해 불교 생명평화운동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불광연구원 2011 봉축 학술연찬회'의 발제자로 나선 류정길 에코붓다 대표는 불교 생태주의 운동의 미래를 위해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닌 생태주의적 메시지로 인식하고 지역중심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광연구원은 '한국불교의 생태담론과 생태운동'을 주제로 6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학술연찬회를 열었다. 발제자로는 이도흠 한양대 교수, 조은수 서울대 교수,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박경준 동국대 교수, 김종욱 동국대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허남결 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류정길 대표는 '한국불교환경운동의 역사와 미래' 주제발표에서 "환경문제를 단순히 자연파괴, 오염, 폐기물문제의 해결로 인식하는 사람은 결국 자연을 잘 보존하고 오염시키지 말자는 결론을 내린다"며 환경운동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류 대표는 "최근 생태주의 운동에서 보여준 불교의 지도력은 1970~80년대 개신교와 가톨릭의 지도력을 넘어설 정도로 사회적 결정력과 도덕적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은 종단의 제도와 안정적 지원도 아니고, 불자대중의 지지를 토대로 확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몇몇 관심 있는 스님들의 지도력에 의존한 한계에 대한 지적이다.

류 대표는 "수경 스님이 몸 담았던 불교환경연대의 파행을 보면 스님에 대한 의존적 토대가 얼마나 부스러지기 쉬운 상황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길 대표는 불교 생태주의 운동의 미래를 위해 '불교환경의제21'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개혁을 실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불교환경의제21이 정부나 지자체, 기관과 함께 전환과 변화를 도모할 때 민주적 사찰을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사찰별로 환경위원회를 결성해 사찰을 바로 알고, 가꾸고, 일꾼이 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신도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며 "나아가 불교 산림과 국립공원, 백두대간을 지키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교를 수호하는 것이므로 사찰이 지역의 산림을 지키는 역할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발제자들도 불교생태운동을 위한 적극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한국불교의 생명·생태론과 그 실천운동'의 주제발표에서 최치원의 불일불이(不一不二) 패러다임을 소개하며 서양과 동양의 사상의 융합만이 생태운동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홍수를 막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댐을 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이 흐르는 대로 물길을 터주는 것이다. 댐을 쌓는 것이 근대적·서구적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대안이라면, 물길을 터서 물을 흐르게 하고 나무를 심는 것은 화쟁의 불일불이(不一不二)의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대안이다"고 설명했다.

양자를 하나로 아울러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과 생명을 살리는 실천을 행할 때, 사회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국 선원(禪院)의 생태적 사유와 전통' 주제발표에서 "선승들의 수행문화가 살아 있는 선원의 삶과 수행자들의 가치관은 생태적 가치관과 삶을 정초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은 "한국의 선원은 소욕지족과 청빈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이 오롯이 전승돼 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선원의 수행문화도 현대문명에 동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행과 노동의 분리, 선원에서 필요한 물자를 외부에서 의존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전통적인 선농일치의 삶을 지켜야 한다. 나아가 숲을 지키고 사찰 주변의 자연을 보호하는 산주로서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찬회를 통해 발표된 논문 중 한국불교의 환경운동과 관련된 논문 4편은 오는 6월 20~27일 대만 법고산사에서 개최되는 세계불교학자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불교 생태관으로 새환경운동을

한국불교 환경운동가 집중 조명

이번 연찬회에서는 도법 스님, 수경 스님, 지율 스님 등 한국불교의 환경운동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 활동가들에 대해 조명했다. 조은수 서울대 교수는 '지율 스님의 생태운동과 에코페미니즘'에서 지율 스님을, 이도흠 교수와 류정길 대표는 도법 스님, 수경 스님, 문수 스님을 조명했다.

 # 도법 스님의 생명평화운동

도법 스님은 생명평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화엄연기론을 바탕으로 〈생명평화경〉을 만들기도 한 스님은 2003년 '지리산 생명평화결사'를 창설해 5년에 걸쳐 전국 방방곡곡 1만2000여㎞를 돌며 생명평화의 싹을 심었다. 대안의 공동체 건설에 매진하기도 한 스님은 불교귀농학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지역공동체운동 및 생명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수경 스님의 환경·생명운동

수경 스님은 2001년부터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새만금 갯벌 간척 반대 운동,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등을 이끌었다. 스님은 2003년 부안 새만금의 해창갯벌을 떠나 65일간 305㎞를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호소했다.

 # 지율 스님의 도롱뇽 소송

지율 스님은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2001년부터 국토순례, 삼보일배, 단식투쟁에 이어 부산시청 앞에서 매일 3000배를 했으며, 다시 부산역~천성산 화엄벌 구간에 걸쳐 다시 삼보일배를 하며 끈질긴 활동을 전개했다.

 #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경북 군위군 지보사 문수 스님(세납 47세)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유서를 남긴 채 5월 31일 오후 3시경 낙동강 둑방에서 소신공양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환경연대, 지역조직 강화 나선다

4대강 사업 구간 우선 추진하기로

불교환경연대가 집행위원회를 열고 지역조직 설립과 불교환경의제21의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제41차 집행위원회'를 불교역사문화회관 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5월 25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수 스님 소신공양 추모 1주년 행사 참여, 지역조직 설립, 불교환경의제21 정비, 어린이 생태·명상학교, 아이숲 사업 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환경연대는 올해 다양한 사업 추진보다는 조직 안정화 및 체질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불교환경연대는 그동안 지역 조직 중 광주전남지부가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불교세가 강한 영남권에서는 뚜렷한 지역 조직이 없었다.

이에 따라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사업 추진 구간을 중심으로 지역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집행위원 및 각종 홍보를 통한 창립 대상자를 모집하고, 조직국 설립 메뉴얼 규정을 기초로 창립을 지원한다.

불교환경연대는 지역조직이 강화될 경우 불교 환경단체로서 다양한 활동과 즉각적인 환경현안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4년 임기동안 1000억 건학기금 모으겠다"

동국대 김희옥 총장, 제2건학 운동 기금 마련 행사서 밝혀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제2건학운동 기금 마련을 위해 5월 31일 그랜드앰버서더호텔에서 '제2건학 RE_START DONGGUK'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 동국대 김희옥 총장,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 동국대 이연택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스님들과 동국대 동문, 교직원 등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김희옥 총장은 "동국대가 추진하는 '제2건학 운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며 "동국대 발전은 곧 한국불교가 발전하는것과 같다. 제2건학 추진으로 동국대가 종립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국제적인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동국대는 지난 1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한국사회에 우뚝설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동국대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합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현재까지 55억 상당의 제2건학 기금이 조성됐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서 약 100억 원 상당의 기금이 약정됐다. 한편, 동국대는 4년간 1000억 원의 제2건학기금 조성과 남산 대운동장, 수영장 매입 등을 위해 '땅 한 평 갖기'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의궤 제자리 찾기

강원도 문화계도 동참

조선왕실의궤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강원도 단체들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또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중인 조선왕조실록도 본래 보관됐던 강원도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월정사와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및 강원도 문화예술계는 춘천 문화원 회의실에서 5월 27일 실무회의를 열고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궤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다각도의 협력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추진 준비위 관계자는 "환국은 결정됐지만 아직 소장처는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는 실록과 의궤가 고향인 강원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공원내 문화유산 보존활용 MOU

문화재청(청장 최광식)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5월 31일 국립공원 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축적된 현장관리 역량을 문화유산 관리와 재해 예방 등에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문화재청의 노하우를 국립공원 내 문화유산 및 관련 시설물 관리와 활용 등에 적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주간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으로 두 기관이 협약을 체결했는지 파악중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 오색공단등 / 팔각접등 / 만월등 /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승하강 장치인 천상열차는 찬덕불교가 신개념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하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하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일 주 문



향적 스님 능인학원 신임 이사장으로
경산 선본사 갓바위 주지 향적 스님은 6월 1일 조계종 종립 능인학원 신임 이사장에 선출됐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개소 2주년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청원 스님은 6월 1일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우울증 예방 캠페인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영등포장애인 복지관 봉제교육실시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 지거 스님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5월 27일 '보리공방'을 개소했다. (02)3667-0870~5



김포 난민 지원 자원봉사 협약식
김포마하이주민지원센터 대표 지관 스님은 5월 26일 김포시사회복지관에서 난민돕기 자원봉사 협약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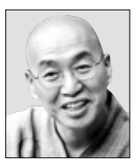
부곡복지관 '반딧불이 하루카페' 개최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장 도선 스님은 6월 10일 관내 하늘정원에서 사회복지기금마련 '반딧불이 하루카페'를 개최한다. (031)417-3677



안정사 영산재, 경남 민속예술제 금상
통영 안정사 영산재보존회 이사장 승헌 스님은 5월 19~20일 거창군에서 열린 제36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2011 만해축전 불교학술 심포지움
한국불교학회 회장 김용표 교수는 6월 24일 동국대 문학관에서 '불교의 평화사상과 소통'을 주제로 2011 만해축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2차 백일기도 입재식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6월 26일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제2차 백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02)587-8990



불교계사회적기업 설명회 개최
날마다좋은날 김의정 이사장은 6월 21일 중앙신도회관에서 불교계사회적 기업의 창립과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02)733-7277

〈이전〉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최근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308호에서 같은 동 건물 707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25-4277

인권, 불교가 나서야

조국 서울대 교수, 화쟁리더십 아카데미서 특강



"선진화의 핵심은 인권 선진화에 있다. 자유권을 넘어 사회·환경·문화권에서도 인권의 제도화 및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불교는 환경권(環境權)의 제도화 및 보장을 위한 근본철학을 바탕으로 세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치마·머리 길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던 시대는 지났다. 하지만 대한민국 인권은 여전히 하위권이다. 세계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는 196개국 중 70위. 23위 자메이카, 48위 대만, 54위 아프리카보다 못한 우리의 인권, 어디에 있을까?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불교사회연구소 주최 화쟁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강연한 조국 교수를 만났다.

조국 교수는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적 인권을 짚었다. 조국 교수는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무지개빛 인권 분류인 청·적·녹·갈색 인권이다. 청색인권은 자유권으로 양심, 사상, 신체, 종교,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적색인권은 노동과 복지를 누릴 권리인 사회권이다. 녹색인권은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이다. 갈색인권은 문화권이다. 조국 교수는 "불교의 근본 사상의 핵심은 생명과 생태에 있다. 불교의 사부대중이 자신의 위종교의 역할을 다할 때 환경권 보장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명박 정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후퇴된 우리의 현실을 고발하듯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밥이 공정하게 나눠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 불만의 수준을 넘어 짜증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고 봤다.

"한국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교육, 청년실업, 내 집 마련, 불안한 노년이라는 4개의 개미지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됐고, 정치적 민주화를 추동한 세력이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일자리, 교육, 주거, 노후 문제에서 오는 대중의 불안과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조국 교수는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인권이 아니다"라며 "인권보호는 반드시 일정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 그리고 다수자의 개인적 손실이 수반 되지만 복지제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성장을 수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조국 교수는…

1982년 서울대 법대 최연소 입학, 1992년 최연소 울산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 복역, 미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 동국대 교수, 2001년 서울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국가인권위원,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진보집권플랜〉 등 다수

포스트 달라이라마 시대 개막

티베트 망명정부 3대 수상 롭상상게



티베트 망명정부가 새로운 국면의 역사를 여는 만반의 준비를 맞췄다.

5월 30일, 열흘간의 국정회담을 마무리한 티베트 망명정부 의회(의장 뺌빠 체링)는 개헌된 헌법 조항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14대 달라이라마(텐진갸쵸, 76)가 정치적 지도자로서 지녀왔던 위신과 역할을 3대 수상 롭상상게(43·사진)와 내각이 정식으로 수반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서 티베트 망명정부는 영국 근대 민주주의 정치사를 모범으로 삼은 의원내각제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 따라서 달라이라마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 위치의 국가 수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주요 외신들은 티베트 망명정부의 새로운 정치적 리더 롭상상게가 52년 티베트 망명사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 온 것에 대해 티베트인의 체감 현안과 괴리감을 형성치 않을까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했다. 롭상상게는 2005년에 중국 베이징에 방문해 정식으로 티베트 라싸의 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이후 실제 티베트를 방문한 사례가 없다.

롭상상게는 31일, BBC '집중대담(HARDtalk)' 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수행하게 될 정치적 리더는 달라이라마의 중도 노선을 최선으로 받들 것이며,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 야기를 배제하고, 티베트 본토의 자주성 확립과 독립을 위한 선봉에 설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사회개혁의 총체적 이념을 불교도의 정신에 비추어 간디의 시민불복종운동에서 보인 정신을 실전에서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 선거는 예비 선거 당시부터 부탄과 네팔의 투표함이 중국정부의 압력으로 인도 다람살라 망명정부에 전달되지 않는 등 내외적으로 차질을 빚어왔다. 롭상상게는 오는 8월 공식으로 수상의 직무를 수행한다.

인도 다람살라= 가연숙 omflower@gmail.com

소신공양 충담 스님 13주기 추모

5일 가평 감로사…지성 스님 법맥 전수식도

가평 감로사(주지 지성)는 6월 5일 중생을 위해 소신공양한 충담 스님의 13주기 추모영산재와 지성 스님의 법맥 전수식을 봉행했다.

충담 스님은 1998년 6월 27일 남북평화통일, 중생제도, 불교 화합 등 3가지 원력을 세우고 한국불교 최초로 소신공양을 결행했다.

감로사 주지 지성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호명산 도량에서 한국불교사 최초로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소신공양으로 화중생연을 피우고 육신등공한 충담 스님의 높은 뜻을 기리고 실천을 다짐하는 회상의 자리"라고 말했다. (031)584-0117

조동섭 기자

자비의 마음 나눠요

태고종 청련사, 독거노인 조손가정 성금 전달



양주 청련사 (안정사 주지 백우)는 5월 26일 대적광전에서 '자비의 마음나누기' 행사를 열고 청련사 대중 스님들과 관음회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200만원과 쌀 400Kg을 양주시 장흥면 관내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20여 세대에 전달했다.

청련사는 하왕십리에서 양주로 이전한 후 양주시청에 장학금을 두 차례 전달했으며 올 7월에 개최할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행사'와 자비의 마음을 나누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031) 836-0827 노덕현 기자

불교법인연대 설립선포식 개최



불교법인연대 설립선포식 및 호국안민 기원대법회가 5월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강당에서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불교법인연대(회장 혜암 영월)는 선포문에서 "대내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합불교연대의 협의체 출현이 시대적 요청"이라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이 주축이 되어 이사장 합의로 통합불교연대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만천하에 선포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6월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전국사회복지 자원봉사자대회 '나눔과 희망의 어울림'에서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상은 사회복지재단 최종환 사무국장이 대표로 수여 받았다. 천진영 기자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김윤수 전 부장판사가 펴낸
대승불교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 역주서!

청량의 소에 의한
대방광불화엄경(I~VII)



알기 쉬운 번역과 상세한 역주로 독자들을 화엄의 정수로 이끌어주는 책!

80권본 화엄경을 한글세대 독자가 읽기 쉽게 번역함은 물론, 화엄경 주석의 백미로 꼽히는 청량징관의 「소초」를 번역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우리말 번역과 실차난다 한역본을 함께 수록하여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 이치가 깊고 넓음은 물론 분량마저 방대하여 접근이 어려웠던 화엄경에 대한 상세하고 치밀한 최초의 해설서이다.

김윤수 역주 | 전7권 | 총 6,000쪽 | 정가 300,000원 | 한산암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붓다북 www.unjusa.com

탄산음료 대신 연꽃차 마시며 전통문화 즐겨요

미타사 연꽃전통문화체험



음력 5월 5일 단오를 앞두고 미타사에서 열린 제11회 연꽃전통문화체험 행사. 전통음악에 맞춰 꼭두각시 춤을 추고있는 어린이들

화창한 5월의 마지막 토요일, 서울 옥수동 미타사 담벼락을 따라 귀에 익숙한 전통 음악이 흐른다. '꼭두각시' 춤 음악이다. 미타사 경내에는 노래에 맞춰 아이들의 춤 연습이 한창이다. 이른 아침부터 성동구립연꽃어린이집 해오름반 아이들 10여 명은 한복을 예쁘게 차려 입고 막바지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곧 친구들 앞에서 춤을 선보일 생각에 잔뜩 상기된 표정이다.

옥수동 미타사(주지 상덕)는 설 · 추석 · 한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인 단오를 앞두고 5월 28일 '제11회 연꽃전통문화체험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미타사가 수탁 운영중인 성동구립 연꽃어린이집 가족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단오맞이 전통문화체험으로 야단 법석이었다.

행사에는 먹을거리, 체험한마당, 놀거리, 함께하는 마당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먹을거리로는 예부터 혼례나 경사에 먹는 잔치국수와 단오 때 먹었다던 꽃차를 준비했다. 떡메치기, 수리취떡 만들기, 타래과 만들기처럼 전통 먹거리도 직접 만들 수 있다. 체험한마당에는 단옷날에 선물로 주고받는 부채인 단오선(端午扇)만들기, 짚풀로 다양한 물건 만들어보기, 단청에 색칠해 목걸이 만들기 등 아이들이 전통문화를 즐겁게 접할 수 있게했다.

이날 아이들은 알록달록 예쁜 한복을 입고 맵시를 뽐냈다. 김노아 어린이는 "예전부터 다례(茶禮)시간에 한복을 입었어요. 차 만드는 날이 돌아오면 한복을 입어요. 친구들 생일잔치 할 때도 입고요"라며 한복입는 것을 즐거워했다.

연꽃어린이집에서는 3~5세 어린이들이 다례를 배운다. 어린이집 최윤정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서 그런지 평소에 장난꾸러기 같던 아이들도 다례시간에는 차분하게 차를 마신다"고 했다.

마당 한켠에는 장터가 벌어졌다. "여기 물병있어요. 보온 잘되는 물병 있어요!" "인형사세요. 진짜 예쁜 곰 인형이에요!"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우리동네 녹색장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기증한 물건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행사에는 전통문화체험과 함께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정신을 키울 수 있는 녹색장터를 마련했다. 아이들은 서로 물건을 팔겠다고 목청껏 소리 높였다. 동화책, 장난감, 아동복 등 없는 것이 없지만 제일 비싼 것이 1000원 이다.

단오선·수리취떡 만들며 단오 풍속 체험하는 아이들

미타사에는 불과 30년 전만해도 단옷날이면 동네 처자들이 그네를 탔다. 300년 된 나무가 있다. 오늘은 그 자리에 그네대신 아이들을 위한 떡메가 준비됐다. 아이는 커다란 나무망치를 들고 찹쌀 반죽을 내리쳤다. 떡메가 떡에 찰싹 붙어 잘 떨어지지도 않지만 마냥 즐겁다.

떡메만 치는 것이 아니라 단오 음식인 수리취떡을 만들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다. 아이들이 직접 플라스틱 칼로 떡 반죽을 잘라내 떡쌀로 눌러 찍는다. 먼저 떡살과 도마에 참기름을 바르는 것도 잊지 않는다. 직접 만든 수리취떡은 평소에 취나물을 즐겨 먹지 않던 아이들도 향긋한 봄나물의 향기에 푹 빠지게했다.

맷돌, 디딤 방아, 다듬이도 준비 됐다. 어머니들은 맷돌을 보면서 옛 향수를 떠올렸다. "엄마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여기에다가 콩을 갈아서 엄마가 좋아하는 콩국수 해주셨었어"라고 말하며 아이와 함께 마주 앉아 맷돌을 돌렸다. 맷돌은 어머니에게는 향수를, 아이에게는 새로운 추억이 됐다. 나무에 매단 그네도 타고 널도 뛰어볼 수 있는 미타사는 도심속 작은 민속촌이 됐다.

전통놀이와 단오음식을 체험해 보는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우리아이 칭찬하기' 코너이다. 옛 방식으로 만든 명주 천으로 된 두루마리 서책에 부모님들은 아이가 잘하는 점을 써 칭찬했다. 부모님이 자신을 칭찬의 글을 쓰는 것을 지켜본 아이들은 기분이 좋으면서도 멋쩍은지 엄마 아빠 옆에 안지 못하고 주위를 맴 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240인분 준비된 잔치국수도 동이 나고 시원한 매실차와 연꽃차도 바닥을 들어냈다. 아이들은 함께 만드는 만다라도 색색으로 모두 칠하고 짚으로 새끼를 꼬는 법도 배웠다. 아이들에게는 전통문화가 더 이상 어렵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었다. 손으로 만지고 직접 살펴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새 어떻게 하는지 알아냈다.

신라 고찰 마타사, 지금은 아이들 세상 단오맞이 전통체험으로 지역민과도 화합

체험한마당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청실홍실' 놀이가 이어졌다. 어른들이 청색과 홍색의 비단을 팽팽하게 맞잡으면 그 위를 아이들이 밟고 지나간다. 아이들이 무사히 비단길을 지나게 합심하면서 아이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미타사 앞마당은 공중에 떠있는 비단 위를 걸어간다는 긴장감과 설렘으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처음만나 어색해하던 아빠들도 한마음이돼 비단을 지탱했다.

미타사 주지 상덕 스님은 "음력 5월 5일 단오는 농사의 번영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던 명절이었지만 지금은 잊혀져 가고있다. 단오가 사라져 가는 명절이됐다. 아이들에게 단오를 어떻게 설명해줄 수 있을지 많이 고심하며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잊혀져가는 옛 조상들 풍속을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미타사는 아이들에게 전통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자 11년째 '연꽃전통문화체험문화행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성동구립 연꽃어린이집 정명자 원장은 "우리의 옷인 한복이 이제는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돼버렸다. 아이들에게 한복을 접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한다. 가정 통신문을 통해 부모님께도 아이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오기를 부탁하지만 해마다 한복을 입고 오는 학부모님들이 줄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라 진성여왕 2년에 건립된 미타사는 종남산에 둘러싸여 경관이 뛰어나고 물맛이 좋았다고 한다. 지금은 처마 옆으로 전철이 지나가고 뒤로는 병풍처럼 아파트가 들어서 옛 모습은 찾을 수 없지만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전통문화를 알리는 교육의 장이 되고있다.

탄산음료보다 연꽃차를 좋아하고 다례를 배우며 간식으로 수리취떡을 먹는 연꽃어린이집 아이들이 있어 우리 전통문화의 미래는 밝아보였다.

천진영 기자



아이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청실홍실' 놀이



'우리아이 칭찬하기'에서 1등한 아버지의 칭찬 낭독 및 전달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2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제포교사(승려, 재가 법사)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땀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왠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8월 18일. 수계의식 6박 7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신청기간 : 7월 10일까지 모든 서류 접수 완료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

템플스테이, '공감'을 부른다

제3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 성료, 5대결사에도 뜻 모으기로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국민과 세계인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되자. 그동안의 성과나 대의명분을 이유로 남을 탓하기 보단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보다 나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진하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이 5월 30일~6월 1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3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돌아보고, 마주보고, 멀리보자'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89개 사찰의 200여 운영자 스님들과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생명 문화와 평화 나눔의 템플스테이 실천 선언'을 결의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템플스테이에 대한 일부 왜곡된 시각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폄훼를 넘어 민족 정체성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템플스테이는 특정 종교 활동이 아닌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5월 31일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발전을 위한 내부 성찰'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템플스테이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을 다지며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의 역할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템플스테이의 실무자들은 승가의 정신문화를 불교의 핵심으로 알고, 이를 통해 승가와 참가자, 신도를 이어주는 중간 역할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불교문화사업단에 대해서는 재 참가 유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 개발이 절실하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다문화가정, 결손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과 젊은 층들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야한다는 의견들도 논의됐다.

문화축제는 템플스테이 운영 역사를 되돌아보고, 각 사찰별 템플스테이 사진전, 사찰 고유 프로그램 공모전, 체육대회, 음악회, 장기자랑 등 실무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제3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를 통해 앞으로 템플스테이의 더 큰 발전과 변화를 위한 초석으로 삼고, 향후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박 기 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봉사활동은 부처님 가르침 닮아"

환한 미소가 빛나는 동국대 일산병원 공정예 자원봉사자



"가려서 하면 봉사가 아니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건 다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이 모두 봉사에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자원봉사 중인 공정예(68 · 사진) 씨는 일주일 중 나흘을 봉사활동을 위해 사용한다. 동국대병원 외에도 지역내 다른 병원과 복지관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공 씨는 젊은 시절부터 지역 내 어머니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봉사활동과 인연을 맺어왔다. 어머니회 회장 시절 회원들과 함께 마을의 폐품들을 수거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을 어르신들의 경로잔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TV에서 80대 노인이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공씨는 충격을 받았다. 당시 50대였던 공씨가 고령의 노인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된 것이다.

"좀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밥 배식 봉사도 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지요. 그러다 동국대 병원이 문을 열면서 이곳에서 활동하게 됐어요."

공정예 씨는 2007년부터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봉사자로 활동 중이다. 건강검진안내센터에서 원활한 검진과 진료를 위한 안내가 그의 몫이다. 언제나 환하게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를 병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불자라고 밝히면 환자들이 제 웃음이 관세음보살을 닮았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불자로서 그 이상의 칭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정말 보람되고 마음이 뿌듯하지요."

하지만 공정예씨도 봉사활동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보수를 받고 활동하는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봉사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많이 당황했으나 이제는 웃으며 대처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상대방이 미안해하기도 한다. 오랜시간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봉사를 통해 부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믿기 때문인지 그의 얼굴은 언제나 미소를 띄고 있다.

공정예 씨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건강의 중요성을 항상 잊지 않는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관세음보살님께 가족들이 천진불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한다.

공 씨는 절에서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는 일 만큼이나 봉사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씨는 절에 못가는 일이 있어도 봉사활동은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가 다니는 절에서도 공정예씨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스님이 직접 불자로서의 명예를 걸고 활동하라고 당부할 정도로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남편도 공씨의 활동을 이해해주면서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런 활동들이 공씨에게 큰 힘이 된다.

"가끔 봉사활동을 하는 젊은 불자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불자들이 봉사활동에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봉사활동은 부처님 가르침과 닮아 있습니다." 박기범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달의 환우

희귀난치병 루푸스 앓고 있는 남기우 군

키워준 조부는 혈액암, 조모는 당뇨합병으로 투병 中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한 기우가 행여 넘어질까, 다칠까, 남에게 손가락 받지 않을까 마음 졸였는데, 이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6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에 남기우(14) 군을 선정했다. 남기우 군은 현재 루푸스(전신 홍반성 낭창)라는 희귀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다.

남 군은 2009년 4월 갑자기 장염증세와 고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하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루푸스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루푸스는 자가면역질환군으로 몸의 면역체계가 고장 나, 외부의 침입자인 세균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신장, 피부, 혈액, 관절, 위장관 등을 적으로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남 군은 루푸스로 인해 급성신부전증과 확장성 심근병증까지 앓고 있다.

남 군은 현재 햇빛을 보면 피부발진과 심한 두통에 시달려 병원과 집을 오가는 것이 생활의 전부가 됐다. 또 심장에도 문제가 자주 발생해 일주일에 세 번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남기우 군의 조부모님은 "혈액투석을 받는 날에는 기우가 너무 힘들어해 기진맥진하고 토할 때가 많다"며 "결국 초등학교 5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기우 군은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이혼으로 3살 때부터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현재 남 군의 조부는 혈액암으로, 조모 역시 당뇨합병증으로 투병 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남 군의 한 달 생활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보조금 60만원이 전부이다. 치료비로 쓰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현재 남 군의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오다 남 군과 조부의 투병으로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만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 군의 아버지는 "기우의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나날이 빚만 늘어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02)734-8050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참선으로 구미호 쫓자

조계사, 6월 4일부터

도심 속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행 프로그램이 나왔다.

조계사(주지 토안)는 6월 4일~8월 13일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11회에 걸쳐 조계사 하안거 토요철야 정진 '여름 밤 구미호를 쫓다'를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법문과 호흡명상 108배, 음악회, 참선 등으로 진행된다. 법문은 토진 스님과 일수 스님(조계사 자율선원 선원장), 명법 스님(조계사 선림원 담당)이 진행하며 일수 스님의 지도아래 참선을 진행한다.

기본 참선 시간에는 50분 실참, 10분간 포행, 선체조와 기공을 통한 참선 예비과정 등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매회 명상 음악회, 선관련 영화 2회 상영으로 대중의 관심을 모을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불교여성광장 'AGORA' 위해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이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불교여성광장 '아고라(AGORA)' 건립 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바자회를 통해 지혜로운여성, 승만경 연구회, 여성불자108인회, 불교여성연구소,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 웰다잉운동본부, 사찰음식문화센터, 여성인재개발센터, 건강가족센터, 재소자교화센터, Young108 등 10개 센터가 전문화된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자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은 여성불자 1만명이 100만원 씩 모금해 100억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자회의 수익금은 전액 불교여성관장 건립에 쓰일 예정이다.

(02)722-2101 이은정 기자

포교원장배 축구대회

충북 보은서, 11일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6월 11일 충북 보은공설운동장 및 보은 중학교 운동장에서 '제3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제전'을 개최한다. 대회는 축구를 통해 각 지역 단체 포교활동가의 친목 도모와 지역 포교역량을 본사중심으로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가족단위의 신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1등 교구본사에는 1000만원의 지역포교활성화 지원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척추교정, 무중력 감압치료, 수술, 경락, 지압 등 대증치료를 오래도록 받았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대번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신의 상쾌함을 곧바로 몸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휜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 · 후. 항암치료 마치신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 강력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NAVER 정골본가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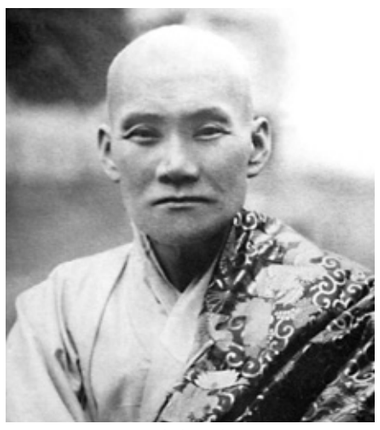
책 구입시
『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정골본가(이영숙) 서울 성수동1가 14-35(우영B/D 4층) · 제2010-서울성동 0204호 · 207-01-43500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책신청 054)637-9810

한암의 눈으로 경허를 본다

한암사상硏, 15일 한암 스님 친필원고 '경허집' 주제 첫 학술회의


한암 스님


경허 스님

한국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법제자 한암 스님(1876~1951)이 손으로 엮은 '경허집'이 학술적으로 조명된다.

평창 월정사 한암사상연구원(문도회장 현해)은 6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오후1시 서울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4차 한암사상연구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회의의 주제발표는 총 4개의 소주제로 진행된다. '한암의 격외관문(格外關門)과 간화(看話)'(변희욱 서울대 철학과 교수), '〈경허집〉편찬, 간행의 경위와 변모 양상'(이상하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한암과 만공'(김광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경허의 지음자 한암'(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발제가 이어진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부산의 고서점에서 발견돼 2년 전 월정사에 기증된 한암 스님의 1931년판 〈경허집〉을 비롯해 1943년 만해 스님이 정리한 선학원판 〈경허집〉 등 각 경허집이 비교 분석된다. 학술회의에서는 경허집의 비교를 통해 경허 스님과 한암 스님의 사상의 관계와 이 시대 승가상에 대해 조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허 스님이 한암 스님에게 전했던 친필 편지를 통해 두 사제간의 각별했던 만남과 헤어짐 등을 소개하고, 경허 스님의 대표적인 두 제자로 알려진 한암과 만공 스님의 차이점도 살핀다.

또 한암사상을 연구해온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경허 선사가 한암 스님을 인가한 후 해인사를 떠나며 남긴 '전별사'를 통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즉 '지음자'(知音者)라고 칭한 이유를 살펴본다.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은 "사회의 표상이 될 승가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칼과 포화 속에서도 수행정진을 이어온 한암 스님의 참모습을 통해 참다운 스님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지정 논평자를 두지 않고 종합토론에서 논평자 3인과 발표자, 그리고 청중이 함께 참여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발표문에 대한 언급 뿐만 아니라 두 선승의 삶과 사상을 자유로이 논하며 절차탁마하자는 취지다. 노덕현 기자

한국선과 간화선 무엇이 먼저인가

동국대 종학硏 개소 기념, 학술대회 성료

일본 · 중국 · 티벳 불교와 선(禪)이 서구를 중심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 한국불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한국선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단행본조차 없는 한국 불교계의 현실을 비춰볼 때 당연한 결과였다. 한국선을 세계에 알리려는 학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5월 30일 종학연구소(소장 종호)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한국선 연구에 나섰다. 연구소는 한국선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영문 한국단행본 〈한국선종사〉 출간을 계획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학연구소는 개소식을 대신해 '한국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주제로 개소기념 제1회 학술대회를 봉행했다.

주제발표에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 '신라 · 고려 선사상의 역사와 내용 및 쟁점', 이병욱 종학연구소 연구원의 '고려 귀족문화 전성기의 선종사', 이덕진 창원문성대 교수의 '고려 무신집권기의 선',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고려말 선사상 내용 및 쟁점' 순으로 진행됐다.

이덕진 창원문성대 교수는 〈한국선종사〉 저술에 앞서 이뤄져야할 토론과 합의의 주제들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간화선의 정통과 전통, 역사, 해석 등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눌은 조계종 개창조인가 중흥조인가, 한국 간화선의 효시는 지눌인가, 혜심인가 △간화선 전통 안에 우리나라 선을 두어야 하는가 △간화선 전통 안에 한국선이 있는지, 한국선 가운데 간화선이 있는가 등이다.

정영식 동국대 불문연 연구교수는 논평에서 지눌에 대한 교리학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관점의 다양화와 확대한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을 주장했다.

최연식 목포대 교수는 11세기 말~12세기 중엽을 연구한 '고려 귀족문화 전성기의 선종사'에 대한 토론에서 시기별 선종의 공통적 특성, 당시 선종이 후대에 미친 영향, 선종 내부의 사상적 차이 등에 선종의 흐름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신라선에 대한 발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는 토론에서 신라 스님의 입당구법에 대한 문헌, 신라 구산선문의 전래에 대한 전통적 견해 및 내용의 검토를 제안했다. 이상언 기자

전국 불화 3000여 점 畵記를 한눈에



불화의 화기(畵記)에는 불화조성을 둘러싼 제반 내용이 담겨 있어, 불교미술을 비롯해 불교 관련 사회경제 · 제도적 측면의 파악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 이하 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불화 화기집〉을 펴냈다.

책은 연구원이 1989~2007년까지 조사한 전국의 불화 3000여 점 가운데 화기만을 수정 · 보완해 모은 것이다. 책은 1950년 이전 조성된 불화를 3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시대별로 수록하고, 불화를 조성한 화승(畵僧) 2400명을 분류해 작품색인을 더했다. 또, 화기의 용어 가운데 해제가 필요한 480여 항목을 풀이해 담았다. (02)701-6830 조동섭 기자

〈학술단신〉

■ 불교학 연구 지원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는 제8회 불교소장학자 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분야는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 △불교관련 번역 분야로 2명 씩 4명에게 모두 3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력서 및 박사학위논문, 번역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6월 20~25일 kbrf@paran. 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9월 경 불교언론을 통해 발표된다. 사무국장 김종환 (011) 9789-3083 노덕현 기자

■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는 6월 10일 오후 1시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다문화사회와 종교교육'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 제5회 선리연구원 학술회의 개최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6월 14일 오후 2시 AW컨벤션센터 하림각 3층 아젤리아 홀에서 제5회 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일 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8 – 전도몽상 내려놓기2

있는 그대로 보아야 괴로움 벗어난다

앞에서 왜곡 또는 전도몽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리석음, 탐욕, 성냄이라고 했다. 그러면 전도몽상이 일어날 때는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삶에서 다양한 왜곡의 형태가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無常]을 영원한 것[常]으로, 괴로움[苦]을 행복[樂]으로, 자아가 없는 것[無我]을 자아가 있는 것[我]으로 보는 것이다.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왜곡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과 정신의 적당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항상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를 통찰하지 못하고 세상이 영원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과학의 성과로 물질이 변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영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무상은 무상으로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보아야
팔정도 수행으로 어리석음·탐욕·성냄 버려야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이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비유를 드는 것조차 쉽지 않다." (A1:58)

지혜를 계발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마음도 적당한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견일 뿐이지 진실은 아니다.

두 번째의 왜곡은 괴로움을 행복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말한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고통스러운 느낌은 일어나는 순간이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나 평온한 느낌은 일어날 때는 괴로움이 아니지만 이들이 사라지면 괴로움이다. 또한 느낌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형성된 것이다. 형성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인 것은 괴로움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괴로움을 행복으로 보는 두 번째 왜곡은 행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의미가 없이 만든다. 행복을 원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하는데 행복하고자 원하면서 본질적으로 괴로운 길을 가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사람과 같아서 자신이 노력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

세 번째 왜곡은 자아가 없는 것을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아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실체이고 물질과 정신에 지배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과 정신은 변하는 것이므로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있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단 조건을 따라 일어난 마음은 사라지지 않게 할 수는 없고 행복한 마음만 일어나도록 지배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고정 불변하는 실체인 자아가 있을 수가 없다. 자아는 단지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견일 뿐이지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상에서 전도몽상의 전형적인 세 가지를 형태를 알아보았다. 이 세 가지 전도몽상이 우리 삶을 계속 엉키게 하고 왜곡되게 하여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위의 세 가지 전도몽상을 철저하게 버리고 무상을 무상으로,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무아를 무아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팔정도 수행을 통하여 전도몽상의 근본 원인이 되는 어리석음과 탐욕과 성냄을 버려야 한다.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화제의 신간
풍 · 수 · 로 · 풀 · 이 · 하 · 는
청와대 입지의 재조명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많은 외침과 역경에서도 나라를 지켜온 민족이라고 자위하기보다는 침략과 고난을 당하지 않을 부국강병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은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地政學的 불리함을 地理的 이로움으로 승화시켜 작지만 강한 나라 초일류국가를 지향하는데 풍수가 기여할 부분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화려함에 감춰진 치명적인 毒을 간과하고 있다.
◆ 갈등과 논란을 겪는 세종시 입지를 국내외 역사적 도시들과 비교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았다.
◆ 우리의 국토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약속의 땅 희망의 땅이 곳곳에 있다.
◆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 전국토의 명혈을 모두 찾아 쓴다 해도 36홀 골프장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 지종학 지음 / 신국판 / 328쪽 / 정가 2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청와대 입지의 재조명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상권 · 하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한국의 재혈풍수' 상 · 하권은, 교구통맥법에 의지해서 태교혈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제를 손에 잡히도록 알기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상술하므로서 난해하다는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캐내려는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상권 風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하권 風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육임이 보인다 |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표학 핵심비결 |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 송월 스님 지음/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기도하며 눈 감는다

발원 11년만에 자제병원 착공… 2012년 완공 예정
15년 전부터 호스피스·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 구축


정토사관자재회는 5월 29일 불교 호스피스 전문시설 '자제병원' 건립 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불교호스피스는 죽음을 눈앞에 둔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의 자비로 보살피는 자비행이다. 국내 최초의 불교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시설 '자제병원' 건립 불사의 첫 삽을 떴다.

정토사관자재회(이사장 능행)는 5월 29일 울주군 상북면 소재 자제병원 예정지(현 마하보디교육원)에서 기공식을 봉행했다. 2000년 '서민을 위한 불교 호스피스전문병원'의 설립을 발원한지 꼭 11년 만이다.

기공식에는 능행 스님을 비롯해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및 후원회원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병원 건립에 마음을 모았다. 능행 스님은 무대에 올라 병원 건립에 뜻을 모아준 1000여 사부대중을 향해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능행 스님은 우리나라 대표적 호스피스실천가로 20년 전부터 소록도와 꽃동네 등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말기 암환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남은 생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 왔다. 당시 스님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출가수행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며 진정한 수행"이라며 호스피스 병원 건립의 서원을 세웠다.

수불 스님은 축하법문에서 "현대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수백년 전 평균 수명이 40세이던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죽음을 대비해 수행하는 것이 불자의 자세로, 평소 수행을 통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보다 평화롭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제병원은 2012년 가을 완공을 목표로 본격 불사에 돌입했다. 자제병원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일대 1만 1890㎡ 부지에 연면적 2519㎡(약 762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짓는다.

말기암 환자들이 편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호스피스병동과 완화의료병동, 재활병동 등 3개 병동에 70개 병상을 갖추게 된다. 시설에서는 환자를 24시간 돌본다.

특히 한평생 전법과 수행에 몸 바친 노스님들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회향할 수 있도록 승가요양시설이 함께 마련된다. 각 층에는 법당도 마련돼 임종을 앞둔 불자 및 스님들이 기도로 생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15년 전 부터 자제병원 부속교육기관인 '마하보디 교육원'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행해 왔다. 임상 전문 훈련기관 '임상보디사트바(CPE)교육원'과 전문 상담지도자 양성기관 '마하보디 명상심리 대학원' 등을 통해 자제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인재불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들은 다시 전문 의료진과 완화의료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종교팀 등 4개 팀으로 배치돼 환자의 건강과 정서, 사회적 돌봄 등을 수행한다.

병원 관계자는 "오랜 세월 호스피스현장에서의 임상 경험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인재불사는 자제병원이 세계적인 완화의료 전문병원의 대표적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자제병원 건립본부 사무국 건립기금 나눔계좌: 국민은행 713701-01-140932 (예금주 정토사관자재회) (052) 264-1007



"평화통일을 염원합니다"
부산북민협, 평화통일염원 걷기대회 개최

온 국민의 염원인 통일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평화통일염원 걷기대회'가 불교계 대북지원단체 주도로 열렸다.

부산지역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회장 조기종, 이하 부산북민협)는 5월 28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제1회 평화통일염원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2010년 12월 부산북민협 창립 후 공식 첫 행사다. 이들은 부산 시민들의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단절된 남북관계 회복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걷기 출발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갈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 북민협은 부산참여불교운동본부(이사장 지원),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공동대표 정여), 부산 정토회(이사장 법륜), 부산어린이어깨동무(이사장 구자신, 쿠쿠전자 前 회장) 등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삼광사, 100만독 관음 백일기도 입재

삼광사가 '제3차 일심청정 100만 독 관음 백일기도' 수행 결제에 들어갔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화산)는 6월 1일 지관전에서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정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매일 5시간 진행된다. 백일기도가 끝나는 9월 8일에는 천태종 본산인 구인사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법어에서 "지난 2년간 100만 독 관음 백일기도는 한국 불교가 과거 승단 중심의 산중 불교를 벗어나 사부대중 중심의 대중화된 불교로 전환되었음을 증명했다"며 "천태종도들이 앞장서서 수행정진에 적극 동참해 한국불교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새 역사를 쓰자"고 설했다.

100만 독 관음백일 기도는 2009년부터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박지원 기자

위빠사나로 '행복한 삶'을
여래사불교대학, 3주간 본원 스님 초청법회

부산불교교육원 여래사불교대학(학장 목종)은 5월 27일~6월 10일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되는 초청법회는 '불교는 무엇이며,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이주민과 함께 걷는 연습中"
중식당 실크로드 연 성원 스님


"用餐愉快(용찬위콰이)"

거제시 장평동에 위치한 아시아 요리전문점 '실크로드'에서 굴짬뽕을 주문하면 진짜 중국인이 중국 정통 굴짬뽕을 가져다준다.

중국인은 유창한 한국어로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한 상 가득 맛있는 중국 음식을 차려준다.

'맛있게 드세요!'라는 유쾌한 중국식 인사도 빼놓지 않는다. '실크로드'는 금강사(주지 성원)가 다문화가정의 자립과 후원을 위해 시작한 사회적 기업이다.

4월 29일 옛 금강유치원 자리에 문을 연 음식점은 12명의 직원 중 다문화가족이 4명, 취약 계층 3명이다. 수익 중 3분의 2는 금강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 거제지부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주지 성원 스님은 "거제도 인구 24만 명 중 외국인은 1만여 명이다. 등록된 다문화가정만도 자그마치 900세대에 이르는 다문화 도시지만, 언어 등의 이유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장을 마련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스님의 다문화가족포교는 2009년 6월 '제1회 세계 요리 및 사찰음식 초대전'이 기반이 됐다.

거제시는 국내 굴지의 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위치해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이 정착해 살고 있다. 이들은 신도들의 이웃이거나 친척 혹은 내 자녀와 결혼해 정착하는 가족이고 거제 시민이었다.

"신도들이 우리 절에서도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법회를 열어 달라는 요청이 굉장했어요. 거제에서 유일하게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던 기관은 YMCA 뿐이었죠. 다문화 가족 대부분이 동남아 불교국가에서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웃종교보다는 불교계에서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랬던 거죠."

금강사는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사찰음식을 선보이고, 직접 만든 고국의 전통요리를 소개하는 잔치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음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행사에 참가했던 다문화가족들은 금강사를 떠나지 않고, 정기법회와 불교대학에 동참하는 불자가 됐다.

"그동안 우리는 다문화가족을 도와줘야하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도반입니다. 특별히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돼요.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다문화 가족법회와 문화체험행사로 시작된 금강사의 다문화 가족포교는 2년 사이, 금강사가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 거제지부를 도맡아 운영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농촌마을에 위치한 작은 절 금강사는 어엿한 복지센터 건물을 갖추고,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센터, 금강장학회와 경로무료급식, 니란타 까페와 실크로드 등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성원 스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외적인 팽창만 쫓아 껍데기에 치우쳤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묻고 있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 제자는 경전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대중 곁에서, 어렵고 힘든 이에게는 더 큰 손을 내밀고 안아주셨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명확해집니다." (055) 634-6200

박지원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국경을 뛰어넘은 하나된 어울림

전주 천천클럽,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개최… 13개국 250여 이주근로자 동참

한 달에 천원을 후원하는 사람들 천명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천천클럽(회장 오종근)이 완주 산업단지 현대자동차 체육관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주민들의 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5월 29일 열었다.

올해로 여섯 번째인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잔치'는 네팔,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등 13개국 250여 외국인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 현대자동차 불자회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완주 산업단지에는 현대자동차 등 180여 기업체 1만 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외국인 근로자는 5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행사에서는 우리고유의 문화인 제기차기, 단체줄넘기, 과자 따먹기, 제기차기 등의 게임과 오아시스 예술단, 국립국악원, 농악단, 비보이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국의 노래와 춤, 개인장기를 발휘하며 타국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한 전북 한사랑 봉사단(회장 이성기)은 이날 하루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이미용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천천클럽이 개최한 어울림한마당에서 밝은 모습으로 각 놀이대회를 응원하고 있다.

이날 동참한 사람들에게는 주방기구, 난방기, 밥공기 세트, 기타 생활용품 등 타국 생활에 필요한 선물이 추첨을 통해 한아름 안겨졌다.

특히 천천클럽 회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회원들과 인근주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따뜻한 나라 출신임을 감안해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수 천점의 겨울옷과 가방 신발 등을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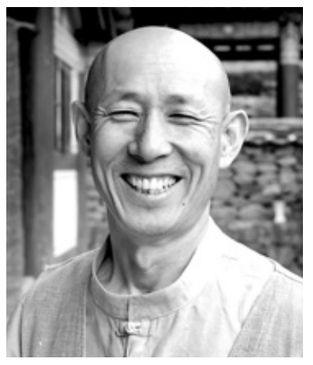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전주 천천클럽 오종근 회장은 "고향과 가족의 품을 떠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소 꺼려하는 3D직종에 종사하며 우리나라 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잠시 타국생활의 시름을 잊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은 완주 송광사, 금선암, 익산 원경사, 우리는 선우, 현대자동차 불자회, 현대자동자 노조, 샘물교회, 제내교회, 코아루 아파트 부녀회 등의 후원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역사기행으로 쉬운 불교펼쳐"

청소년 역사탐방 추진하는 지장 스님



한국불교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청소년 포교를 첫 손에 꼽는다. 90년대 이후 청소년과 청년 불자의 감소는 오늘날 한국불교의 큰 위기로 다가왔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상실한 결과를 초래했다.

광주 무등산의 역사 깊은 고찰인 증심사 주지 지장 스님은 이런 문제를 안고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증심사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대원장학회(이사장 지장)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과 함께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백두산을 탐방하는 '2011 동북아 역사기행'을 떠난다. 이번 역사기행은 중국 집안지역의 광개토대왕릉, 장군총, 5회분5호묘, 환도산성, 국내성을 거쳐 백두산 천지와 비룡폭포, 쌍제자하, 금강대협곡을 들러보고 졸본성과 호산장성 등을 답사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는 잘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외국의 견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아직 쉽지 않습니다. 특히 조손가정이나 편부, 편모 가정의 불우한 아이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대원장학회를 운영하는 지장 스님은 매년 3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지만 어느 때인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과연 돈의 소중함을 생각하는지 의문을 갖게 됐다. 그래서 스님은 아이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경험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역사 탐방은 장학사업의 새로운 형태인 셈이다.

"장학금보다는 일생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우리민족의 역사탐방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즈음 아이들은 자기민족에 대한 역사인식이 없고, 우리 민족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역사기행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민족이 오랜 기간 살았던 현장을 둘러보고, 민족의 시원이 담긴 백두산을 통해 국가관, 민족관, 애국관을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답사에 참여할 청소년들은 증심사가 위치한 동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이들 17명을 동구청과 협력해 선발했다.

"지금이라도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여러 가지 포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심담은 끼와 개성의 무대

파라미타 제15회 청소년 모악축제



전북의 대표적 청소년 봉사단체인 전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원행)는 전북 김제 금산사일원에서 '청소년 모악축제'를 5월 28일 개최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모악 청소년 축제'는 파라미타청소년들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행사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축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1000여명과 100여명의 지도교사들이 모여 백일장 부분과 사생대회부분, 가장 관심이 높았던 음악놀이 경연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죽음 앞에서도 놓지 않은 '염주'

지광 김동수 열사 추모제 개최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

故 지광 김동수 열사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다. 지광 김동수 열사 31주기 추모제가 조선대 교정 김동수 열사 추모비 앞에서 5월 27일 봉행됐다. 김 열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봉축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대불련 전남지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또한 시민군으로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 하던 중 계엄군에 의해 산화했다. 당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열사의 손에는 염주가 쥐어져 있었다.

지광 김동수 열사 기념 사업회(회장 안상권)가 주최한 이날 추모제에는 김 열사의 부친인 김영석옹과 동생 김동채씨, 최이곤 대불련 동문회 감사, 이인근 대불련 회장 등 조선대 동문들과 대불련 선후배, 광주지역 청년불자들도 참석해 김동수 열사를 추모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배낭메고 문화유산 찾아요

동연 광주지구(대표 도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호남지역의 사찰과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배낭메고 문화유산을 찾아서'를 마련한다.

고창 지역을 답사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 5월 14일 진행됐으며 화순지역 운주사, 쌍봉사, 고인돌 유적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은 6월 25일 진행된다. 7월에는 군산지역 황토현전적지, 조선세관, 구마모토 농장, 8월에는 장성지역, 9월에는 강진, 10월에는 순천지역 문화유적을 차례로 답사할 계획이다.

동연 광주지구 관계자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들이 많지 않다. 그중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더욱 없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70)8733-010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늘푸른자원봉사단 장관상 수상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 노인자원봉사단체인 '늘 푸른 자원봉사단'이 6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0회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원노인복지관 회원 30여명으로 구성된 '늘푸른봉사단'은 경로식당 배식 및 위생관리, 식권판매, 체력 단련실 및 도서관 관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단은 평균 1548시간(450회)의 왕성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불교대학 동문 바자회 열어

전북지역 대표적 신도전문 교육기관인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 금산사 주지)을 수료한 동문들이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이근재)주최로 전주시 경원동 옥성문화회관 주차장에서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열린 바자회에서는 화엄불교대학 기수별로 불교용품과 약초, 장류, 화장품 및 다양한 음식을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이근재 회장은 "2000여만원의 수익금은 금산사 복지원과 서원노인복지관, 화엄불교대학, 전북불교회관을 통해 노인복지기금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경허선사 문하 만옹대선사 문도 법제자 건당식

한국 불교계에 선풍을 일으킨 경허선사(鏡虛禪師)문하 법통을 이어받을 대덕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근세 한국 불교의 중흥조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분이 바로 성우 경허(惺牛 鏡虛)선사께서는
우리불교의 불씨를 되살려 횃불로 활활 타오르게 해주신 큰 스승 입니다.
이에 선 법맥을 이어 받으신 손상좌 만옹대선사(萬翁大禪師) 문도에 건당을 하여 법제자 되실
대덕 큰스님들께서 주저 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허선사문하 만옹대선사 문도회 회장 현불 합장

- 신청마감 : 6월 13일 오후 5시
- 자격요건 : 승납 25년 이상 또는 품계 : 대덕이상
- 신청동참금 : 30만원(건당신청서 제출)
- 법제자증명 : 가사(본인지참), 전법게, 법권, 발우
- 문 의 : 02)785-6870 / 041)943-7620
  회장 : 010-6478-1569 /사무총장 010-8900-3050
- 일 시 : 불기 2555년 6월 26일(일요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충북 청원군 쌍이리 산 7-1번지 담화정사

대한불교 표암(알평)승가회 제 3차 모임

석가세존의 자비실천을 바탕으로 위국 애민하는 마음으로
호국불교이념을견지하고 경주이씨 표암 알평공 시조를 기리기 위하여
경주이씨 문중 승려모임을 주창하는 바 뜻이 있는
경주 이씨 성을 지닌 스님께서는 본 승가회에 가입을 환영합니다.

명예회장 만옹 도일, 영공 도성
회 장 홍산 현블
사무총장 능인

- 모임일시 : 불기 2555년(2011년) 6월 22일 정오 12시
- 모임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56-20 서심정사
- 동참회비 : 3만원
- 문의전화 : 서 울 02)761-0410, 041)943-7620
  대 구 053) 325-5288
  회 장 010-6478-1569
  사무총장 010-3900-3050

* 본 승가모임에 동참하실 스님께서는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3〉
희랑 조사
(希朗祖師; 889~956)

고려 태조가 복전으로 삼았던 인물

흔히 신라 말 고려 초의 불교계는 선종의 전성기로 표현된다. 잘 알려진 구산선문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개창됐던 것이 그러한 인상을 남긴 듯하다. 그러나 이 시기는 선종이 일방 독주하던 때는 아니었다. 법상종이나 화엄종 역시 그 세력이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기에 화엄종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해인사의 희랑 조사(希朗祖師; 889~956)이다.

"신라 말기에 승통(僧統) 희랑이 이 절에 주지하여 화엄신중삼매(華嚴神衆三昧)를 얻었을 때, 고려 태조가 백제의 왕자 월광(月光)과 더불어 싸웠는데, 월광은 미숭산(美崇山)에 있으면서 식량이 넉넉하고 군병이 강하여, 태조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었다. 해인사에 들어와서 랑공(朗公)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백제를 물리칠 방법을 청하자, 랑공이 '용적대군야차왕(勇敵大軍夜叉王)'을 보내어 돕게 하였다. 월광이 금갑(金甲)을 입은 신병(神兵)이 공중에 가득함을 보고 두려워 항복했다. 그래서 태조는 희랑 스님을 공경하여 받들면서 전지(田地) 오백 결을 드리고, 옛 사우(寺宇)를 새로 중건하였다." ('가야산 해인사고적(伽倻山海印寺古籍)' 이지관 편 〈해인사지〉에서 인용. * 지관 스님은 글 중의 '백제의 왕자 월광'이라는 인명은 아마 가야국의 월광 태자를 혼동한 것이고, 후백제의 왕자는 다른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이야기는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해가는 과정에서도 고비라고 할 수 있었던 후백제와의 쟁패에서 승리의 결정적 계기를 해인사의 희랑 조사가 제공했으며, 그 후 태조가 해인사에 전지 오백 결을 올렸고, 이를 가지고 희랑 조사가 해인사를 크게 중창시켰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궁지에 몰린 태조가 일부러 해인사를 찾아와 희랑에게 백제를 물리칠 방법을 청하고, 희랑 조사는 금갑을 입은 신병인 '용적대군야차왕(勇敵大軍夜叉王)'을 보내어 물리쳤다는 대목이다. 이는 해인사 중창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화엄종이 어떻게 고려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군사적으로 궁지에 몰린 태조가 왜 하필이면 희랑 조사를 찾아갔을까? 도대체 금갑을 입은 신병인 '용적대군야차왕(勇敵大軍夜叉王)'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전설은 전설 그대로 믿어질 때 그 가치를 다하는 것이겠지만, 굳이 좁은 안목을 내세워 짐작해본다면, 아마도 해인사는 이 당시 강력한 무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혹은 강대한 무력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군사적으로 궁지에 몰린 태조가 굳이 희랑 조사를 찾아 해인사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희랑 조사가 가야산 인근 지역에 크게 신망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고려 태조는 그 희랑 조사의 신망을 얻어내어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희랑 조사가 받았던 그 신망은 단순한 신망은 아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것은 그 후 고려 태조가 전지 500결을 바쳐 크게 중창했다는 기록 때문이다. 일찍이 해인사는 처음 창건할 때 신라 왕실에서 기증한 전답만 2500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만한 재산을 가진 사찰이 불과 100여 년 만에 자체의 힘으로 중창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고려 태조가 전쟁의 불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갈 정도로 영향력은 강력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그렇다면 희랑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당시의 해인사는 사우(寺宇)의 단장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힘을 썼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필자는 그 부분을 민중과의 유대 강화라는 부분에서 찾는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에 있는 희랑 조사의 목조상. 가슴 한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다.

화엄종 중흥시킨 대표 인물
고려 태조·가야산서 큰 신망
대중의 정진 위해 모기에 보시
가슴의 큰 구멍 지금도 남아

남종선이 전래된 이후, 신라 하대의 화엄종은 여러 가지로 이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첫째로 신라하대의 화엄종은 사상의 연구에 힘을 기울이던 것과는 달리 화엄신행의 간소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가야산해인사고적'에도 나타나는 희랑의 화엄신중 신앙이 그 일례이다. 방대한 〈화엄경〉 전체가 아니라 〈화엄경〉에 등장하는 신중들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지송하는 형태의 신앙으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등장하는 〈화엄신중경〉은 그 결과에 해당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당시 희랑을 중심으로 하는 해인사의 화엄종 세력이 엘리트 중심의 교학불교에서 벗어나 민중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신앙적 방법을 모색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간단하게는 '화엄성중'을 염송하는 형태이니, 민중들로서는 훨씬 더 쉽게 화엄의 위신력에 기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 하나, 이 시기의 화엄종은 조사신앙을 내세우면서 내부적인 결속강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희랑 조사가 주지하던 당시에 해인사에 머물렀던 최치원은 화엄종단 내부의 결사문을 여러 차례 짓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의 화엄종 세력이 선종의 성행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그리고 후삼국 시대의 혼란한 사회상황에서 화엄종단 내부의 결속을 강하게 다질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혼란한 시대에 자연스럽게 민중과 유대를 강화했던 해인사의 화엄종 세력은 그 과정에서 민중의 열망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희랑 조사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혁련정이 쓴 〈균여전〉에는 "옛날 신라 말 가야산 해인사에는 두 분의 화엄사종(華嚴司宗)이 계셨다. 한 분은 관혜공인데 후백제 견훤의 복전이 되었고, 한 분은 희랑공인데 태조대왕의 복전이 되었다. 이 두 사람은 신심을 받아 향화를 올리며 서원을 맺었으나, 서원이 이미 달라졌으니 어찌 주장이 같겠는가. 문도들에게 내려가면서 점차 물과 불처럼 구분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해인사의 대표적인 두 스님에게 견훤과 고려 태조가 각기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인데, 그만큼 해인사가 이 지역세력 및 민중들과 강하게 밀착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려 광종대의 균여 스님은 이 중에서 북악파였던 희랑 조사의 법손이었는데, 균여의 사상 역시 민중 지향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 사상의 원천을 희랑 조사에게서도 볼 수 있다.

해인사에는 중창조사인 희랑 조사의 목조상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여읜 몸에 흰 바탕에 붉은 색과 녹색 점이 있는 장삼을 입고 그 위에 다시 녹색 띠가 있는 가사를 걸친 모습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가슴 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다. 전설에 따르면, 당시 해인사에 모기가 너무 많아서 스님들이 정진하기 힘들어했기 때문에 희랑 조사가 가슴에 구멍을 뚫어 모기들에게 피를 보시했다고 한다. 이에 해인사의 모든 모기가 희랑 조사에게 모여들어서 다른 스님들은 편안히 정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희랑 조사의 사상과 신앙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생각된다.

당시 해인사에 머물면서 희랑 조사와 깊이 교유했던 최치원은, 스님의 뛰어난 〈화엄경〉 강의에 찬사를 보내는 한편, 조사를 교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후삼국의 난세를 읽고 미래를 예기했다고 전해지는 최치원 같은 석학이 단순히 강의의 뛰어남만으로 찬사를 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찬사의 이면에는 신앙의 실질을 추구하는 자비의 실천행이 당연히 전제됐을 것이다.

고려 태조는 후백제를 복속시킨 직후에 오늘날의 논산시 연산면에 화엄종 사찰인 개태사를 창건하여 후백제를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역시 단순히 화엄종의 공을 치하한다는 의미보다는 복속한 후백제의 백성을 포용하는데 당시의 화엄종만한 것이 없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희랑 스님이 추구했던 신행의 한 편린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20



정토종의 개조 호넨 상인
(法然上人㊛)



호넨 상인 초상, 교토부 나가오카쿄시(京都府 長岡京市) 소재 광명사(光明寺)

호넨(法然; 1133~1212)은 헤이안 말기 격변의 시대에 태어났다. 그의 40대에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가 관동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혀 카마쿠라(鎌倉)에 무사정권의 근거지로 막부를 세웠다.

왕권은 실추되고, 일본 최초로 무사들이 실권을 갖게 된 이른바 막부정치의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정쟁으로 밤낮이 없던 양 시대를 살다간 호넨은 민중의 고난과 도탄의 장면을 여실히 목격하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가 출가하게 된 배경도 또한 이러한 시대의 격동과 무관하지 않다. 9살 때, 그의 아버지 우르마노 토키쿠니(漆間時國)가 장원을 감독하는 관리의 습격을 받아 상처를 입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의 유언은 그의 삶을 결정지었다.

"너는 적에게 보복하지 말라. 이것은 나의 전생의 숙업이다. 나의 상처와 고통은 너무나 크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나의 상처의 고통과 아픔에 의해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아야 한다. 네가 적을 증오하고 죽인다면 적의 아들 또한 너에게 칼로써 고통을 줄 것이다. 너의 아들 또한 적의 아들을 증오하고 칼을 들이댈 것이다. 세세생생 서로 상처주고 죽이는 일이 한이 없을 것이다. 너는 적을 증오하는 마음을 버리고 출가하여 높은 덕을 쌓아 적도 포용하면서 모두를 구하는 길을 구하라"

아버지의 유언으로 출가
중생구제 위해 정토종 개창

이를 계기로 호넨은 천태종의 승려가 되어 히에산에서 수학하고 수행하게 됐다. 여기에서 그는 지혜제일의 호넨방(法然房)으로 불려질 정도로 천태삼대부의 문리에 통달했다.

이후 은둔의 뜻이 있어 히에산 내 쿠로다니(黑谷)별소로 옮겨 융통염불의 조사였던 료닌(良忍)의 제자인 에쿠(叡空)로부터 사사했다.

당시 이곳에는 정토교의 가르침이 성행했으며, 료닌계는 천태의 원돈보살계를 전수하고 있었으므로 호넨은 이 양자를 겸수해 쿠로다니 상인(黑谷上人)으로도 불려졌다. 이후에도 그의 학문에 대한 열의는 대단해서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법상종은 물론 삼론종, 화엄종 등의 교학을 배웠다.

이렇듯 호넨은 천태종을 비롯한 제종을 두루 섭렵했는데 그 중에서도 평생의 스승으로 삼았던 선도(善導)의 저서를 읽고 당시 중국의 정토교를 본격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세(塵世)로부터의 출리(出離)의 길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겐신(源信)의 〈왕생요집〉을 읽고, 비로소 말세에는 왕생극락을 향한 정토사상이야말로 중생구제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다른 여타의 행을 버리고 오로지 염불만을 주장하는 전수염불(專修念佛)에 귀의하기에 이른다.

드디어 그는 1175년 정토종을 개창하고, 포교를 위해 교토 히가시아먀(東山)의 기슭인 오오타니(大谷)로 거처를 옮겼다. 이때부터 당시 정계의 인물들에게 정토법문을 설하고, 교토 북동부 출가자들의 은둔지인 오하라(大原)나 나라(奈良)의 대찰인 동대사에서는 정토삼부경인 〈불설무량수경〉 〈불설관무량수경〉 〈불설아미타경〉을 강설했다. 하지만 그의 정토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동시에 기존 교단의 반발도 사게 됐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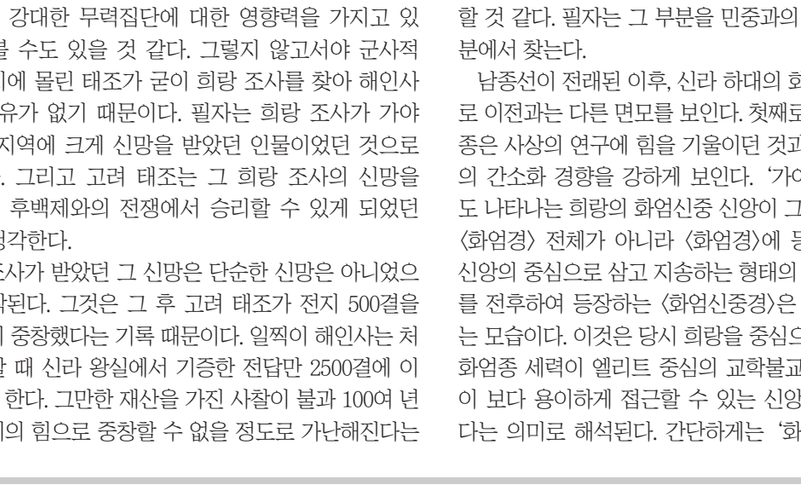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드기,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파사현정의 가르침 영원하리라”

문수 스님 추모 다례제 및 부도탑 제막식… 참가자들 유지 계승 다짐







①, ② 문수 스님 1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 다례제에는 각계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③문수 스님의 추모비에는 생애와 소신공양 당시 남긴 유언 등이 기록됐다.

신라불교 공헌한 이차돈 성자 같이
문수종사 순교정신 영원히 전하는 뜻
황룡이 휘몰아칠줄 그 누가 알겠나.

진관 스님이 4대강 사업 철회와 서민 정치 실현을 촉구하며 소신공양 했던 문수 스님을 추모하며 비석에 남긴 시다. 진관 스님은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을 이차돈 순교에 비유했다.

문수 스님의 추모 다례 및 부도탑 제막식이 군위 지보사(주지 원범)에서 5월 31일 열렸다. 5월 31일은 스님이 소신공양한지 1주기 되는 날이다.

진관 스님은 비문에서 “조계종 승려가 나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소신공양으로 통렬히 비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는 문수종사의 파사현정의 정신을 후학들에게 전승하고자 한다. 문수종사가 살신 정신의 대승보살 정신으로 소신공양했기에 그의 정신을 기리 후대에 전하기 위해 도반들이 비를 세운다”라고 적었다.

다례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원정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문수스님선양사업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정산 · 혜경 스님, 지보사 주지 원범 스님과 신도들,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부도탑은 중생을 늘 걱정하던 스님의 마음을 담아 범종 형태로 제작됐다. 부도탑 옆에 마련된 비석에는 문수 스님의 생애와 소신공양 당시 남긴 유언 등이 기록됐다. 비문은 진관 스님이 문안을 작성했다.

지보사가 위치한 군위는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남긴 후 열반에 드신 곳이다. 스님의 후학들은 존경의 뜻을 담아 인각사에 보각국사비를 세웠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11년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쳐 준 문수 스님의 부도탑이 마련된 것이다.

추모 다례에서는 각 계의 추모사와 문수 스님을 그리워하는 도반들의 편지 낭독이 이어졌다.

문수스님선양사업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혜경 스님은 추모사에서 “문수 스님은 생명의 중요성과 더불어 사는 삶, 함께 행복한 세상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1년이 지난 지금 사회 곳곳에 스님의 뜻이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생 향한 마음 컸던 문수 스님
소신공양 1주년 추모행사 맞아
범종 형태 부도탑·탑비 세워져

그러나 혜경 스님은 아직 문수 스님의 뜻을 실천하기에는 많은 과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혜경 스님은 “중생들은 여전히 욕심으로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것들을 훼손하고 있다. 문수 스님은 부도탑을 원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부도탑에 우리의 뜻을 담았으니 부디 스님의 원력이 생명의 원천으로 넘쳐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 대표로 박희택 불교아카데미원장이 추모사를 전했다.

박 원장은 “문수 스님의 진신은 마침내 이 탑으로 우리 앞에 현전했다. 어떠한 겁화에도 불타지 않고 스님을 정념하는 대중들 곁에 언제까지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스님의 소신공양을 계기로 한국 불교가 새로운 사회화에 나서야 한다. 생명 죽임을 생명 살림으로 전환하는 불사를 새롭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모사 이후에는 도반을 대표해 총무원 재무국장 각운 스님이 추모의 뜻을 담은 편지를 낭독했다.

각운 스님은 “자네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난 아직 자네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네. 아직도 자네를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를 않네. 남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자네의 뜻을 잊지 않겠네. 그 뜻을 발전시키는 불교가 될 것이네”라고 말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추모식과 부도탑 제막식 후에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문수 스님 영전에 꽃을 헌화하며 스님의 유지를 계승 ·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제막식에 참가한 이현숙(73)씨는 “해인사 신도였을 때 스님을 처음 뵈었다. 내 가슴 속에 스님은 나라를 구한 스승으로 남아 있다. 불자로서 스님의 고통을 나누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한참 살아갈 나이에…”

해인사 시절 함께했던 이현숙 보살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것은 부처님 정신 그대로입니다. 한참 살아야 할 나이에 나라를 위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숙(73) 보살은 문수 스님의 추모 다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 했다. 부도탑 제막식이 끝나고 스님에게 꽃을 헌화하면서 이 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이 씨는 문수 스님의 다비식 때도 슬픔을 억누르지 못 해 불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이 보살은 문수 스님이 해인사에 있던 시절 스님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 씨는 당시 스님의 총기 넘치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한다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불보살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해인사에서 자주 뵈면서 말씀도 많이 나눴는데 이제 안 계시다니 너무 슬프네요. 그 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다가 말았던 일이 있는데 그 말씀 무엇이었는지 이젠 여쭤 볼 수도 없네요.”

이현숙 보살은 문수 스님이 1994년 종단 사태 때 많이 답답해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스님은 늘 자신보다는 전체를 먼저 생각하던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문수 스님의 고통과 고민을 어머니처럼 보듬어주지 못한 점이 죄송스럽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에게 스님은 나라를 구한 큰 스승으로 남아있습니다. 1년 동안 스님의 뜻이 우리 사회에 많이 확산됐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뜻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박기범 기자

문수 스님은 누구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 빛난 수좌

문수 스님은 1986년 월정사에서 시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1988년 해인사승가대학을 수학한 뒤, 1994년에 중앙승가대에 입학했다. 승가대에서 스님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학내 문제 개혁과 사회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문수 스님은 1994년 종단 사태 때 총무원이 경찰에 포위되자 도반들의 안위가 걱정돼 포위망을 뚫고 총무원에 진입하기도 했다.

졸업 후에는 20여년 간 제방 선원을 운수하며 용맹정진하는 수좌로서의 삶에 충실했다. 스님은 자신의 수행에 철저하면서도 늘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적 요청에 누구보다 앞선 수행자였다. 2006년 이후 지보사에 있던 시절에는 3년 동안 세심당에서 하루 1종식만을 하며 두문불출 수행에 전념했다.

그러던 중 문수 스님은 2010년 5월 31일 군위군 사직리 낙동강 제방에서 4대강 공사 중단과 부정부패 척결, 서민정치 실현을 촉구하는 유서를 남긴 채 소신공양을 결행했다. 생전의 스님의 세간은 통장 하나 없이 낡은 서랍장과 신문이 전부일 정도로 청빈한 삶의 표본이었다.

박기범 기자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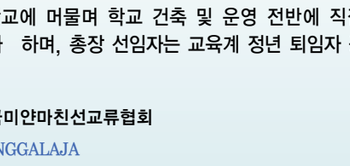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혜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011-229-6061

LEADER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 빙 안 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 사 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문수 스님, 그 후 1년

생명평화대화마당 추모 기간 중 분야별 명사 초청 강연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을 통해 4대강 사업 반대를 촉구한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4대강 사업은 추진 중이며 스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선양사업 준비위원회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준)은 5월 30일~ 6월 3일 조계사 마당 '가피'에서 '생명평화대화마당'을 열고 문수 스님의 뜻을 생활 속에서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박기범 기자



할 일부터 알아야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

"문수 스님은 왜 소신공양을 했을까?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는 모든 생명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하고 위안을 준 것이다.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은 5월 30일 열린 첫째 마당에서 불자들에게 실천과 반성을 강조했다.

법안 스님은 "강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간다. 불교는 이런 작은 생명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분별해서 바라보지 않는다. 문수 스님은 이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보고 느끼는 현장 속에서 공업의 흐름을 누군가는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소신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통이 사라지고, 가진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던 정부를 향한 생명평화의 외침이었다는 뜻이다.

문수 스님은 마지막 유서에서 이명박 정권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재벌과 부자가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안 스님은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스님은 "사회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고,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가계 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낳으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제대로 된 여야영수회담도 없고, 시민사회와의 건강한 대화도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법안 스님은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수행자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다른 생명의 고통을 멈추게 한 중요한 사건이다. 추모기간 뿐 아니라 불자들 모두가 그 뜻을 실천하고 나부터 변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또한 불교시민사회가 더욱 발전해서 종단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4대강 반대해야

생태활동가 최병성 목사

"신체의 일부만 다쳐도 거동이 불편하다. 생명을 구하고자 소신공양을 한 문수 스님의 희생은 대단한 일이다. 문수 스님의 소신 공양을 떠올리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

최병성 목사는 'MB의 4대강 사업과 그 속에 묻힌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5월 31일 둘째 마당을 열었다.

최 목사는 "4대강은 앞으로 수만년을 우리 후손들과 함께 흘러야 한다. 수 만년 강의 역사에서 보면 4대강 사업은 점에 불과하다. 우리는 4대강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성 목사는 4대강 사업이 완공 단계에 있어도 지금이라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이며 생명과 평화가 공존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4대강 사업은 완공 후 닥칠 수많은 재앙과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목사는 강연 내내 외국의 자연형 하천 사업과 운하 건설로 인한 독일의 문제점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표본이라고 내세우는 한강의 오염 실태를 비교했다.

독일 뮌헨은 150년 전 운하를 건설했다. 이후 홍수 발생과 생태계 파괴가 거듭되자 20년에 걸쳐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했다. 스위스는 직선형 하천으로 개발했던 투어강을 제방을 허물고 자연하천으로 되돌렸다.

최 목사는 4대강 사업 개발로 인한 국내 환경 파괴 사례와 수십억 원의 예상 적자, 저지대 침수의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4대강에서는 이미 97% 이상 홍수 대비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우는 '홍수 조절' 기능은 거짓이라고도 지적했다. 오히려 무수한 보들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 높이가 큰 차이를 보이는 사리현상이 발생할 경우 저지대의 침수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완성되면 철새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의 94%가 얕은 물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수면성 어류'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강이 깊어지면 철새들이 살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최병성 목사는 "강은 흐르게 해야 한다. 우리의 강은 다시 흐를 것이고, 생명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문수 스님 그 생명들 때문에 소신공양 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사회투명성 높여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우리사회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출발선의 평등을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투명성이다. 투명성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 가치이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6월 1일 열린 셋째 마당에서 진정한 공정사회를 위한 투명성 회복을 강조했다.

반값 등록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누구에게 지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처럼 청소부와 대학총장이 임금격차가 크지 않고,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한국 사회 최고의 문제는 합리적 불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결과에 있기 때문에 출발선의 공정함만 강조해서는 해법을 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합리적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렵다. 선진국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보편적이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기본적인 가치조차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과 갈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호 소장은 "출발선의 평등보다 합리적 불평등이 더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투명'이다"라고 밝혔다.



공공의 선 추구해야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교육도, 경제도 투기가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다. 문수 스님의 뜻을 따르면 이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고, 생명과 경제도 살릴 수 있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 1주기를 맞아 6월 2일 열린 '생명평화대화마당' 네 번째 시간에는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가 초청됐다.

정태인 교수는 "친구조차 경쟁자로 만들어버리고 불신하게 만들면서 사교육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사교육 과열의 문제를 지적했다. 사교육 지출이 커지면서 다른 부분의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불황이 찾아온다. 중소기업에 대한 건전한 투자마저 실종된다. 개인의 안위와 행복만 추구하며 사교육 경쟁과 투기에 혈안이 될수록 부는 기존 부유층에게 점점 더 집중된다는 것이다.

정태인 교수는 혼자만 잘 살려는 생각은 국가 전체를 병들게 한다며 복지 국가인 스웨덴조차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외환위기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나 하나만이라도 사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핀란드 교육에는 등수가 없다. 등수를 없애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생명평화 실천해야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을 한 뜻은 중생의 안락과 평화를 위한 것이다. 스님의 뜻을 유서에 가둬두지 말고 한반도의 생명평화 공동체 사회라는 창조적 가치로 해석해보자. 그것이 문수 스님의 뜻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은 '한반도 생명평화의 길'을 주제로 '생명평화 대화마당' 다섯째 마당의 강연을 시작했다. 스님은 이 날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사회'라는 화두를 제시하면서 생명평화 공동체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화합을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사회는 문수 스님의 뜻을 살리면서 우리 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치다.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도 모두 이 가치의 실현을 위해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생명평화 공동체의 실현이 그 어떤 가치보다 상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립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님은 또 이 가치가 우리 사회의 상처 치유는 물론 냉전적 대립으로 인류에게 진빚을 갚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종단에서 결사와 불교중흥 토론회를 한다. 그러나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사회를 위해 불교가 생명평화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이를 분명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교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또 불교가 내부의 문제에만 전전긍긍하지 말고, 한국 사회의 문제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또 문수 스님에게서 중생의 생명평화를 위한 헌신적 실천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자들 모두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스님은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불교가 노력하면 불교는 저절로 발전되고 중흥될 것이다. 큰마음을 내면 그것이 불씨가 되어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별기고〉 군위 지보사 주지 원범 스님

문수 존자를 그리워하며

종단의 자존과 종정스님의 유사를 받들고자 선방에 방부를 들여놓고 개혁에 동참한 스님의 공심에 함께 참여해 처절하게 눈물 흘리며 같이 보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1998년 종단 사태 때 공권력이 밀고 들어온 상황에서도 스님은 도반의 안위가 걱정돼 총무원을 둘러싼 경찰 6000명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할복을 하겠다는 스님을 청사에 있던 제가 뛰어 내려가 말렸으나 훗날 스님의 소신 공양의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 13년 동안 한결같이 괴로움, 허전함, 미안함이 가득해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스님의 짧고 간결한 삶의 여정에 떨어지는 꽃잎처럼 급히 세상을 등지게 했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스님의 큰 마음을 배울 수 있고 오고감에 걸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작설차를 유난히 좋아했지요. 내년에는 햇차를 구해서 제일 먼저 한잔드리고 담소 할 수 있겠는지요? 생멸이 없는 곳에 계시니 보고 싶을 때 보고, 차 마시고 싶을 때 같이 차 마시고 좋고 나쁨이 없는 편한 언덕에 계시니 얼마나 좋으신가요?

천년 집(부도탑)이 무슨 소용 인가요? 그래도 스님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지 않게 조그맣게 도반들이 뜻을 모아 만들었으니 화가 나셔도 참고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형식과 거추장스러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스님께선 사치로 느끼시겠지만 새싹이 나고 죽고 반복되는 윤회의 수레 바퀴 속에 살아있는 스님의 소신과 행동들이 가난한 민초들에겐 희망의 씨앗, 수확의 열매가 되리라 확신하니 평소 여여하게 지내셨듯이 미소 지으세요. 성조 스님, 각운 스님, 관행 스님, 스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던 도반, 친구, 동생, 형님하며 지내던 모든 형제들 내년에 모여서 다시 차 한잔 해요.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후卯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인기 판매 중!



예경 ·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 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천우종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염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혼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 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천우종

산 아래 굽어보며 행복한 세상오길 기원해 주네



㊺ 신라의 바람소리 들리는 문경 봉암사(하)

"잉태할 당시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기이한 행적과 숨겨진 이야기는 귀신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 같아 붓으로는 기록할 수 없겠으나, 이제 사람들이 귀를 치켜세우도록 한 여섯 가지의 이상한 감응과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했던 여섯 가지의 옳은 조행(操行)을 간추리고 나누어 나타낸다."

고운 최치원은 지증 대사의 행적을 비석에 남기기 위해 대사가 생시에 보인 12가지의 일을 거론하고



원오탑비를 떠 받치고 있는 귀부

있습니다. 그 12가지는 6가지의 이적(異蹟)과 6가지의 사리분별에 맞아 본받을만한 행적으로 나누었으니 지증 대사의 생애가 인천(人天)을 두루 감응시켰음을 확인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6가지 이적의 첫 번째는 태몽입니다. 어머니의 꿈에 한 거인(巨人)이 나타나서 "나는 과거의 비파시불(과거7불의 제1불)의 말세에 사문이 되었는데 화를 낸 까닭에 오랫동안 용보(龍報)에 떨어졌다가 이제 과보가 다했으니 마땅히 법손이 되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태기가 있었고 400일이 지나서야 대사가 태어났는데 그 날이 사월초파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이적은 대사가 갓난아기 때부터 비린 것이라면 어머니의 젖조차 먹지 않고 깨끗한 음식을 섭취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피로 어머니의 병과 자신의 병을 고치는 인연으로 출가하게 된 것입니다.

17세에 구족계를 받고 강단에 나아가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고, 취해 자빠진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법력을 보인 것이 네 번째 이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꿈에 보현보살로부터 "고행을 실행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행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부터 거친 옷을 입고 몸소 실천하며 자신을 단속한 것입니다. 후학들을 위해 가르침의 자리를 펴는 시점을 살펴 적절한 때에 말문을 열어 선과 교를 초월한 법문으로 사람들을 훈계한 것이 이적의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최치원은 이어 조행의 여섯 가지 사례들도 매우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물러남의 도리를 알아 행함으로써 모범이 된 것, 남의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는 행동, 남을 위해 희사하는 것, 사람들이 착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돕는 것, 세상에 나아가 교화하고 돌아와 도를 닦는 것, 취사선택의 지혜를 일깨운 행동 등입니다. 9세기 신라의 왕과 왕족, 신하들에 이르기까지 실명이 거론되면서 기록된 이 사례들은 적조탑비의 사료적 가치를 한껏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비의 음기에는 최치원 자신이 헌강왕의 명을 받아 비문을 짓게 된 경위가 설명돼 있습니다. 6가지의 이적과 6가지의 조행으로 나누어 지증 대사의 생애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힌 최치원은 "용렬한 문장을 끊지 않고 함께하니 찌꺼기가 앞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며 겸손을 표합니다.

빗줄기가 좀처럼 가늘어질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해 질 시간은 아닌데 봉암사 계곡은 으슥해 나그네의 마음을 바쁘게 합니다. 이제 일주문 밖으로 나가서 정진대사원오탑(靜眞大師圓悟塔, 보물 제171호)과 탑비(보물 제172호)를 친견할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정진 대사 긍양(兢讓, 878~956) 스님은 봉암사를 창건한 지증 대사의 손자뻘이며 봉암사의 중창주입니다. 그의 부도는 일주문을 나가 계곡 왼쪽 평지에 서 있는 탑비 뒤 봉우리로 300여 미터 올라간 곳에서 친견할 수 있습니다. 희양산의 한 봉우리를 배경으로 산중턱에 당당히 서 있는 원오탑은 이름 그대로 그칠 것도 가릴 것도 없이 원융무애한 경치 속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굵은 빗방울에 우산도 무색해 비옷을 입고 찾아간 나그네의 꼴은 초라할지라도 천년을 한 자리에서 해와 달, 바람과 구름, 천둥과 번개, 사람과 짐승을 둘 아니게 보아 온 부도 앞에서는 귀하고 천한 모양새도 무상 그 자체임을 느끼게 됩니다. 정진 대사가 입적한 것은 956년이고 원오탑비는 965년에 세워 졌으니 이 부도는 그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창건주인 지증 대사의 부도와 탑비가 경내에 있는 점과 중창주인 정진 대사의 부도와 탑비가 산 능선과 계곡가 평지에 있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 다소 생뚱맞은 의문을 품어 봅니다. 창건주의 부도는 후학들의 생활공간에 있어서 늘 고결한 지침이 되고 중창주의 부도는 능선에서 마을을 굽어보며 보다 행복한 사람들의 세상을 염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날 특별 수도원으로서의 위상은 이 두 선지식의 깊고 그윽한 법향에서 비롯됐음이 새삼 감격스럽습니다. 말없이 따라와 옆을 지키고 선 아내에게 한 마디 던집니다.

"내가 출가해 스님이 됐다면, 그것도 선승이 됐다면 평생 봉암사에서 두문불출하고 정진했을지도 모르겠는 걸?"



봉암사 정진대사원오탑은 원융무애한 경치 속에 우뚝 솟아 있다.

지증대사 탑비, 12가지 특이한 사례 통해 생애 자세히 소개
경내의 지증 대사 부도·탑비와 달리 원오탑은 능선에 위치

본전도 못 건진 답이 돌아옵니다.

"출가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 좋은 도량에게. 얼른 내려갑시다."

5월의 녹음은 비에 젖어 푸름이 더한데 천 년 전의 스승은 하나의 부도로 선 채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 것이 본래의 가르침이기에 빗소리도 천둥입니다.

높이 5미터의 부도는 신라 하대 부도의 전형인 팔각원당형을 계승하고 할아버지뻘인 지증 대사 부도를 따른 느낌이 강하지만 약간은 부족한 맛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몸돌에 문비는 있지만 천왕상이 생략됐고 하대석과 중대 상대석으로 이어지는 결구 구조에서도 비례가 조금은 불안정해 보이고 두꺼운 옥개석은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이런 조형을 한 옛 사람들의 안목은 인간을 초월한 경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빗줄기 속에서 하염없이 바라보는 원오탑은 앞으로도 몇 천 년을 그 자리에 그렇게 서서 무언의 설법을 할 것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들이 그 설법으로 보다 밝은 눈을 갖길 기원해 봅니다.

원오탑비는 비각 안에 모셔져 있는데, 문신 이몽유가 찬하고 장단열이 비문과 전액 글씨를 썼습니다. 비문은 최치원의 문장형식에 영향을 받은 듯하지만, 내용적 구성에 있어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일 뿐입니다. 비문의 앞부분에는 달마 대사에서 비롯된 선종이 중국에서 해동으로 번져 온 이후 면면히 전승 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정진 대사의 법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마 이래로 혜능까지 이어진 법은 혜능에서 남악에게로 이어졌고 남악은 마조도일에게, 도일은 신감에게, 신감은 해동 쌍계사의 진감에게, 진감은 지증에게, 지증은 백암양부에게, 양부는 정진긍양에게로 법을 전했음을 밝힌 것입니다.

지증 대사는 봉암사터를 시주 받고 "스님들이 살지 않으면 도둑들의 소굴이 될 곳"이라며 절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절이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 때였으니, 첩첩한 산중이라고 하여 전란과 도둑떼의 발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문은 절이 허물어지고 피폐한 뒤 이곳을 찾은 정진 대사가 호랑이의 인도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숙세의 인연에 따른 행보였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비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뚝 솟은 산은 마치 거북이 비석을 지고 있는 듯 선덕(禪德)의 비명과 같았고 험준하고 웅장한 산봉우리는 거대한 불상(佛像)인데, 신령스러운 광명은 항상 빛나고 있었다. 이미 율수(聿修, 선조의 뜻을 계승해 닦음)할 뜻을 굳게 가졌으니 어찌 이곳에 절을 중창할 뜻을 사양할 수 있었겠는가? 기원정사를 세울 때 가섭 존자가 직접 진흙을 밟던 일을 추모하고, 목련 존자가 서다림(逝多林, 기원정사가 있던 숲)의 도량을 청소하던 일을 본받아 선실을 구축하고 학도를 지도하되, 혹한과 혹서에도 쉬지 않았으며 법을 듣는 대중 또한 대[竹]와 갈대처럼 문전에 열(列)을 이루었다."

오늘의 봉암사는 바로 부처님을 가까이서 모시던 가섭 존자와 목련 존자의 정성을 본받아 알찬 도량으로 중창됐던 것입니다. 천 년 전의 선지식들이 부처님과 당대의 제자들이 몸소 실천하며 공부한 그 아름다운 광경을 흠모한 것처럼 오늘의 불자들도 직접 진흙을 바르고 청소를 하는 정성이 있어야 도량이 청정해지고 세상이 맑아질 것입니다.

부도밭에서는 수많은 스승을 만납니다. 어디 부도밭 뿐이겠습니까? 봉암사를 적시는 빗줄기보다 많은 선지식들이 봉암사 계곡과 산자락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때 초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초목이 될 것입니다. 사월 초파일에 찾아 간 봉암사는 절이 아니라 부처님 품이었습니다. 원오탑비명의 마지막 대목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리탑은 산봉우리처럼 높이 솟았네!
지금 세운 이 비문 영원히 남아서
초목과 함께 길이 봉암사를
비추소서!

(비문 해석은 〈역대고승비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등을 참조함)



글=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30년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총집합
염주, 단주, 금강저, 반지, 목걸이, 핸드폰줄, 자수정, 호안석, 백옥, 청옥
1번 7~7.4mm 86,000
2번 10mm 109,000
3번 호안석 8mm 39,600
4번 청옥 10mm 54,000
5번 반야반지 34,000
6번 20,500
7번 39,000
8번 30,000
9번 32,000
10번 20,500
11번 20,500
12번 61,000
13번 20,500
14번 48,000
15번 62,000
주얼드림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www.jeweldream.co.kr • 책자(카다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NAVER 주얼드림 검색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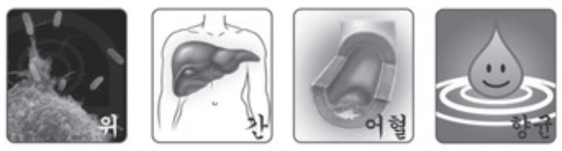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과 유황오리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그의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상태를 말합니다.

1)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복부비만의 가장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紅崩(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지적체) : 병덩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 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서울국제발명전시회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우수발명 기업선정 (2011년 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D 제조업체등록, 공정자격등록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낀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때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금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은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위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을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드렸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들어보신것을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주는 맘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끼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주셨은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에 완화되고 잠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에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되어 정말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의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진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여 간편한 포장의 참옻진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즉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만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40-70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6〉

그러고도 네가 부처이냐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는 어느 분으로부터 법을 이으셨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종심(從諗)이니라."

問 和尙承嗣什麽人
師云 從諗

종심(從諗)은 조주 스님의 법명이다. 조주는 사람들이 불러주던 호이다. 공식적인 칭호는 조주 종심(趙州從諗) 선사이다. 조주 스님은 남전 스님으로부터 '평상심이 도'라는 말에 깊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리고 남전 스님 옆에서 57세까지 지냈다. 그래서 누구든지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의 법을 이었다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조주 스님은 자신의 스승을 남전 스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법명을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스승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스승이 있다고 해도 자신이 본래 부처가 아니었다면 절대 깨닫지 못한다. 이 법은 배워서 전달 받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스스로 깨어난다. 따라서 스스로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각하는 순간 만법이 갖추어진다. 스승은 법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정말 깨달았는가 그것을 점검해줄 뿐이다.

학승이 물었다.
"외부인이 만약 '조주는 어떤 설법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소금은 귀하고 쌀은 천하다."

問 外方忽有人問 趙州說什麽法 如何祇對
師云 鹽貴米賤

조주라는 지역은 바다에서 먼 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옛날 중국의 어떤 지역은 소금값이 쌀값보다 훨씬 비쌌다. 조주라는 곳도 역시 소금값이 더 비쌌던 모양이다.

선(禪)은 있는 것 그대로 말한다. 인위적이거나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기 때문이다. 물이 차면 차다고 말한다. 더우면 덥다고 말한다. 소금이 귀하면 귀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말한다. 물이 차서 나쁘다, 더워서 화난다, 소금이 비싸서 미치겠다, 꽃은 피는데 인생은 지고 있으니 슬프다 등 2단계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

조주 스님은 항상 평범한 말 속에서 뜻을 전했다. 조주 선사는 노선사가 될수록 겉치레가 없고 진솔하게 말했다. 공연히 비유를 어렵게 하고 비비꽈서 말해 사람을 당혹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야말로 선(禪)의 진수만 보여준 것이다. 〈조주록〉이 후대로 갈수록 납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네가 부처인가?"

問 如何是佛
師云 你是佛麽

반문을 통한 가르침이다. 학인이 무엇이 부처냐고 묻는데 대해 부처에 대한 너절한 설명은 집어치우고 "너 자신이 부처이면서 그런 것이나 묻고 있으니 그러고도 네가 부처이냐?" 하고 반문을 통해 스스로 누구인지 깨닫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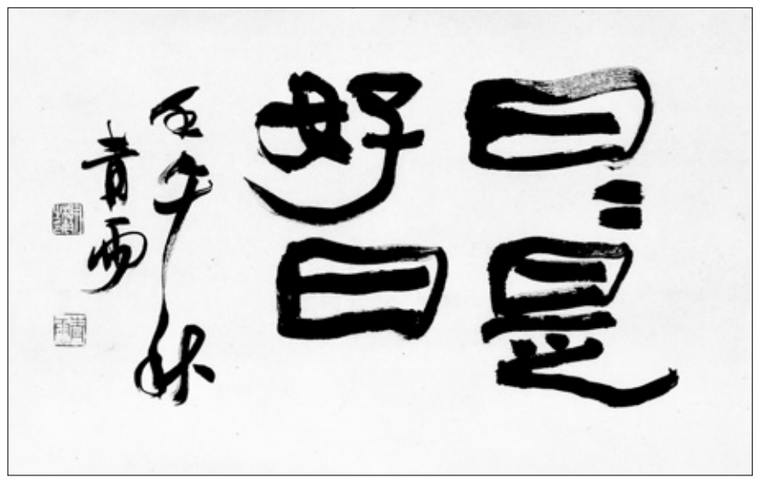
선(禪)의 정수에 대해 알아보려면 〈법화경〉의 '탕자의 귀환'을 읽어볼 것도 없이 〈육조단경〉과 〈임제록〉을 잘 읽어보면 된다. 육조 스님과 임제 스님은 선불교를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들 선서의 핵심은 '마음이 부처'라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있다. 부처는 이미 되어있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부처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육조 스님이 어찌 하룻밤 설법을 듣고 깨달을 것이며, 임제 스님이 주장자 3번 맞음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중생은 잠재적 부처'라는 식의 헛소리를 하고 있다면 그는 육조가문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있다. 만약 "너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자기 속에서 '마음이 부처'라는 대답이 즉시 일어난다면 그대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다. 다시 묻겠다. "너는 누구인가?"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⑭ 日日是好日(일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



日日是好日(일일시호일)

운문문언(雲門文偃; 864~949) 선사가 어느 날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15일 이전의 일은 그대들에게 묻지 않겠으나 15일 이후의 일은 한 구절씩 가져와서 일러보라."

대중이 모두 말이 없자 스스로 대중을 대신해 말씀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是: 이 시,
옳을 시
好: 좋을 호

청임호일
우오일일
추 시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선어록 해제 46 한국선과 선어록 17 수선결사문(修禪結社文)

수선(修禪)의 방향제시

육바라밀·보살도 실천 강조한 생사일대사를 해결하는 지침서

백파긍선(白坡亘璇; 1767~1852)은 임제의 삼구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진행시켜 경전의 뜻과 이치를 따지는 것은 의리선이라 하고 이치와 의리의 격을 벗어난 것을 격외선이라 했다. 그리고 격외선을 여래선 · 조사선으로 분류해 전체적으로 의리선 · 여래선 · 조사선의 삼종선으로 분류했다.

〈수선결사문〉은 그와 같은 선리에 대한 참구의 실제를 실천하기 위해 결성한 것이다. 저술 장소는 1882년(56세) 청도 운문사였다. 그 이유는 제19장의 "깊은 산에 들어가 〈수선결사문〉을 엮어서 그것으로 자신도 돈오를 추구했고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대목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동기는 자신과 더불어 수행하는 자들에게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론을 강습하는 것으로는 백파 자신이 마음을 깨칠 수가 없었다. 둘째 사교입선(捨教入禪)으로도 또한 번뇌를 완전하게 그치지 못했다. 셋째 진정한 선지식을 참문하고자 편참했지만 안목이 부족해 끝내 참문하지 못했다. 넷째 이로써 깊은 산에 들어가 〈수선결사문〉을 엮어서 그것으로 자신도 돈오를 추구했고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다섯째 동지와 더불어 수행해 깨침의 정인(正因)이 되기를 널리 권장했다.

이렇게 하여 수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직접 수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엮었다.

〈수선결사문〉은 전체적으로 서문, 본문, 부록의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수선결사문서'에는 풍고거사(楓皐居士) 술(述), 백파사문(白坡沙門) 과석(科釋)이라 기록돼 있다. 때문에 〈수선결사문과석〉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돼 있다.

이 서문은 백파의 제자인 승화상인(勝和上人)이 백파의 법어를 모아서 풍고 거사에게 증명을 부탁했다.

풍고거사는 법어를 열람하고 직접 백파긍선을 만나 문답을 한 연후에 서문을 붙였다. 그런데 그 서문에다 백파가 다시 과석을 붙였다. 또한 부록으로 법어 뒤에다 규승(規繩)과 관련된 내용을 붙여서 1822년에 〈수선결사문〉이라는 제목으로 편찬해 유통시킨 것에 38년 뒤 1860년에 혜소(慧昭)의 발문을 추가해 천마산본으로 개판했다. 때문에 서문은 풍고 거사의 서술에다 백파가 그와 관련된 내용을 풀이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서문을 쓴 풍고거사는 조선 정조 및 순조 때의 유학자이면서 최고 권력자였던 김조순(金祖淳)으로 밝혀져 있다. 이와 관련해 여기에서 본 〈수선결사문〉의 간행에 시주자로서 하옥거사 김좌근은 김조순의 아들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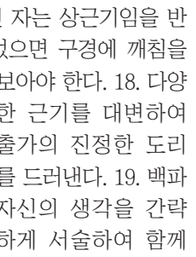
본문은 총 19장으로 구성돼 있다.

1. 진정한 안목을 갖추는 것이 참학의 요체이다. 2. 정변(正辨)과 정안(正眼)으로 정신(正信)을 발생시킨다. 3. 모든 방편 가운데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4. 간략하게 공안을 인용해 모범을 보인다. 5. 먼저 적적(寂寂)으로 반연심을 다스린다. 6. 바로 성성(惺惺)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구한다. 7. 먼저 정좌(靜坐)를 하고 그것을 점차 일상의 모든 행위까지 적용한다. 8. 염불을 잘 분별해 궁극적으로 수심(修心)할 것을 권장한다. 9. 권 · 실을 대변해 간절하게 수심을 권장한다. 10. 세간의 무상을 꾸짖어 간절하게 명리를 책망한다. 11. 재리(財利) 및 법리(法利)를 성취토록 하고 그 공덕을 보여준다. 12. 선정의 힘이 없이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13. 납자에게 진정한 행리(行履)를 제대로 보여준다. 14. 오직 인간세상만이 발심하고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5. 전세에 불신했던 원인에 대해 거듭 논한다. 16. 믿음을 지닌 자는 상근기임을 반증한다. 17. 이미 선정을 믿었으면 구경에 깨침을 보아야 한다. 18. 다양한 근기를 대변하여 출가의 진정한 도리를 드러낸다. 19. 백파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서술하여 함께 수선하기를 권장한다.

그리고 본문에는 '사중규승(社中規繩)'을 붙여두고 있는데 모두 일곱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 전체는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반야바라밀의 육바라밀과 화합을 강조하는 보살도의 실천을 구현하자는 내용이다.

첫째는 돈오를 중시한다. 둘째는 대분지를 발명한다. 셋째는 지계에 충실한다. 넷째는 절차탁마를 한다. 다섯째는 정명(正命)을 실천한다. 여섯째는 도반을 배려한다. 일곱째는 규율을 어긴 자는 응분의 제재를 받는다.

[사중규승]에 이어서 백파의 제자 혜소가 1860년에 개판하면서 붙인 발문이 수록돼 있다. 그 내용은 발문을 쓴 혜소상인이 시설해 놓은 불법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깨침을 향한 것임을 피력한다. 나아가서 널리 경론과 논소를 참고하고, 〈염송〉 〈선요〉 〈단경〉 〈금강경〉 총림의 다양한 기록물, 청허의 〈선가귀감〉, 대혜의 〈정법안장〉 등으로부터 발췌한 〈수선결사문〉의 훌륭한 점을 찬탄한다. 그리고 하옥거사 김좌근에게 시주를 부탁하고, 혜소 자신이 다시 교정을 더해 출간한 경위를 서술하고 있다. 기타 부록으로는 '식지변설', '태고암가입과', '시악암거사념불요지', '삼근염불변', '시백충신거사법어' 등 5편이 수록돼 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대념처경 특강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과 대념처경 특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념처경은 위빠사나 수행의 근거가 되는 경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전통적으로 바라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전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 행복을 삶을 바라신다면 지금이 수행에 동참해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11년 6월 18일 - 6월 24일 [6박 7일]	우또다나 사야도 [통역: 일창스님]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대념처경 특강 및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대념처경 특강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의 면담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6월 18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6월 24일 오전 12시
■ 참 가 비(대념처경 특강 및 수행비) : 3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는 선원에 비치됨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세상을 자애로 감싸안는 일’ 여성만이 할 수 있다

본각 스님



소담스럽게 핀 꽃과 나무들을 지나 들어간 북 카페는 따스한 봄 햇살이 안락함을 더하고 있었다. 이호신 화백의 천불만다라로 장식된 벽면 덕에 북카페는 갤러리와 카페를 겸한 갤러리 카페를 연상시키기도 했다. 고양시 용두동 금륜사는 ‘현대적’이라는 수식어로는 설명이 부족한 사찰이었다. 1층은 북카페로, 2층은 법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화엄의 공간이라고 해야할까. 금륜사 주지 본각(本覺) 스님은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라며 곳곳을 친절히 설명했다. 두루두루 손이 안 간 곳이 없었다.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했다.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공간에서는 그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이 생겨났다.

종교와젠더연구소 옥복연 소장, 연구원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전나미 불교상담대학원 교수, 이희숙 서울여대 강사,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 사무국장이 4월 29일 본각 스님을 찾았다. 중앙승가대학 불교학과 교수, 비구니연구소 소장으로서 한국 비구니를 대표하는 본각 스님과 2시간 가량 대화가 이어졌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비구니로서 동국대, 일본 동경의 릿쇼대와 고마자오대 등에서 공부하고, 미국버클리에 있는 각 종교연합대학원(G.T.U.)에서 객원교수(1995~1996)로 계시는 등 일찍이 공부에 전념하셨습니다. 그 당시 비구니로서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원동력은 무엇인지요?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것,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것이 원동력이다.

18살 되던 해 운문사에서 초배지로 쓰인 한글전용 신문을 읽게 됐다. 한글로 쓰인 세상 이야기가 참 재미있었다. 그 때, 세상에서는 한글을 쓰는데 스님들은 한문을 보는 것이 마치 세상을 등진 일이라고 생각됐고, 바로 정규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3살 때부터 산중 생활을 하다 18세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려니 너무 어려웠다. 너무 모른다는 느낌이었다.

1982년 일본으로 건너간 것도 내가 있는 세상이 좁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모른다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벗어나 있으니 한국불교가 보였다.

> 최고의 지성은 더불어 함께하는 관계를 아는 것
> 여성부터 불평등의식 깨어나와 스스로 당당해져야
> 원전·구제역·저축은행… 업 가르치는 불교 교과서

부처님의 여래십호(如來十號)중에 세간해(世間解)가 있다. 세간의 모든 일과 그 이치를 모두 잘 안다는 의미의 말이다. 시방삼세에 있는 모든 현상계의 생하고 멸하고 변천하는 모습과 원리를 잘 알아서, 고통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부처님은 세간의 고통과 바람,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다. 그래서 세간해라고 하지 않는가. 승가는 세상을 내다보고 중생을 위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승가는 세간의 고통을 모르고 중생의 바람을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의 마음이 들었다.”

세상의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편리함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듯이 보인다. 물품은 넘쳐흐르고 생활은 많이 편해졌다.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가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하자 우리가 추구해온 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나 하는 자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재 참으로 행복하고, 모두 함께 미래에도 진정으로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원전 사고도 마찬가지다. 근본은 인간이 추구해온 편리함과 탐욕의 소산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살펴보면 최고의 악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업이라고 한다. 일본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전기 에너지에 탐익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경전만이 불교의 교과서가 아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그대로 부처님의 경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요즈음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교과서이고 수십만 가족을 살처분한 구제역, 저축은행들의 탐욕스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업에 기인함을 가르치는 불교의 교과서인 것이다.

앞으로 최고의 지성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개별적으로 끊어서 보지 않고 더불어 함께하는 관계로 이어져 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의 현상은 반드시 관계 지어져 있다. 가족은 조상이라는 전체 생명 속에 있고, 나의 존재는 모든 이의 보살핌과 노동의 대가로 관계 지어져 있다. 옷을 입고 편리한 차를 운행하는 것조차도 모든 생명의 노동과 관계 지어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법응여시(法應如是), 우주의 기운은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강둑을 무너뜨리고 여름을 지나치게 시원하게 보내려는 욕망은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탐욕이다. 이런 것들이 만연하여 더욱 혼탁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널리 바라보고 깊이 성찰해야한다. 오늘날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삼 가슴에 사무치고 보현의 행원력이 갈구(渴求)되는 이유이다.”

한국비구니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을 7년간 정리했습니다. 비구니의 위상 정립에 남다른 뜻을 세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구니연구소 개소는 우연한 계기였다. 1999년 매일신문에서 〈근세100년 여성종교지도자 명감〉을 제작하면서 각 종교계에 자료를 요청했다.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는 충분한 자료가 있던데 반해 불교만 자료가 없었다. 비구니 스님에 대한 자료라고는 생년월일, 본명, 입산과 출가, 득도일 정도에 불과했다. 근세 100년 여성종교지도자 자료에서 비구니가 빠지면 근세 100년사에 불교여성지도자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 중앙승가대학교 비구니 스님들의 기숙사인 수행관 관장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수행관에 사는 97학번 스님들과 자료 조사에 불이 붙었었다. 모두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1999년 연구소를 개소했다. 503명 비구니 수행 담록을 찾아 기록하는 작업은 7년에 걸쳐 진행됐다.

비구니연구소는 아직 정식연구소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중앙승가대 내에 공간은 있지만 거의 비구니 스님과 학인 스님들이 개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정도다. 정식연구소가 아니어서 연구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도 하다. 우선은 제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도 여성불교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해결될 일이다.”

한국 비구니 교단이 오늘날까지 유지, 발전은 외국에서 부러워할 정도지만, 여성 출가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비구니 승단으로서 규범과 절차를 1700년 간 지켜온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현재 대만 비구니들은 1년에 수차례 중국으로 가서 불교 강좌를 하면서 중국대륙 승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다. 중국본토에 여성 출가자는 많은데 체계적으로 수행과 교육을 지도할 기관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에게 대만스님들의 불교교육은 강좌에 불과하며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걱정의 말은 들은 적이 있다. 이제 불교도 국제화시대를 맞고 있다. 중국과 인도를 시작으로 참신한 출가자를 한국 승가에서 받아들여서 우리의 전통 예법을 가르치는 것은 한국불교세계화와 출가자 부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불교의 특성을 살려 세계에 비구니를 지원하되 종단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줄어드는 여성 출가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행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천년고찰에 소규모 한글 학당을 만들고, 참신한 외국인을 받아들여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불교를 매년 20~40명 정도에게 전하는 방법이다. 각 사찰이 분담해서 그들이 한국불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를 위해 종단에서는 글로벌 시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그들을 한국에 초청해하고 잘 교육된 외국인 행자는 수계를 하고 기본교육을 받은 다음에 본국으로 보내 한국 불교를 전하면 된다.”

죄가 많아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업설(業說)이나, 비구니 스님이 법상에 오르는 것을 불편해 하고, 비구니 팔경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팔경계는 우리 스스로 사장(死藏)해 버리면 된다. 경율논 삼장의 기록은 부처님 열반 300여 년 이후의 기록들로 남성 중심으로 편찬된 것이라는 학자의 주장이 있다. 율장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율장을 무시할 수 없지만 평등사상을 주장하신 부처님 마음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만약에 당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 하신 것이라면 여성에 제한을 두고 억압을 하는 모습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강한 저항이 나오지 않도록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모두 출가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고한 신념으로 출가하도록 강하게 제시했을 수 있다. 지금도 부처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팔경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부처도 불법도 모르는 사람이다.

기록은 기록으로 존중하지만 기록 이전에 부처님 마음을 읽는 불자가 돼야 한다. 율장을 손 댈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따라서 여성들은 오히려 대담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m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엇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성 평등에 있어 남성 지도자의 역할과 자세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운 스님, 성철 스님은 비구니를 보호했다. 94년 개혁하면서 비구니의 입지조건이 오히려 각박해진 부분도 있다.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길을 걷는 수행자로서 당당하게 일할 시기다. 1950~1960년대에는 비구니의 수행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큰스님들의 보호가 필요했다. 이제는 비구·비구니의 교육과 수행이 평등해진 만큼 일방적으로 비구스님들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비구니 자신이 당당해져야한다.”

비구니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입니까.

“비구니와 여성은 자신의 몫을 과감하게 책임져 나가야 한다.

우선 여성이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 여아 낙태는 여성이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다. 이제는 좀 달라졌겠지만, 이 시대에 여성이 여자 아이라는 이유로 수 만 명을 낙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가 품은 아이가 여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여성의 불평등 의식은 뿌리가 깊다.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여성 스스로 침묵을 깨야 한다.

또 하나 미혼모의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혼모를 자유롭게 해줘야한다. 미혼모가 아이로 인해 갖게 되는 무거운 짐들을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미혼모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가능케 해야 한다. 출가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다음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세상을 자애로 감싸 안는 일이다. 불교여성 모두가 한 몸이 되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경전을 통해서 배우고 힘을 합쳐서 자비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불교여성이 앞장서는 날이 있기를 바란다.”

부당한 피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회는 잘못에 대한 기도가 아니다. 너무 괴로울 때, 남을 원망할 때도 참회밖에 없다. 피눈물로 하소연하는 기도도 참회다.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하는가” 하는 아주 근원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 내 잘못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도 “부처님께 괴로움으로부터 길을 주십시오”라고 깊이 참회기도를 올려 보자. 내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나를 살펴볼 때 뜻밖의 힘이 난다. 참회기도는 청정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은 계속 죄업과 고통으로 이어진다.

일본에서 학위를 받을 때에 지도교수님과 갈등이 4년 간 이어졌다. 자기 학생이지만 자기 학생 같지 않아했다. 일본에서 지도교수와는 통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 자존심이 상했었다. 졸업논문을 앞두고는 한국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할 정도였다. 그때 관세음보살과 눈을 마주친 채 염주를 돌려가며 반나절을 지도교수님을 미워하는 기도를 했다. 평소 무시당한 자존심 상한 일이며 등등, 부처님 앞에서 지도교수의 욕을 한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뭐하고 있는가. 부처님 앞에서 지도교수님을…’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염주를 돌리고 있는 내 모습이 우습게 여겨졌다.

‘부처님 제가 왜 이럴까요. 논문 잘 써서 통과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게 됐다. 6개월 만에 교수님을 당당하게 찾아가 졸업 논문을 쓰겠다고 했다. 이후 난 적조 스님(스님의 속가 둘째 언니)과 교수님을 위해 기도하게 됐다.



본각 스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왼쪽부터) 전나미 교수, 한주영 사무국장, 김영란 소장, 옥복연 소장, 이희숙 강사

앞으로 누군가의 욕은 다른데 가서 하지 말고, 부처님 눈을 맞춰가며 욕할 것을 권한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이건 아닌데’ 라며 자기를 되돌아보게 된다. 많은 것을 깊이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다. 그때 이후로 내 마음 속에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대처할 뿐이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면 나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성내고 원망하는 것이라는 이해심이 앞서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다.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원수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상대가 비우지 않아도 내가 먼저 비우는 것이 참회다. 참회는 일방적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이 아니다. 죄에는 종자가 없다. 종자도 없는 죄업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가’ 하고 깊이 자신을 반성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참회기도는 곧 자신을 반성해 보는 첫 걸음이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신을 맑히는 참회기도가 무엇보다도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임을 강조하고 싶다.”

본각 스님은…

본각 스님 6남매는 모두 출가를 했다.

가족의 출가는 1952년 부친의 갑작스런 별세로부터 시작됐다. 본각 스님은 부친이 돌아가신 해 경남 합천군 쌍백면에서 태어났다. 스님이 되신 친척 고모님(삼인 스님)의 권유로 아버지의 49재를 지내게 됐다. 가족은 당시 안정사에 주석하고 있던 성철 큰스님을 찾아가 부친의 천도를 부탁했다. 이렇게 불교와 인연은 시작됐다. 큰 오빠인 천제 스님은 49재를 마치자마자 성철 스님의 맏제자로 출가를 한다.

이어 큰 언니(혜근 스님)가 출가를 했다. 어머니는 큰 아들과 딸이 출가를 하자 당신도 출가를 결심한다. 남은 자식들에게 출가의 뜻을 물었을 때 5자매 모두 출가의 뜻을 밝히게 된다. 어머니는 1955년 태백산 홍제사 보살계 산림에서 자운율사스님에게 출가를 앞두고 ‘성종’ 이라는 법명까지 받았으나 병을 얻어 출가는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둘째 언니(적조), 셋째 언니(보명), 둘째 오빠(삼소)까지 식구 모두 출가를 했다.

본각 스님은 3살 때에 석남사 인홍 스님의 권속 관계인 인천 부용암에서 육년(六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성철, 일타(지족암), 법명을 지어 준 전강, 혜암(수덕사), 춘성, 석남사 인홍, 봉녕사 묘엄 등 큰 스승을 많이 만났다.

석남사와 운문사 강원을 거쳐 1972년 동국대 철학과에 입학해 서양 철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재출가’ 의 초발심으로 봉녕사 강원을 졸업하고 3년 동안 중강 소임을 맡았다.

1982년 가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릿쇼(立正)대 석사, 동경 고마자와(駒澤)대학원에서 박사과정 9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91년부터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G.T.U(종교연합대학원)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1999년 한국비구니연구소를 개설해 한국비구니 승단의 자료와 활동상황을 정리하는 독보적인 업적을 이루어내는 등 불교 대중화와 포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불교진흥원 제6회 대원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04년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의 추진위원장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불교방송 경전공부, 자비의전화 신행상담 진행, 주말법문 법사, 대한불교조계종 11, 12, 13대 중앙종회의원,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역임, 문화관광부 전통사찰지정 자문위원 역임, 불교학연구회 회장 역임, 한국비구니연구소 소장(현) - 신문기사로 본 한국 비구니 자료집 등 19책 발간, 중앙승가대학 불교학과 교수 및 도서관장(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현), 화엄장학회 회장(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고시위원(현), 승가교육진흥위원(현), 포교원 연구위원(현) 등을 맡고 있다. 2010년 ‘천불 만다라 봉안도량’ 금륜사를 창건했다.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문자를 쓰지 않는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책의 형태는 다양하다.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그 다양함은 한 형태의 모습일 뿐 우리에게 의미를 전하지는 못한다. 책은 마침내 독자가 펼치는 순간 정형(定形)에서 부정형(不定形)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 정형 보다 부정형 하면 불안정한 상태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정형 보다 훨씬 값진 모양이 부정형이다. 생각을 깊이 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고정된 것은 부패하기 쉽고 곧 퇴보해버리거나 망가지기 일쑤다. 그러나 살아 있는 것의 속성은 아주 다르다.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다. 이 모습인가 하면 어느새 변하여 저 모습이 되기도 한다. 책 또한 독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한낱 물질에 지나지 않지만 책장을 펼치는 순간 독자의 뇌와 눈의 작용은 활발해지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기도 하고 환희가 넘쳐나기도 하며 깊은 상념에 빠져들기도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책이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확 바꾸어 놓은 대역사(大力士)가 아닌가 한다.

자식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듯 진리 전달에 문자한계 드러나

당송 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왕안석(王安石)은 권학문(勸學文)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있다.

가난한 사람은 책 때문에 부유해지고
貧者因書富
부유한 사람은 책 때문에 귀해진다
富者因書貴
책을 읽어 영화 누리는 것은 보았지만
只見讀書榮
책을 읽어 실패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네
不見讀書墜

독서야 말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묘약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소중한 글을 선에서는 무용지물로 만들고 만다.

불립문자라는 말이 그렇다.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不立文字 教外別傳 直指人心 見性成佛)이란 사구(四句)는 달마 대사가 한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말은 아마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에 걸쳐 쓰이게 되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고 본다.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의 〈선원제전집도서〉 권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불립문자란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는 말이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는 말은 전혀 아니다. 간간히 주변에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말 하는 이를 보면 왠지 뜨악한 사이가 되고 만다. 여기서 문자란 말이나 음절이란 의미가 있으나 실은 경전이나 논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능가경〉의 한역본(漢譯本)에 문자라는 말이 있는데 범어 akshara 를 번역한 말이다. akshara 는 ‘문자’ 라는 말 뿐만 아니라 ‘소리’, ‘단어’, ‘종교적 고행’, ‘희생’ 등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다. 대정장 16권 〈능가아발타라보경〉 권4(p.506中) 가운데 불립문자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 ‘문자에 떨어지지 않는다’ 는 불타문자(不墮文字)가 있고 혹은 ‘문자를 여읜다’ 는 이문자(離文字)가 있다. 중국 초기 선종사에서 〈능가경〉은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 달마는 혜가에게 4권 〈능가경〉을 전수하면서 “내가 중국에 들어온 후 이 경전만큼 불설(佛說)다운 것을 보지 못했다. 어진 사람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가 있을 것이다. 혜가여! 그대에게 그 진리의 더욱 심오한 것을 내려주려한다”고 하였다.

진리를 전달함에 문자라는 수단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선의 입장이다. 이는 비단 선종에서만 표방하고 있지는 않다. 노자 또한 도를 언어로써 표현한다거나 서술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도를 아는 사람은 도가 이렇다 저렇다 말 하지 않고(知者不言), 도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 하는 사람은 도를 모른다(言者不知)고 말하지 않았던가. 성리학에서도 칠분도설(七分度說)을 들어 언어나 문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진리나 실재물을 표현함에 7할은 언어나 혹은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3할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말이나 글로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현관을 나서는 자식을 보는 눈길과 손길에 부모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굳이 수량으로 사랑의 척도를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말이 어눌해도 무방하다. 손길이 등이나 어깨에 미치지 않아도 하등 문제될 일이 아니다. 그 아들은 오늘도 책을 펼쳐 부정형의 세계에 빠져들 것이다.

법정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자기만의 꽃을 피우는 일이다



불일암에서 법정스님의 법문을 듣는 정찬주 작가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법정스님의 수행처를 찾아 깨달은 명상의 글



법정스님의 빠삐용 의자

작가는 법정스님이 수행했던 암자와 절을 순례하며 우리들에게 자기만의 꽃을 피우자고 손을 내밉니다.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를 길벗 삼아 법정스님의 자취를 찾아가는 '무소유 성지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현장스님

스님의 수행처를 다 순례하는 동안 나는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스님은 꽃피듯 물 흐르듯 사는 것을 무소유의 삶이라고 사유하신 것이 분명하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진정으로 홀가분해지고 자기다워지는 삶이 무소유의 삶인 것이다. "나도 없는데 하물며 내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귀속의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다. 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찬주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법정스님의 ❀ 자기다운 영혼은 무엇인가?



신간

정찬주의 마음기행

문의 (02)3144-3700 | www.Yolimwon.com 열림원



위생 · 안전 · 친환경

사천왕 공간살균기

식약청 허가제품



지금은 세균과의 전쟁? NO! 이제부터 스님 불자님 황사 세균걱정 끝!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천왕 공간살균기는 염소가스의 국제환경 허용농도 보다 100배 낮은 수준으로 하여 공간 시설물에 점착되어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각종 유기물과 공중부유균, 낙하균 등을 안전하게 분해 제거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아염소산 전용 공간 살균기 입니다.

가장 강력한 살균력과 안전성이 입증된 차아염소산을 3~5마이 크론의 초미립자 분무하여, 실내공간의 대류에도 30분 이상 부유하게 함으로서, 공기청정기(공기살균기)에서는 할 수 없는 인플루엔자 보균자(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을 즉시 차단할 수 있으며, 실내공간 시설물의 점착균 제거도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 징

친환경
○ 물을 전기분해하여 사용하므로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 중성에 가깝고, 무색.무취로서 장기보존이 가능합니다.

안전성
○ 식품첨가물로서 인체에 무해합니다.
○ 트리할로메탄 생성과 잔류성이 없어 안전합니다.

저비용. 고효율
○ 소모품 비용이 저렴합니다.
○ 모든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강한 살균력을 갖습니다

사 용 처

1. 법당 공간 시설물에 점착되어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각종 유기물과 공중부유균, 낙하균 등을 안전하게 분해 제거 살균하세요.
2. 법당에서 사용하는 **좌복 및 방석** 등 수시로 세탁할 수 없는 것을 간단히 사천왕 공간살균기에 접촉시킴으로써 소독 및 살균하여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3. 모임이 많은 법회, 불교대학, 어린이 법회, 불교계 운영 요양원 등 각종 대중 모임이 많은 곳에 적합합니다.
4. 사용사례 : 공공기관 민원실, 금융기관, 군부대 내무반, 교육시설(학교, 학원, 유치원) 의료기관(병의원/요양원), 스포츠센터, 골프장, 대형식당, 유흥업소 노래방, 주점, 유통대형마트, 위락시설 PC방, 극장, 백화점





















❖ 사천왕 공간살균기 제원
· 사용시간 : 1시간, 4시간, 8시간
· **사천왕공간살균기 : 150만원**
· **차아염소산 살균수 : 10L 5만원 . 20L 8만원**
(4배희석으로 사용하며,1일 8시간 기준. 월 25일 사용시 20L 소모)
· 소비전기 : 90W · 중량 : 7.3kg
· 크기 : 250cm×410cm×110cm

❖ 사천왕 공간살균기 납품처
서울대학교어린이집 · 고신대학교 · 횡성축염 · 관악구청 · kb금융 · 홈플러스 · 성광제약 · 텍스온네트 등

차아염소산 이란? 차아염소산이 우리 몸의 혈액 중에서도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활성산소가 체내에 침입한 세균 등의 이물을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호중구에서 미에로퍼옥시다제(MPO)라고 하는 효소가 대량 존재하여, 활성산소의 일종인 과산화수소수를 염소이온과 반응시켜 차아염소산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호중구가 이러한 인체면역시스템을 통해 생성하는 차아염소산은 수억년에 걸쳐 행하여 온 가장 안전하고 속한 살균방법 인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하고 안전한 차아염소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안티바이러스는 인간의 살균시스템에서 유래한 꿈의 살균수 인 것 입니다.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법과 法果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법과활용(Application)
이미 많은 사칠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한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法句經 법구경
미움은 미움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에만 풀어집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法句經 법구경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호법자(護法者)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은 적더라도 몸으로써 그것을 분별하고 진리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진리의 수호자인 것입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 문의
TEL 02)2004-8216
FAX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서구불교의 동향과 전망 진 우 기(불교영어번역연구원 원장)



최근 들어 명상을 심리학, 뇌과학 등에 응용시켜 사례들을 발표한 저술서들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서적들은 한국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인기를 더욱 끌고 있다. 아시아의 대표 종교였던 불교가 21세기 서양 사람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6월 2일 만해NGO센터에서 열린 불교아카데미 MY Leaders Club에서는 현재 불교영어번역연구원 진우기 원장이 '서구불교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강연을 통해 진우기 원장은 서구사회가 어떻게 불교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진우기 원장은 서울대 사범대학 화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TEXAS A&M UNIVERSITY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람의 아들 붓다〉 〈행복해지는 연습〉 〈틱낫한의 상생〉 등을 번역했다. 현재 불교여성개발원 자문위원, 양문 출판사 편집기획위원, 불교영어번역연구원 원장, 불교 전문 통역사이자 번역가, 저술가로 활동 중이다.

정리=이은정 기자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없다면 불교가 아니다

서양은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처음 미국에 가서 굉장히 놀랐던 점이 많은 미국인들이 불교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고, 특히 지식층들이 불교를 알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는 불교를 전파하는 신문, 잡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간돼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고 잘 읽힐 수 있는 책들이 많았고 이런 책들을 접하는 일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도록 그리스도교를 믿어왔던 사람들이, 왜 20세기에 들어 부처님 말씀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하고, 불교를 좋아하게 됐을까요. 오래 전 과거에는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부처님도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물질적 고통을 덜어 줄 방법들에 대해 설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물질이 어느 정도 풍요로워 지자,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종교를 통해서는 답을 얻을 수 없었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항상 '내가 한 설법을 믿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그때그때에 자신의 말을 알아서 새겨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불교는 자신의 생활에서 응용이 가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불교의 가르침이 서양인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 부분입니다.

서양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불교가 각 개인의 거실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서양인들은 명상 수행을 통해 불교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는데, 명상 수행을 할 때에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어울려 합니다. 숭산 스님이 처음 미국에 건너가 불교를 전파한 방식도 이러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점차 각 개인 거실에서 이뤄졌던 명상 수행은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결국 불교센터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서양이 불교를 만난 최초의 시점은 기원전 1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를 침략했던 그리스 장군 메난데르(Menander: 155~130 BCE)는 인도 북서부의 왕으로 남아 비구승 나가세나에게 불교를 배웠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에 남은 최초의 불교 개종자입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서양에서는 불교, 힌두교, 노장사상 같은 동양학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 문인, 예술인들이 불교 사상과 문화를 전하기 시작했고, 불서가 서양에서 서양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불교는 미국보다 유럽에서 먼저 전파됐습니다.

유럽열강들이 향료무역 때문에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진출하고 이들 땅을 식민지화 하면서 200~300년 후에 서서히 불교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물질적 이득을 위해 동남아에 온 포르투갈, 영국, 에스파냐,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식민지의 정신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 여기에 학자들의 학문적 관심까지 더해 불교관련 서적이 출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 불교는 생활서 응용 가능한 가르침
> 서양 불교는 개인의 거실서 시작돼

1834년 헝가리에서는 '티베트학과 불교문화의 아버지' 라고 불리는 코르시 쪼마(Korosi Csoma)가 티베트 불교를 배우기 위해 세계 최초의 〈티베트-영어 사전〉과 〈티베트어문법사전〉을 펴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어에 능통했던 뷔르느프가 1844년 불교 원전들을 읽고 600쪽에 달하는 〈불교역사입문서〉를 저술했으며, 1852년에는 〈법화경〉을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번역해 출간했습니다. 이 〈법화경〉책은 데이비드 소로우가 미국에서 영어로 다시 번역했습니다.

불교는 일찍부터 유명 학자들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나의 철학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세계의 종교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불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19세기 말 니체는 〈반그리스도〉라는 작품을 통해 "불교가 그리스도교보다 100배 더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927년에 〈티베트 사자의 서〉가 영역됐고, 1935년에는 융의 평론을 담은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서양인들은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1930년에 하이데거는 흑림에 다실을 열고 일본선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곤 했습니다. 또 1951년 헤세는 소설 〈싯다르타〉를 써서 불교사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선불교의 경우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서서히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선불교 사상을 담은 최초의 번역서는 1977년 중국의 선화 선사가 처음 영역한 〈육조단경〉이였습니다. 이어 1977년에는 클리어리의 〈벽암록〉이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선불교 고전이 영역된 것은 찰스 뮬러가 서산 대사의 〈선가귀감〉을 최초로 영역한 것입니다. 이어 2006년 백운경한 선사의 〈직지심체요절〉이 2005년에 영역되기도 했습니다.

선불교가 서양에 본격적으로 전해진 것은 1960년대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확산이 일어난 데에는 일본인 스즈키 다이세츠와 미국인 앨런 와츠이 중심이 됐습니다. 다이세츠와 와츠는 미국 대중의 구미에 맞게 불교를 전파해 불교 확산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들은 불교의 낭만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면을 강조해 전파했습니다. 이들에 이어 일본 선사인 스즈키 순류는 수행 중심의 선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선불교를 미국인들에게 전파하고 이를 그들의 삶에 적용 발전시키게 됩니다.

서양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믿었던 그리스도교를 하루아침에 불교로 바꾸는 것은 아니었지만, 불교를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교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오히려 21세기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교를 재평가하는 움직임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불교로 개종을 시키는 것 보다 이런한 현상들이 불교 발전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실망스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 유일한 하나님뿐이며, 신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적장 신을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수행법들이 없고, 그동안 배웠던 가르침들에서 오류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판들이 서서히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교는 점점 번성하게 됩니다.

'Google' 에서 'buddhism' 이라고 검색을 하면 3340건의 항목이 나옵니다. 현재 서양 최대 규모의 사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시라이(西來寺)입니다. 남반구 최대 규모의 사원은 오스트레일리아 월롱고에 소재한 난티엔(南天寺)입니다. 두 곳 모두 대만 불광산종에 속한 사원입니다. 불광산종은 현재 전 세계에 120여 사찰을 두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서구에 맞는 불교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불교센터를 설립한 제1대부터 시작됐습니다. 티베트 불교 카큐파의 드룽파 린포체는 1974년 콜로라도에 나로파대학을 설립하면서 이미 '아시아의 인종적, 문화적 특성을 다 빼버리고 오직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만을 전달하겠다' 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당시 미국 전역에 성행했고, 수많은 샴발라 센터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북미대륙 최초의 승가대학인 감포수도원을 캐나다 노바 스코티아 지역에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미국은 그들만의 특별한 수행 원한다
> 민주·자율·여성·대중적인 불교 성행

유럽지역에서는 프랑스의 경우 티베트 불교를 3년 정도 안거할 수 있는 센터가 마련되는가 하면, 틱낫한 스님의 알아차림을 기반수행으로 하는 'United Buddhist Church' 는 유럽 각지를 넘어 미국에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샴발라 유럽은 매년 말 불교청년축제를 열었는데, 12월 27일~1월 1일까지 5박6일 간 16~35세를 대상으로 독일의 4성급 호텔에 모여 불교수행, 사회참여, 불교예술 등을 배우고 나누는 행사들이 개최됐습니다. 서구의 경우는 재가자들이 스님들보다 더욱 활발하게 불교 수행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샴발라 센터의 경우 응용불교가 가장 먼저 발달해 사람들의 큰 호응을 이끈 곳입니다. 재가자들이 골프, 운전과 같이 직접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불교와 접목시켜 어떻게 평상시에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수행이 발달한 한국과는 달리, 서구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모여 불교 수행을 함께 즐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문화와 융합되기까지는 3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미국의 경우는 단 40년 만에 불교가 정착됐습니다. 미국의 불교는 '미국 불교' 라는 말이 따로 생겨날 정도로 그들의 고유 방식으로 불교를 정착시켰습니다. 자유롭고 가벼워진 분위기 속에서 가정과 직장인들을 위한 융통성 있는 수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안거의 경우도 6개월 생활과 번갈아 하거나, 가족들끼리 휴가를 안거생활로 대체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편리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불교를 응용해 자율적으로 수행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화, 여성화, 생활화 됐다는 점이 미국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빠르게 불교가 활성화되고, 불자들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불교의 자비와, 관용, 합리성 등의 사상이 미국인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며, 서양에서 자란 차세대 스님들이 많아지면서 자국어로 소통하고 현대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불교의 경우는 재가불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개인의 거실에서 시작된 명상 불교로 인해 재가들의 파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국 불교수행자들은 반승반속(半僧半俗)이라는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재가자들은 수행이 없으면 '불교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수행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삶에서 불교를 적용하지 않으면 영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이나 수행센터 안에서 가족단위로 몇 년씩 사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스즈키 순류 선사는 "미국에서는 선불교도를 일본과 같이 정의할 수 없다. 미국 학생들은 승려가 아니지만 완전한 재가자도 아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로서 승려의 수행도 아니고 재가자의 수행도 아닌 특별한 수행을 원하고 필요로 한다. 이들은 다르마에 합당한 사람의 방식을 발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백 개의 병원에서는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교와 기업에서는 다르마의 원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명상과 정관을 통해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있어, 대학에서는 명상 학습과 실수행 과목을 만들어 학점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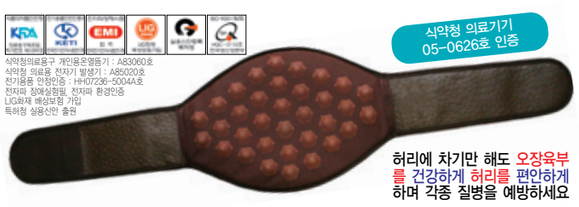
1997년 미국학문협의회(American of Societies, ACLS)가 시작한 명상수행 펠로우십(Contemplative Practice Fellowship) 프로그램은 고등교육에 명상수행의 응용을 진흥시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유수대학인 브라운대, 컬럼비아대, 예일대, 매서추세츠대, 미시건대를 포함한 75개 대학에서 명상수행을 영입했고, 의학, 경영학, 심리학, 종교학, 건축학, 문학, 문학, 음악 분야 등에서 명상수행을 통합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불교는 생태보호 환경 운동에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명상수행의 효과는 뇌과학 의학과 접목돼 과학화로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점은 여성불교가 활달히 이뤄지고 있는 점입니다. 서구에서 여성운동이 대두되던 시기에 불교가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여성들은 단지 신도나 수행자의 역할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리처드 시거(Richard Seager)는 "1960년대 이후 미국불교여성들은 수행자, 스승, 지식인, 지도자로서 주류 세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술계에서는 불교는 새로운 창작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불교를 접한 영화인, 미술인, 음악인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불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철학과 가치관들이 서양인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 ~ 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료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 규 격 8.5×5.2×2.0cm
■ 가 격 34,000 (건전지 포함)
룸비니는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죽음은 '찰나' 또 다른 삶의 한 과정

최찬민 작가, 18일까지 삼청동 스페이스선에서 'Revival' 展



조개 껍질과 생선 찌꺼기로 만든 드레스. 작가는 신데렐라 스토리를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불교에서의 죽음은 몸이란 지수화풍 사대의 물질이 인연법에 따라 모인 것이 흩어지는 것이라 설한다. 즉 죽음은 끝이 아닌 연기 속의 생멸 과정의 일부분인 것이다.

서울 삼청동 선아트 스페이스에서 6월 18일까지 열리는 최찬미 개인전 'Revival'은 이런 죽음의 의미를 생선 찌꺼기를 통해 표현했다. 작가는 물고기의 생을 통해서 물고기가 죽음을 거쳐 그 찌꺼기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 받는 과정을 관찰하고, 이를 작업으로 나타냈다.

수면 밖으로의 이동으로 인한 첫 번째 죽음으로부터 시작돼 어시장 도마 위에서의 죽음, 찌개 속 끓는 물에 의해 살이 흩어져 나가는 죽음, 사람들의 입 속에서 또 한번 으깨질 때의 죽음, 뼈가 발려질 때 뼈가 끊어져 나가는 죽음, 그리고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뼈가 깎여지고 뚫리는 죽음 등 여러차례 죽음을 거치며 점차 다른 존재로 변모하는 물고기를 고찰했다.

인간은 실존적 존재로 자아가 인식하는 상태에서의 죽음을 경험하지는 못한다.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막연하게 느끼며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것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에서는 '슬픔, 두려움, 아픔, 마지막'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느껴진다.

작가는 이런 죽음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새롭게 만든 물고기의 삶의 그래프는 죽음이 끝이 아닌 '전환점, 새로움, 희망, 통로'와 같은 긍정적 이미지의 한 지점일 뿐이다.

작가의 손을 거쳐 처음 태어났을 때 물고기를 이루고 있던 근간인 뼈 조각들은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 한다. 중요한 점은 새롭게 태어나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 구성물질은 물고기일때나 생선 찌꺼기일때나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편안한 감상의 공간 속에서 관객들은 지금의 삶을 돌아본다. 인생을 죽음을 기준점으로 반으로 접는다면 '처음의 태어남'과 '새롭게 태어남'의 두 시작점이 생긴다. 다시 이를 반으로 접고 접고 접는다면 죽음을 앞둔 우리들의 시간은 매 순간이 새로운 태어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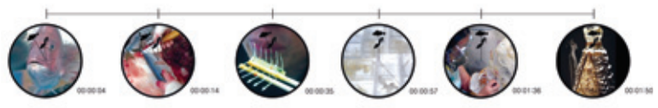
작가는 여기에 또 다른 색채를 더한다. 바로 신데렐라 스토리다. '삶과 죽음'이란 다소 무거운 주제에서 유년 시절을 통해 친숙하게 기억되어지는 신데렐라 동화를 입혀냈다.

작가는 삶과 죽음의 시간을 반으로 접어 그 변환지점인 12시에 유리구두를 통해 같은 존재이나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사는 잿투성이 소녀와 새롭게 태어난 여왕을 표현했다.

"왕으로 사느냐, 거지로 사느냐, 매 순간 새롭게 살려는 마음에 달렸다"는 작가의 해석은 선어록의 한 문구가 생각난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죽음의 경험을 통하여 그 동안의 삶의 태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180도의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을 보기도 한다. 이들의 삶에는 변화를 일으킨 어떤 한 지점이 존재하며, 변화가 일어난 시점의 이전을 살았던 옛 사람과 이후를 살고 있는 새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여질 것이다.

자각 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은 체험할 수 없음에도 자아의 죽음을 택했을 때 비로소 성숙의 자아가 발현될 수 있다는 작가의 말이 가슴을 파고 든다. **노덕현 기자**



제작과정. 생선이 신데렐라 드레스가 되기까지

이은정 기자의 뻔뻔(Fun Fun)한 레시피⑧

수수부꾸미

수수부꾸미는 엄마가 가끔 만들어주시던 별미 중 하나였다. 아직도 내 주변 친구들은 수수부꾸미가 어떤 음식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수부꾸미는 자주 만들어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이 음식을 맛 본 기억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충청도가 고향인 나는 수수부꾸미를 주로 겨울철에 많이 만들어 먹었다. 어릴 적에는 생김새며, 약간 떨떠름한 수수의 특유의 맛 때문에 엄마가 만들어 줘도 손을 잘 대지 않았다.

부꾸미는 지방에 따라서 모양도 크기도 여러 종류며, 안에 넣는 소도 제각각이다. 엄마는 주로 부꾸미 안에 삶을 팥을 넣어 반달로 지져 만들어 줬었다.

예전에는 팥맛도, 수수맛도 잘 몰라, 엄마가 수수부꾸미를 만들어 주면 "맛없는 거 또 만들었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 맛이 가끔 그리울 때가 많다.

예전에는 시골 재래시장만 가도 시장 한 켠 에서 수수부꾸미를 쉽게 사 먹을 수 있었다.

지금 오히려 만들어 먹는 것이 훨씬 간편한 세상이 됐다. 사실 수수부꾸미는 막상 만들어 먹으려고 하면 그리 간단하지는 않은 음식이다. 수수쌀을 불렸다 곱게 갈아야 하고, 팥도 오래도록 삶아야 한다.

요즘은 호떡처럼 집에서도 손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 시중이 널려있어 만들어 먹기가 훨씬 간편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만든 수수부꾸미 맛이 최고인 것 같다.

가끔 입맛없는 날에는 특별식으로 온 가족이 수수부꾸미를 나눠먹는 것도 좋을듯 싶다.



#알고가기 수수는 주성분이 탄수화물이어서, 지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콩과 궁합이 잘 맞는다. 수수는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서도 효과적이다. 또 수수 안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은 방광의 면역기능을 강화시키고, 세포의 산화스트레스를 줄여 염증을 완화시킨다. 수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봉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수수쌀 250g, 팥 200g, 소금, 설탕 3큰술, 들기름

음식 만들기

① 수수쌀은 6시간 정도 물에 담가 둔 뒤, 소금을 넣고 곱게 갈아준다.
② 팥은 물에 넣고 1시간 정도 삶은 뒤, 설탕을 넣고 으깨준다.
③ 곱게 갈은 수수쌀은 뜨거운 물을 넣고 반죽 한 뒤, 동글납작하게 빚어 기름을 두른 팬에 지져준다.
④ 어느 정도 반죽이 익으면, 팥을 넣고 반으로 접어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 붙여준다.

부처님 말씀 부채에 담아

지묵 스님, 단오 맞이 부채전 열어



옛 선조들은 여름이 시작되는 단오절(음력 5월 5일)에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라는 뜻에서 부채를 주고받았다. 궁궐에서는 단옷날이면 단오선(端午扇)이라는 부채를 만들어 왕이 직접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보림사 주지 지묵 스님은 단오절을 맞아 6월 5~6일 장흥불교대학 보림사 제1강의실에서 '제8회 단오 부채전'을 열었다.

심우도(尋牛圖), 달마도, 새우, 승가의 풍속도 등을 부채에 담아 전시를 해온 스님은 이번에는 낙관에 부처님 말씀을 새겨 옛 서민들이 즐겨 사용한 쌍죽선에 담았다.

이와 함께 스님은 8회에 걸쳐 전시한 소장품들과 신작, 그리고 동호인 소장품 100여 개 등 200여 개를 전시했다.

10여 년 전부터 부채에 그림을 그린 지묵 스님은 "예부터 선조들은 부채에 그림을 그려 선물하는 풍습을 즐겨했다"며 "단오를 맞이해 부처님 말씀을 부채에 새겨 선물하고 전통을 살리고자 전시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아리랑 함께 부르며 한마음

동국대 경주캠, 25일 美위스콘신대 협주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5월 25일 교내 백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미국 위스콘신대 음악대학 교수 및 학생들과 국제교류음악회를 개최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동서음악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에서는 위스콘신대 교수진의 독주와 박종원 교수(위스콘신대)의 지휘하에 학생 25명의 흑인 영가 등 4곡 합창, 박상진 교수(동국대)의 지휘하에 동국대 한국음악과 국악오케스트라가 '아리랑' 등 4곡이 연주됐다. **노덕현 기자**

만해 스님 추모예술제

6월 10일 오후 2시

일제 강점기 3·1운동의 주역이면서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스님을 기리는 추모예술제가 열린다.

동방대학원대학(총장 정상옥)와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권)은 6월 10일 오후 2시 만해 스님이 마지막 생을 마감한 성북동 심우장에서 추모다례재 '제67주기 만해다례재'를 봉행한다.

행사에서는 심상현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집전을 맡으며 정상옥 총장, 조태권 원장이 인사말을 맡는다.

이후에는 헌다(獻茶)식도 함께 봉행된다. (02)3668-9821 **이나은 기자**

천도재·예수재 용품은 동진기획·붓다쇼핑에서...
그동안 동진기획·붓다쇼핑을 찾아주시고 구매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구성 : 금강경탑다라니,지장경탑다라니, 아미타경탑다라니, 신묘장구탑다라니,천수다라니,개팔전,상평통보,만관, 신묘장구대다라니,지전,봉투

종이영가옷 (남자/여자/동남/동녀/수자)
A형-남 정가 1,500원 A형-여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할인가 1,200 (100벌 이상)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C형-남 정가 1,200원 D형-여 정가 1,100원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할인가 950 (100벌 이상) 할인가 900 (100벌 이상)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부모은중경·목련경 정가 4,000원
할인가 600 (100벌 이상)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할인가 2,400 (50권 이상)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 크기 : 53×180㎜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100개 30,000원 • 남자/여자/위패
종이신발(남/여) 1켤레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축원카드 칼라 축원카드 금장(가로/세로) 할인가 60원(2,000장 이상) 정 가 10,000원(100매) • 크 기 : 268×190㎜
자비도량참법(세로) 할인가 9,000원(20권 이상) 정 가 15,000원
금강반야바라밀경 할인가 1,800원(100권 이상) 정 가 3,000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지혜의 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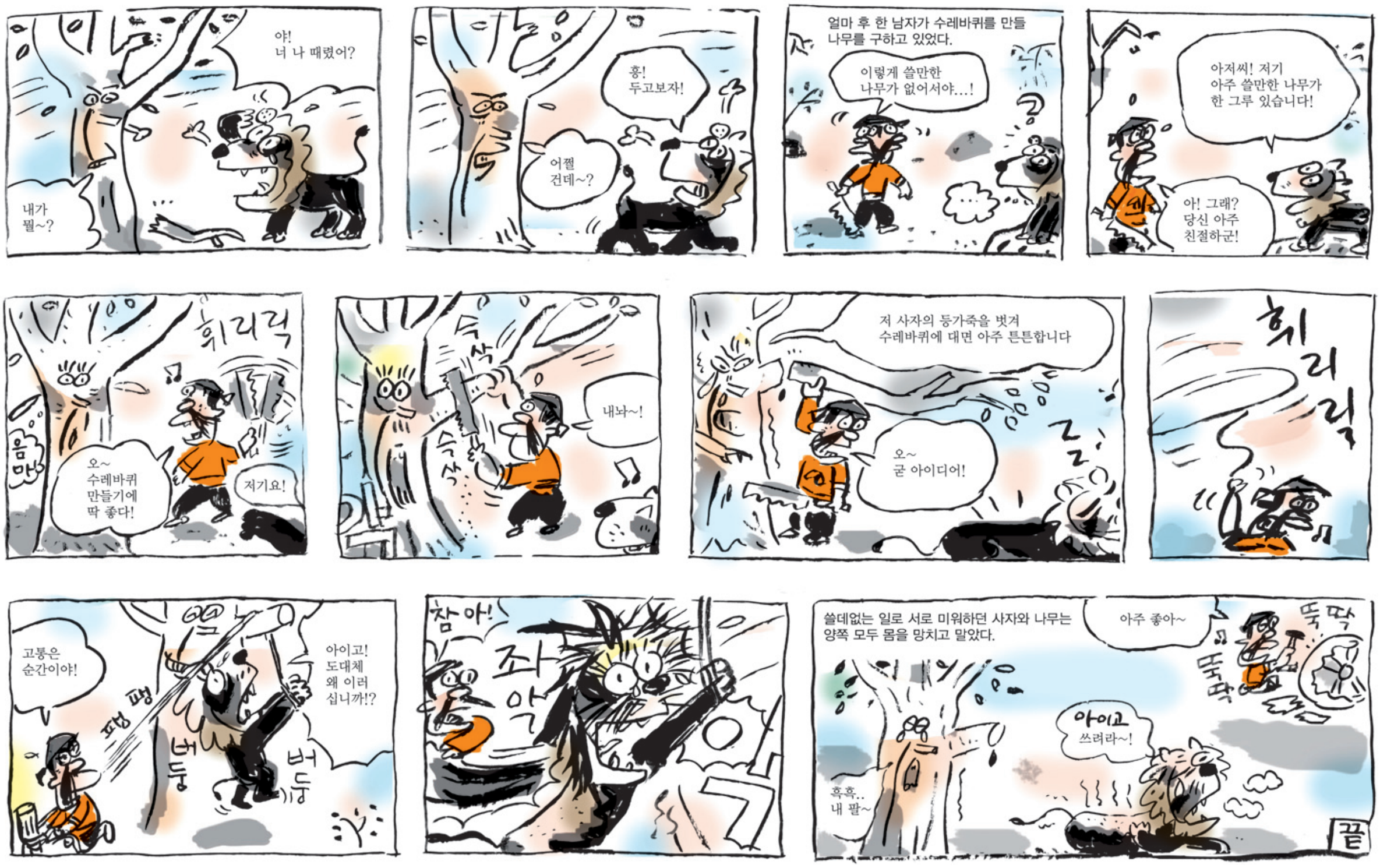
자타카 이야기 8

-사자와 나무-



구성-김흥인





佛經의 眞髓, 깨닫는 法을 일러준 「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의 바른 해설!!

반야심경의 올바른 해설

● 金台龍 해설



金台龍 해설, 知文社 刊, 값 10,000원

지금까지 불교계의 애매모호한
해설의 오류를 밝혀,
정확히 뜻을 헤아려 새길 수 있게 한,
혁명적인 해설본 출간!!

지문사 02)715-2305, FAX 718-9387

총판 · 한국출판협동조합 전화 070-7119-1750, 팩스 031)944-8240

월암스님과 함께하는

제3기 '유식' 대강좌

대한불교조계종 군포 법해사에서는 매년 참선실참 수행 방편으로 선학강좌를 개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기에는 **문경 한산사 월암스님**을 모시고 마음바탕과 작용의 법계 유심 만법유식의 대의인 '유식' 강좌를 봉행합니다.

'일체가 다 마음에서 난다' 는 큰 주제를 가지고 화엄 법해에서 번뇌가 곧 보리 인 용맹정진하는 거룩한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6월 18일 오후 3시 개강,
  매월 셋째주 (토) 오후 3시
- 장 소 : 군포시 당동 법해사 4층 교육강당
- 연락처 : (031)394-7253, 397-7253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법해사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㉞

선승의 장송(葬送)과 다비(茶毘) 그리고 의발(衣鉢)·경매(競賣)

망자나 생자 모두의 탐착심을 끊게 한다

‘총림(叢林)’이라는 말은 선종사원(禪宗寺院)을 지칭하는 말이다. ‘선림(禪林)’이라고도 하는데, 큰 규모의 총림은 보통 500명 이상 수행했으므로 열반(입적)하는 스님도 종종 있었을 것이다. 선승이 입적하면 모든 장송의식은 총림에서 치룬다. 장례의식의 정점은 다비(茶毘, 火葬)이다. 다비의식은 무상(無常)의 끝을 보여준다.

총림의 다비장(茶毘場)은 지정돼 있는데, 위치는 가람과 좀 떨어진 넓은 곳에 설치한다. 먼저 참나무 장작을 높이 쌓은 다음 망승(亡僧)의 시신이 들어 있는 감(龕, 棺)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 그런 다음 다시 장작을 높이 쌓아 올린다. 불길이 높이 올라가고 불꽃이 튀게 되므로 다비장이 넓어야 한다. 자칫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넓은 곳이 없을 경우는 ‘약식 다비’라고 해서 땅 밑을 좀 파고 장작을 1미터 이상 쌓은 다음 관을 올려놓고 그 위에 또 장작을 올린다. 그런 다음 물에 젖은 볏짚으로 영을 이어서 여러 겹으로 두른다. 이렇게 하면 고요하게 연기만 올라올 뿐 불꽃은 튀지 않는다.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는 것을 ‘하화(下火, 點火)’ 또는 ‘병거(秉炬, 횃불을 잡다)’라고 한다. 준비가 완료되면 장송의식을 총괄하고 있는 유나스님은 주지화상 앞으로 가서 하화(下火)를 청한다. 하화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소임자가 할 수 없다. 이어 유나가 “오늘 신원적(新圓寂, 새로 입적한) ○○상좌가 연(緣)이 다해 순적(順寂, 입적에 순응함)했나이다. 이에 법에 의해 다비하나이다. 백년 홍도(弘道)의 몸을 태워 열반의 길에 들었나이다(…) 운정(雲程)을 봉송하나이다”라고 고하면 주지화상은 점화한다.

다비의식이 끝나면 대중들은 모두 승당으로 돌아간다. 이어 점심 공양 후 망승의 가사와 발우·옷 등 소유물 일체를 모두 경매하게 되는데, 그것을 ‘창의(唱衣)’라고 한다. ‘옷의 값을 부르다’는 뜻이다.

경매는 총림의 규율담당인 유나(維那)가 주관한다. 주지나 감원 등은 일체 관여할 수 없다.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값을 정하는 것을 고의(估衣)·고직(估直) 또는 고가(估價)라고 하는데, 고의(估衣)는 주지·수좌·감원 등 6지사와 6두수 등이 참여해 적정가를 정한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유나는 종두 소임자로 하여금 종과 북을 쳐서 대중들을 법당 안이나 승당 앞으로 모이게 한다. 물론 관심이 없는 이는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경매는 구경하는 재미도 적지 않다. 경매에 응하고자 하는 이들이 다 모이면 유나는 인경(印磬, 경쇠의 일종)을 한번 치고 나서 게송을 읊는다.

“뜬 구름 흩어져 그림자마저 남기지 않았네/ 남은 촛불 다해 그 빛 절로 사라졌네/ 지금 여기에 고창(估唱, 경매)하나니 그것은 무상을 나타내기 위함이네/ 대중을 의탁해 ○○상좌를 위해 받드나니/ 각영(覺靈, 영가)은 정토에 왕생하사이다./ 염(念)하나이다.”

그림자마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허공을 날으는 새가 발자국을 남기지 않듯이, 몰종적(沒蹤迹) 즉, 공(空)·무집착을 뜻한다.

망승의 물건을 경매하는 것에 대해 청규에서는 “제행무상을 깨닫게 하고 간심(慳心 아낌, 인색함)을 없애며, 망승과 인연을 맺기 위한 것이다”라고 경매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후 곧바로 대중 앞에서 낱낱이 경매해 망자나 생자(生者) 모두로 하여금 탐착심을 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유나는 다시 한번 인경을 치고 나서 대중들에게 창의(唱衣, 경매) 방법에 대해 고지(告知)한다. 유나는 “이 창의(唱衣)의 법은 오래 전부터 상규(常規)로서 이어온 것입니다. 물건이 새 것인지, 옛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파악해야 합니다. 창의가 결정돼 인경을 치면 다시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삼가 아룁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경매가 시작된다. 유나는 경매할 물건에 대해 천자문(千字文) 순서대로(즉 天地玄黃 순서) 낱낱이 번호를 매겨서 대중 앞에 나열한다. 예컨대 첫 물건의 경우는 ‘천자일호(天字一號)’가 되고, 다음 물건은 ‘지자이호(地字二號)’가 된다.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것은 원활한 경매를 위해서다.

다비 의식 후 망승 소유물 경매

주지·수좌도 취득 원하면 참여

유나는 경매할 물건을 들어서 대중에게 보인 다음 새 것이면 ‘신(新)’ 헌 것이면 ‘구(舊)’ 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것이면 ‘파(破)’라고 한다. 그런 다음 “천자일호(天字一號) ○○물건 값 ○○요”라고 부르면(唱), 유나실의 행자는 다시 큰 소리로 대중을 향해 복창한다. 응찰자가 많으면 다시 값을 올리고 적으면 값을 내린다. 낙찰을 받고자 하는 이는 “○○(자기 이름) 청수(請受, 매수)요”라고 한다. 다른 응찰자가 없으면 유나(維那)는 “천자일호(天字一號)의 ○○물건은 값 ○○에 ○○상좌 청수(請受, 매수)요. (혹은 打與합니다)”라고 결정한 다음 인경을 한번 친다. 그러면 낙찰이 결정된 것이다.

만일 최종 응찰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낙찰시킬 수 없으므로 유찰시켜 버리는데, 이것을 ‘쌍파(雙破)’라고 한다. 양쪽 모두 낙찰을 파(破)해 버린다는 뜻이다. 유찰된 물건은 처음부터 다시 경매를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옷·발우·가사 등 망자가 남긴 물건을 모두 경매하는데, 응찰자가 적으면 값을 내려서 예정가에 못 미치더라도 경매한다. 응찰자가 많아서 예정가보다 너무 높아지면 유나는 응찰자들에게 “다시 모름지기 자세히 살피시오. 뒤쫓아 후회한들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며 응찰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낙찰이 확정되면 유나실의 행자는 전표를 끊어 낙찰 받은 스님에게 전한다. 지객은 그 스님의 이름과 물건, 값 등을 장부에 기록한다. 행자는 물건을 다시 바구니에 담아서 전표와 교환한다. 낙찰은 번복할 수 없다.

〈칙수백장청규〉 창의(唱衣) 부분에 “3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가격을 참조하여 내다 판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아 후대에는 규정이 완화돼 낙찰 받은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허용됐던 듯하다.

경매가 끝나면 다음날(열반 3일재) 바로 경매와 관련된 수지(收支) 명세서를 방(榜)에 붙여 공개한다. 그것을 ‘판장식(板帳式)’이라고 하는데, 경매 명세서를 판(板)에 적어서 붙인다는 뜻이다. 양식은 품명과 낙찰가를 쓰는데 절대 위조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매수자의 이름은 적지 않는다. 장례비용 등도 모두 공개한다. 말썽을 없애기 위한 조치인 듯하다.

경매에는 특혜가 없다. 설사 주지나 수좌 등 상위소임자라 해도 망승의 유물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경매를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의(唱衣)에서 얻어진 수입금은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을 경우에는 영가 앞에서 독경한 스님들과 장례식 동참자, 창의 주관자들에게 나누어 보시한다. 그러고도 남는 것은 사중(寺中) 수입으로 계정(計定)한다.

창의에 대해 장로 종색의 〈선원청규〉에는 병승이 숨을 거두면 즉시 창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중의 재정을 아끼는 한편, 경매 수입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후대 문헌인 〈칙수백장청규〉에서는 다비가 끝난 후에 창의하는 것으로 돼있다. 다비식 후에 하는 것이 덜 복잡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원청규〉는 당대 이후 북송 때까지의 장례법이고, 〈칙수백장청규〉는 남송 말기 이후에서 원대까지의 장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망승이 6지사(知事) 등 총림의 요직을 역임해 의발 등 개인 소유물이 꽤 있으면 경매한 돈으로 특별 공양을 낸다거나 그 지역에 이름 있는 고승을 초청하기도 한다.

수익금 장례비 사용 및 보시

일체개공과 무상 여실히 증명

도첩 처리에 대해서도 〈선원청규〉(1103년 편찬)에서는 3일 이내에 국가에 반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대 문헌인 〈칙수백장청규〉(1338년 편찬)에서는 경매를 시작할 때 “망승의 도첩 한 통을 대중 앞에서 잘라서 파(破)합니다”라고 하여, 대중 앞에서 가위로 잘라 버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송 이전에는 도첩을 국가에 반납했다. 원대(元代)에는 총림에서 파(破)하는 것으로 바뀐 것 같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망승의 유물을 나누는 것에 대해 청규에서는 “부처님 제도에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은 남아 있는 이로 하여금 저 망승의 물건이 뭇 대중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무상을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에게 돌아와도 이와 같이 되리라. 저것으로 인하여 탐구(貪求, 탐욕)를 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창의(唱衣)의 기원이 부처님 당시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경매를 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세속에서는 망자의 개인적인 물건, 특히 입던 옷 등은 모두 태워버린다. 그런데 총림에서는 대중들을 상대로 경매해 처리한다. 말하자면 일체개공과 무상을 여실하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인데, 살아 있는 자가 이 광경을 본다면 탐착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조금은 느끼게 될 것 같다.

총림에서 망승의 물건을 경매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체계적이다. 오늘날 경매방법과 별 차이가 없는데, 아마 당시 세속의 경매방법을 참고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경매과정에서 잡음이 꽤 있었던 것인지, 〈칙수백장청규〉에서는 “창의(唱衣, 경매)할 때 시끄럽게 값을 다툰다. 어리석음도 심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칙수백장청규〉 시대(1338년 무렵)에는 구염법(鬮拈法)을 택했는데, 구염법이란 ‘제비뽑기’ 방법으로서 천자문 순서대로 전표를 두 장 만들어서 하나는 응찰하고자 하는 이에게 주고, 하나는 경매 주관자(유나)가 받아서 모두 모아 통 속에 넣고 섞어서 추첨하는 방식인데, 자기 번호가 나왔을 경우 낙찰에 응할지 여부는 응찰자 마음이다. 낙찰받기 싫으면 응찰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다시 추첨한다. 구염법을 도입한 이후에는 잡음이 적었다고 한다.



법정 스님이 ‘신문을 전해주던 꼬마’에게 남긴 유품인 6권의 책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노우 스님과 불교를 묻고 답하다
108개의 문답으로 명쾌하게 알아보는
불교의 최상승 교리들!

백팔문답요집
불교란 무엇인가

百八問答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불교 교리서이자 철학서!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던지는 의문과 물음,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들을 엄밀히 선정하여 문답 형식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방대하고 복잡한 불교 철학과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제로 삼아 불교의 깊고 넓은 사유
세계를 보여주는 불교 교리서이자 철학서.



노우스님 저 | 신국판 변형 | 343쪽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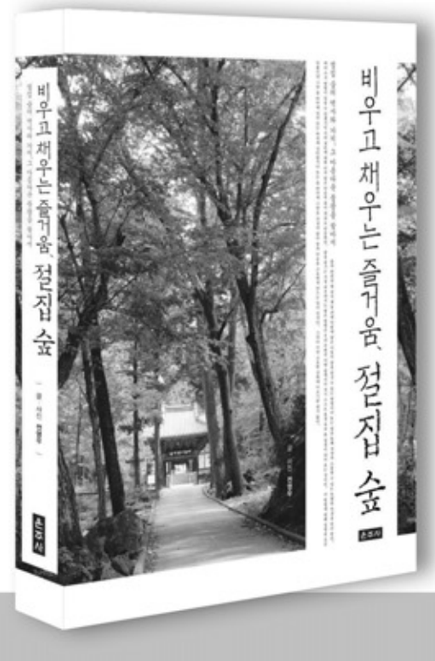
우리 땅 곳곳에 자리한 절집 숲 24곳에 대한 답사기!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산림학자이자 숲 해설가인 전영우 교수와 함께하는 절집 숲 이야기!

절집 숲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생태적 문화유산이자
선조들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매력적인 선물이다.

경쟁과 속도에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제공하는 절집 숲,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경관이자
아름다운 자연유산, 220여 컷의 풍광 사진과 인문학적 깊이가 있는 글은
독자로 하여금 절집 숲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할 것이다.



전영우 저 | 사륙배판 변형 | 컬러 | 396쪽 | 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한국구술인물사 / 여 익 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⑧

승가의 현실참여, 화엄산림에서 시작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음식점에 올라가 가지고 음식점 2층에서 음식을 시키니까 그거야 막을 수 없잖아 경찰이. 거기서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했어. 조직을 그래 막 통과시키고 의장 뭐 누구 뭐뭐뭐 부의장 누구 우리가 각본대로 박수소리가 나고 '통과 되었습니다 민중불교' 막 이러니까 경찰들이 쳐들어오더라구요. 그래 싹 잡아 간 거야. 종로경찰서로. 그래서 '니네들 정말 뭐 창립했다고 뭐 안 뚜드렸잖아. 무슨 창립이야' 뭐 얼어 죽을, 서로 논쟁을 벌인 거지. 우리는 '무슨 얘기냐 우린 다 박수치고 통과하고 의장되고 그랬다.'"

세종로 교보빌딩 뒤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민중불교운동연합이 창립됐다. 여익구는 그 단체의 의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민중불교운동연합의 창립은 불교운동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커다란 사건이다. 쿠데타에 의한 군사독재로 인한 모순과 질곡을 바로잡아야할 당위성 앞에서 불교는 사회적 의무에 빚을 지고 있었다. 당시 불교인들이 민불련 활동에 자긍심을 가질 이유이다. 타종교의 활발한 현실 참여에 비교되던 불교권에서 단체를 설립하고 적극적인 불교운동을 펼쳐 나가는 계기였기 때문이다. 특히 개신교나 가톨릭이 국제적인 기금이나 지원에 의해 목사나 신부들이 사회활동을 했다면, 여익구는 스님들의 개인적인 주머니 사정에 의지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참으로 열악한 상



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불련을 통한 불교의 사회적 역량 확대는 그것 자체로도 갖는 의의가 크다.

여익구는 민민련이나 민통련 등 사회단체 창립에 관여했다. 그는 불교단체의 창립에 경찰이 보여준 '무시'에 분노했고, 스님들을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스님들의 지지와 결집을 이뤄낸 민불련은 이후 많은 활동을 시도했다. 백중(우란분절)을 해방의 날로 정하고 수유리 화계사에서 축제행사를 준비했다. 특히 민불련이 1986년 5·3 인천사태에 개입함으로써 정치적 위상을 높였지만, 여익구는 수배 당하는 처지가 됐다.

"전국수배 지명수배 당한 거죠. 졸지에 갈 데가 없어진 거야. 아 큰일났더라고. 그래서 그 때부터 하염없이 도망 다닌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냐. 이게 돈이 돈이 있어야 도망 다니지. 다행히 그 동안에는 스님들하고 깊게 사귀게 됐잖아요."

수배 중에도 그는 민불련을 추스르고, 혼란스런 와중에도 스님들의 시국선언을 지원했다. 1986년 6월에는 정토구현전국승가회의 발족을 지켜봤다. 또한 재야와 불교를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의미 있는 역할은 승가가 불교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스님들이 어느 순간 현실참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1977년 화엄산림에서 시작됐다고 그는 회고한다. 10·27법난의 역경, 대불련 지도법사단 구성, 신흥사 살인 사태로 이어지는 불교계 수치, 그리고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 등 일련의 사건에서 스님들이 깨어났다고 봤다.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⑨

눈 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경봉 스님은 수행을 함에 있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인생의 4대 의혹', 즉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뚜렷이 밝고 지극히 신령한 이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다가 부모의 태중(胎中)으로 들어간 것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죽는 날은 언제인가?'의 네 가지를 늘 천착했다. 특히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참된 주인공은 반드시 알아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서도 정작 밥 먹는 놈을 모르고 있으니…. 보고 듣고 소리 질러도 그렇게 하는 진짜 주인을 알 수 없으니 가슴이 답답하구나.'

번민을 거듭하던 경봉 스님은 어느 날 굳게 결심을 했다. '한 세상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참된 주인공을 찾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 보리라. 그리하다가 죽으면 또 어떠리.'

은사인 성해 스님은 안양암(安養庵)으로 경봉 스님을 보내면서 "네가 그토록 원하던 수행을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말고 실컷 해보라"며 추상과 같은 금족령을 내렸다. 은사스님의 지극한 배려로 경봉 스님은 밥 먹는 시간외에는 오로지 참선뿐이었다. 망상과 수마를 물리치기 위해 밤낮을 잊은 듯 좌선을 풀지 않았다. 안양암에서의 수행을 통해 경봉 스님은 비로소 불퇴전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극락암에서 정진을 거듭하면서도 경봉 스님은 직접 설주(說主)가 되어 해담화상과 함께 화엄산림법회를 열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12월 8일 화엄법회 입재일부터 화두가 뚜렷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화엄산림을 개설하면서 이미 낮과 밤의 구분없이 철야정진하던중 12월 12일 갑자기 벽이 무너진 듯 시야가 넓게 트이더니 일원상(一圓相)이 오롯이 나타났다.

나와 남[自他], 주관과 객관이 모두 무너진 경계가 하나의 둥근 원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뭣고'의 화두는 여전히 의심의 덩어리가 되어 캄캄한 절벽으로 남아 있었다. 경봉 스님은 다시 좌정을 해 화두삼매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새벽 두 시 반경 바람도 잠이 든 듯 잦아든 시각에 갑자기 '파바박' 하며 촛불이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 경봉 스님은 문득 남다른 경계를 맛보았으니 비로소 개안(開眼)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었다. 경봉 스님은 무릎을 치고 일어나 어깨춤을 추었다. '해인사 뒷산에 올라 통곡을 하며 수마와 싸우던 기억, 직지사와 금강산, 그리고 통도사 안양암에서 피나는 정진을 하며 그토록 이르고 싶었던 자성의 자리가 확연히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었다.' 깨달음의 순간을 만끽한 경봉 스님은 그 솟구치는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다.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허허 이제 만나 의혹 없으니
우담발화 꽃빛이 온 누리에 흐르누나.
我是訪吾物物頭
目前即見主人樓
呵呵逢着無疑惑
優鉢花光法界流

경봉 스님의 깨침은 여느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의문에 가득 찬 자기자신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벼랑 끝까지 몰고 간 끝에 생생하게 확인한 확철대오(確徹大悟), 스님의 견성은 한 점 의혹도 남아있지 않은 깨달음이었으니 마침내 조사선의(祖師禪義)를 체득한 것이었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㉚ 돈황

돈황에서 불교신앙을 찾다



돈황의 변상도

실크로드를 향해 열려 있는 돈황지역은 서북쪽의 이민족과 한족이 공존하던 도시였다. 불교가 전래되던 초기에는 서역의 불교문화의 흔적을 강하게 받았으며, 당나라 당시 중국의 확장과 불교의 발전으로 중국적인 불교전통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돈황의 성세를 중심으로 막고굴에 굴실도 대규모로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당나라 때 조성된 굴이 전부 232개 정

변상도 통해 서민층 포교 활발
정토신앙이 민중들의 지지받아

도로 막고굴 전체 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한다. 당시에 조성된 석굴들은 화려함 또한 최고조에 이르게 돼 굴 내부에 있는 소조상과 벽화의 장엄함이 세월을 넘어 그 자취를 전하고 있다. 굴실 조성형식 또한 앞선 시대에 조성되던 비하라 형식이나 차이티야 형식의 석굴은 자취를 감추고 불상을 중심으로 한 석굴이 유행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서역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적인 전통이 굴실 조성에도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벽화의 경우에서도 이전시대에 유행하던 불전과 본생담 보다는 경변화(經變畵)로 대체된다.

돈황의 당나라 시대 경변화는 불상의 변천만큼이나 불교신앙의 변화를 잘 알려주고 있다. 당시 불교발달과 더불어 나타난 서민층에 대한 포교의 흔적이 경변화를 통해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변상도(變相圖)라고 불리는 이 벽화는 경전의 내용을 벽화로 풀이한 것이다. 당나라 시대에는 불경의 내용을 설창(說唱)으로 불리는 통속적인 문장으로 변화를 시켜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던 변문(變文)이 유행했었다.

당나라 시대의 변상도들은 시기에 따라서 변화를 거친다. 전기에는 정면 벽에는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을 모시거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신다. 측면에는 아미타, 미륵, 법화, 약사를 중심으로 한 변상도가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마도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초기부터 유행한 법화신앙과 유마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과 당나라시대에 들어서면서 유행한 아미타 신앙이 한데 어우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변상도들이 유행하는데 벽면에 사람을 압도 할 정도의 큰 변상도를 그린 것은 특징이다. 염불을 위주로 중생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정토신앙은 당나라 시대에 민중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아미타불의 서방정토를 묘사는 아미타경변상도와 사위성의 비극과 아미타불의 9품 세계를 중심으로한 관무량경변상도 또한 당대 전기에 유행한 변상도라고 할 수 있다.

당나라 전기의 이러한 신앙적 특색은 토번의 돈황지역 점령 후 많은 변화를 격게 된다. 또한 당나라 후기의 돈황 막고굴의 변상도 들은 다양한 경전이 소재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신앙의 변천은 민간 신앙의 변화와 많은 관련이 보인다.

돈황을 중심으로 펼쳐진 신앙의 흐름은 새로운 형태의 불교신앙의 변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의 변천이 녹아 있는 변상도들은 민간신앙의 흐름을 새롭게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청정 청풍골 참다슬기 농축액

"간"이 피로 하십니까?

예로부터 맑은 물에서 자란 참다슬기는 그 효능이
토종 웅담에 비길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동강청정원에서는 강원도 동강과 남한강 상류
지역에서만 채취한 구슬알 다슬기와 참 다슬기만으로
다슬기 기름과 다슬기 농축액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

▶다슬기 농축액 : 다슬기 10kg을 껍질까지 분쇄하여 마늘과 생강만을 넣고 가마솥에서 3일간 달여 10㎖ 60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다슬기 기름 : 다슬기만 15kg을 항아리에 넣고 불가마속에 5일간 껍질까지 녹여 내린 것으로 900㎖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냉장상태로 포장하여 택배 배송하고 있으며 후불제로 판매합니다.

문의 : 043)652-2121 동강청정원

(사)한국불교조계종

입 종 안 내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 정진하고 있는 본 종단은
첫째, 둘째도 화합을 표방하며
제방에 계시는 큰 스님들을 본 종단
종도로써 초빙코저 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2011년 6월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화

부산시 서구 천마로 113번길
연락처 010-3262-1005

명상수련

삶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나요 ?

명상을 하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집니다 .
명상수련은 인생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줍니다.

"심산의 맑은 생수만 마시며 단식으로 다이어트,
고혈압,당뇨, 과민성대장 ,아토피, 피부미용, 체질
개선, 금주 ,금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십시요."

고요한 산속 명상수련원에 오셔서 황폐하여진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세요.
그리고 모든 장애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요.

◐ 수련기간 : 7일
매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입소
다음주 토요일 오후 1시에 퇴소

◐ 침실은 1인 1실 : (수련은 강당에서 단체로 합니다)

금정산 명상 수련원 (금륜선원)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1036-1
055)383-7009 / 011-556-5830

영남범패학인모집

영남범패불음원 진주 교육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10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입교일시 : 2011년 6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문의전화 : 진주 055)747-8419
■ 수 강 일 :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간경화, 치매, 사업성취
각종 난치병 치료보장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 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찰행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우주 기(氣) 천도재
재물을 차리지 않고 특별한 우주 기(氣)천도재?
1.시공을 초월한 천도재법?
2.목탁,염불을 하지않는 새로운 천도재법
3.빙의치료,퇴마,천도재 전문
4.조상,빙의영가와 직접대화를 통한 천도재
※ 질병, 액운,우환이 많은분 상담
일광사 011-586-6091
031)321-9555

사주 통변술 강의
사주, 궁합, 택일 등
사주 초보부터 실전까지
비법특강합니다
그룹지도, 개인지도
수시접수
010-8606-6151
현인스님 합장

LA에서 부전하실 스님,
한국에서 부전할 스님
사무실 직원, 공양주
모십니다
042)272-1223
010-5792-3000

요양 보호사를 모십니다
▶ 근무조건 : 주야간 2교대, 주5일 근무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식사제공
▶ 근무처 :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0번지 붓다마을
▶ 연락처 : 02)3156-7511
010-9894-7500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법사단 신행단체에서
기도처를 찾습니다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사찰 연락주십시오
010-3011-0853
정토복지회 진우

오래 있을
부전자리 구합니다
염불, 참선, 간경,
기도, 설법에 능함.
(당 67세)
010-4059-1087

육임(六壬)
배울 분
(칠갑산)
010-3221-0839

사 업 대 박 !
약사대불 영험도량
개운비법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49재 선바중장비고사
조상령 , 태아령 , 빙어령 등
(각종 불교의식 전문가, 무형문화재 이수스님팀 구성)
東禪 전국(예약시)출장환영
상담문의 010-3563-2566
070-4256-2566 도선

염불 잘 하시는
부전스님
모십니다
▷ 부산
011-567-2626

사찰 관리하면서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 연세가 있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 삼척
010-9416-77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서울 정릉
02)919-0480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조계종 내원암 지장보궁
힘있는 도량 고찰복원,
노승이 상좌없음
본종 외 타종단 비구니는
다시 본종(조계종) 계 받고 상좌 할
비구니 40~50대 평생주지로 관리운영
맡길 인연 있는 비구니 스님을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빙의 퇴마교육 및 상담
▶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빙의 대화 및 퇴마법 (4가기 방법)
▶ 저렴한 비용으로 퇴마해 드림
▶ 육임통변 및 실전사주 명리강의
031)666-7732
011-472-5928
청운사 경담

백가지 병을 고친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백병산, 사계절 풍광이수려하고 포근하
며 남한강 자락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
서 맑은 공기와삼림욕을 만끽하며 달마
대사의 수련법인 기공참선을 통한 심신
단련과기도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지키
는 소중한 산사체험을 권장합니다.
수련 031)772-2020
문의 010-4641-5474
대웅사(경기 양평) 주지 일학

절을 맡아 운영
해 주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10-6833-36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남 합천
010-9506-5706

가족같이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남 거제
010-8559-4833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3871-5330

부전스님 모십니다.
불심있고 절 일
도울 수 있는
청신녀를 모십니다
▷ 부산
011-573-08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 성남
011-9854-9810

공양주
모십니다
▷ 순천
010-4174-7410

통증 제거 기술 무료교육
스님들 요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원심수기요법을 배워 활용하신다면,
사찰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심수기는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배우는데도 쉽고 간단한 기술입니다. 원심수기는 침이나 지압도 아니며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도 아닌 우리전통기술입니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연락처 : 한 의 원 019-305-9138
* 또한 불자님 중에 한의사 선생님을 초빙합니다. (숙식제공 가능)

아주 특수한 기도비법
☎ 032)664-0048 / 011-741-0867

청도 한재 미나리 진액
흰 민들레, 강화약쑥
복부비만해소, 고혈압, 수족냉증, 노화방지, 숙취제거,
간질환, 위암, 폐암, 유방암, 항암효과, 변비, 만성피로
60개 1박스 6만원 (스님,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농협 356-0150-1551-73 정승열
지 장 암 010-2367-0200
010-5251-4196 (대명화보살)

BTN 불교 TV에서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큰스님 기록 영화!
「일붕다큐」 제3부 마지막 방송
오는 양력 6월 8일 저녁 7시 30분부터
50분 방영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달력에 메모해서 방영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무문관 재가수행자 특별 모집
▶ 입방 후 문 폐쇄 – 하루 한끼 공양제공
▶ 연령 제한 없음. 남,녀 선착순 ▶기간 : 보름이상 – 자유
▶ 입방 날짜는 개인별로 함 ▶동참금 있음
▶문의 : 054)753-8228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감포도량 무일선원 무문관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양파엑기스 판매 (효능)
혈당낮춤, 거담, 발한, 이뇨, 혈액순환촉진, 해독, 소화촉진, 해열, 관상동맥확장,
콜레스테롤상승억제, 항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병, 괴혈병, 신경질, 신체허약,
기관지염, 코감기, 피부병, 궤양성피부염, 발모촉진, 장염, 감기, 빈혈, 후두염,
죽상경화증, 관상심장질환, 천식, 기침, 비타민결핍증, 궤양, 부인질병, 설사,
변비, 동맥경화, 고지혈증, 대장염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 054)383-8553, 011-9585-4908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 지장선원
1박스(50포) 가격 3만5천원 / 4박스정도 복용효험확실 특별보급가 12만원
http://cafe.daum.net/jijangsw

역 학 개 인 지 도
누구나 쉽게 한달이면 마스트 해드립니다
모든 비법도 가르켜 드립니다. 바로 쓰실수 있도록지도함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학술위원장
운세상담 사주. 신생아작명. 궁합 택일 . 기치료. 빙의
서울전철4호선 한성대입구역 (삼선교) 6번출구뒤 구룡암(활산선원)
예약상담 02(6081-9999) 송금후 전화상담가능
H. P : 010-6436-9888 선원장 혜자스님 합장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법륜사
• 법 명 : 성진 (최현진)
• 주 소 : 경남 사천시 축동면 탑리 819-1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8일

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법하

운 영 위 원 회
해 임 공 고

• 사찰명 : 생활불교 관음사
• 주 소 :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산 68-7번지

위 사찰의 규약(정관)에 기록된
아래의 운영위원 4명을
2011년 6월 8일부로
해임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감사(주지) : 박기환 (일송 스님)
임 원 : 강대룡 (법해 스님)
임 원 : 김인호 (청암 스님)
임 원 : 박형철 (수산 스님)

생활불교관음사 창건주 노경섭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거리)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슴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약 250년),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 위주 전시) 일시관 외벽 만다라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바 있음.
■ 임야 10,500평은 대형저수지로서 2011년 2차선 공사가 완공되면 어떠한 명목으로 허가 가능함.
■ 임야 제외 34억, 사찰만 할 경우 32억
■ 상기 면적중 성취관 (240평)의 불상 및 전시관에 조성자금 소요 자금만 받고 있음. (기타 일체 무료)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 락 처 : 010-4504-0174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널리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불 자 정 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6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17평
- 요사 : 55평
- 부지 : 100평
- 가액 : 3억 5천

- 위치 : 충남
- 법당 : 22평(목조)
- 요사 : 45평
- 부지 : 120평
- 가액 : 2억 9천

- 위치 : 전북
- 법당 : 17평
- 요사 : 37평
- 부지 : 170평
- 가액 : 2억 5천
  납골당 2000기중
  미분양 1500기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금정산 대사찰(천년고찰)

- 총대지 : 약 5700평
- 법당 약 80평, 요사채 및 기타 5동
- 부산 금정산 자락
- 가액: 18억

진주 아름다운사찰(100년)

- 대지 : 600평
- 법당 20평 요사 및 기타 5동
- 진주 인터체인지 5분거리
- 주차장 120평
- 총금액 4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납 골 공 원

- 위치: 전남 장성
- 면적 9500평
- 법당 27평, 요사 29평
- 납골허가기수 15,000기
- 가액: 20억

062)431-8484

작은 암자 안내

- 위치: 경북 봉화
- 땅 1천평
- 법당 10평,산신각 1동
- 요사채 20평
- 매실,약재산딸기 유실주 1000주
- 가액: 1억 5천만원

010-5317-7736

사찰(급)안내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 171평,건물단청, 수미단, 영단
- 법당, 종무소: 1,2층 각 20평씩 1동
- 요사채: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주차공간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점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 건물에 2층, 에어컨 3대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 모든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토 굴 안 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용전마을 뒤
- 건물 2채, 인법당, 입식부엌, 방3칸
- 텃밭 50평
- 가액: 4년 임대료 1,000만원

011-9393-4965

암자터안내

- 위치 : 충남 행정도시에서 20분거리
- 평수 : 420평
- 도로, 전기 되있고, 옆 계곡, 청정지역

011-753-076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자락
- 3층건물, 단층건물 100평
- 대지 230평
- 가액: 4억 5천만원

010-8640-663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지장보살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1,2번출구에서 1분거리
- 35평정도,
- 보증금 2500만원, 월세 170만원
- 시설비는 상담후 결정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9472-757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용성리
- 대지 200평, 바로 뒤에 산
- 임법당 1동, 산신각 1동
- 방4, 창고1, 공양간, 보일러실, 샤워실
- 가액 : 6천만원

010-7377-3574

명당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봉산면 보전관리, 건축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 있음
- 임야, 논 950평
- 가액: 6천 6백만원

010-2887-41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 숭의동
- 상가1층주택, 약 30평
- 법당1, 방1, 거실 화장실 큼
- 주방별도, 마당텃밭 있음
- 도시가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500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0-4149-5176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대산
- 면적 대지 309평
- 법당 20평 외 건물 4동
- 교통편리, 주차공간 넓음
- 마을한복판에있고,집안에텃밭있음
- 가액: 2억 8천만원

011-882-289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직동
- 평수: 25평
- 전세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후 절충가능

010-3866-5928

도심사찰(급)포교원안내

- 용인 죽전동(분당과 경계) 아파트 밀집지역
- 7층건물 7층 132분양-평당 매매 300만이상
- 1억이상 원목, 단청함-시설완벽
- 도심포교 원력 최고지-현재 운영잘됨
- 이주관계로 급하여 인연분께 양도
- 4억 3천(절충가능)
- 빠른 연락과 직접 오시어 확인 요함

017-265-936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800만원

010-3302-1821
055)638-1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명당
- 가액 : 2억

010-3138-4897

농가주택안내

경북 영양읍 근교에
잘 보존된
한옥 20평과
대지 92평을
단돈 2500만원 급 양도

010-3538-221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큰 도로 옆
- 2층 상가 독채
- 1층 요사채(상가), 방2, 화장실2
- 2층 법당 외 방2, 화장실 1
- 가액: 총 1억 3천 5백만원
- 사정상 급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5054-67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무척산
- 대지 220평
- 법당 15평, 산신각 4평
- 요사채 37평, 명부전 25평
- 텃밭 40평
- 가액: 1억 3천만원 (융자3천포함)
- 심야보일러, 기름보일러

010-8327-3808

토 굴 안 내

- 위치 : 태백산 심산유곡
- 토굴(굿당가능)
- 대지 55평
- 건물 2채
- 가액: 5천 3백만원

010-7270-3425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아담한 독채 주택
- 법당1, 방3, 주방 및 다용도실
- 보증금 3백만원 월 25만원 1년 선세
- 도심속 최고 값싼 불교 포교원
- 현재 시설 그대로 몽땅 천오백
- 승복, 가사, 장삼, 책 일체 보시
- 몸만 오시면 법회 및 만사 OK

011-458-2955

조용한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 대지 : 600평, 임법당 60평
- 공양간 30평, 창고 10평
- 방 4개
- 가액: 2억 5천만원

010-4775-2799

포교원 양도 받으실분

- 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동 소재 5층 상가 중 2층
- 법당1, 산신각1, 스님방2, 공양간1
- 화장실(세면장 겸용)1, 옥상 (텃밭)
- 삼존불, 탱화3점, 산신상 1점, 산신탱화 1점
- 사찰명 상담시 공개협의

010-6487-5656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가액 : 8억 5천

- 위치 : 충남
- 부지 : 2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9억 5천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매물접수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대현동 (최요지) 전철 3분, 시장 2분 거리
- 부지 130평, 건평150평/ 주차 7~8대 가능
- 1층 50평 큰방1개, 큰거실1개, 큰공양간 2층 대웅전, 방1개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개, 다실 별도 2,3층 베란다 사용
- 가액 : 7억 8천만원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7-572-371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1억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 대지(임야포함) : 5500평
- 법당14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 28평 총47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0-8561-316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CCTV. 대용량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1억 8천만원)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87-6666

전원주택 및 토굴 안내

- 위치 : 인제원통 터미널에서15분거리. 산중턱
- 전원주택겸 토굴로 사용가능
-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이중 흑벽돌, 심야보일러
- 총 1,400평, 대지 300평
- 건평 25평, 밭 잘가꾸어져 있음
- 앞에는 큰강 산세 수려
- 가액: 3억 3천만원(가격절충)

010-3337-9736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 입구
- 평수 63평
- 법당 25평, 산신2평, 요사채 20평, 주방 10평, 스님방 3개
- 동해 바다가 보이고 정자항과 관광이 모이는곳 사찰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는 형편맞게 결정

011-831-732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인구 밀집지역
- 3층건물중 3층, 옥상사용가능
- 건평 50평 이상
- 방2, 사무실, 주방, 창고, 베란다, 화장실, 공간 사용 편리함
- 법당 30평, 삼존불, 후불탱화, 법당 방음시설 완비, 모든 시설 완벽함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 가액: 총 합계 3천8백만원

070-4127-357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 보문산 옆
- 1,2층 독채
- 2층 법당 스님방
- 1층 공양간, 방3개
- 후불, 신중, 산신탱화, 삼존불, 소불 18불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살림살이 일체,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850만원

010-8546-12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 남산사찰
- 대지 450평
- 목조건물 3동
- 마당앞 보물 신라쌍석탑2기
- 가액:8억(절충가능)

010-5561-0040

사 찰 안 내

- 위치 : 동두천시 생연동 보산역에서 5분거리
- 상가 5층 중 2층
- 평수 50평, 방2, 주방1, 욕실, 법당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화불, 삼성탱화
- 전세 5천만원, 시설비 절충

031)862-5399
010-5773-53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근교 (4호선 당고개역 이용)
- 평수 : 70평,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에 3층
- 법당,방3,사무실1,공양간,욕실,창고
- 삼존불및후불,산신,칠성탱화
- 지장, 관음, 호신불 각 108위
- 보증금 2천만원 월 1백만원
- 시설비 절충
- 꼭 하실분 전화 상담

010-3422-2575

포교원안내

- 위치 : 최상의 장소 (부산구포시장 입구)
- 완벽한 시설 (2층 건물 2층 60평, 옥상 사용)
- 저렴한 입대료
- 가액: 2천만원에 월 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5대 주차가능

010-9611-038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장
- 평수 : 3층 건물중 3층, 58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살림가능

010-2288-15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큰 도로 옆
- 2층 상가 독채
- 1층 요사채(상가), 방2, 화장실2
- 2층 법당 외 방2, 화장실 1
- 가액: 총 1억 3천 5백만원
- 사정상 급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5054-67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활천고개)
- 평수: 70평(6층건물중 2층)
- 법당:관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칠성, 약사여래불
- 후불금장탱화 : 시설 완벽한 법당으로 5개월되었음.
- 스님건강 문제로 급양도
- 방 3칸, 주차장
- 전세:2,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직접 보시고 상담후 절충가능)

010-8516-711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고급주택가
- 평수 1층. 60평
- 스님방, 접견실, 주방, 화장실2
- 법당 약사여래, 윤장대, 인등, 신중, 영단
- 가전제품 및 주방시설완비
- 모든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800만원(절충가능)
- 현재 법회중

010-7663-620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진구
- 당감시장입구 큰대로변
- 대지 62평, 3층건물 중 2층 32평
- 공양실, 주방, 욕실, 방3칸
- 3층 32평, 대법당
- 전세1억, 월세도가능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257-5488

사찰부지 안내

-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로 쓰는 매우 양호한 명당조건을 갖추었음
- 부지 : 15,000여평
- 위치 : 지리산 악양면 해발 약 500m (옛 사찰터 임)

011-9637-3872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근교 (4호선 당고개역 이용)
- 평수 : 41평 (4층) 법당, 친견실, 삼존불
- 5층 : 주택 약 30평 큰방 4, 공양간
- 시설비 : 상담후 절충 현재 법회중
-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010-4840-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 입구
- 평수 63평
- 법당 25평, 산신2평, 요사채 20평, 주방 10평, 스님방 3개
- 동해 바다가 보이고 정자항과 관광이 모이는곳 사찰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는 형편맞게 결정

011-831-732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인구 밀집지역
- 3층건물중 3층, 옥상사용가능
- 건평 50평 이상
- 방2, 사무실, 주방, 창고, 베란다, 화장실, 공간 사용 편리함
- 법당 30평, 삼존불, 후불탱화, 법당 방음시설 완비, 모든 시설 완벽함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 가액: 총 합계 3천8백만원

070-4127-357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 보문산 옆
- 1,2층 독채
- 2층 법당 스님방
- 1층 공양간, 방3개
- 후불, 신중, 산신탱화, 삼존불, 소불 18불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살림살이 일체,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850만원

010-8546-12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 남산사찰
- 대지 450평
- 목조건물 3동
- 마당앞 보물 신라쌍석탑2기
- 가액:8억(절충가능)

010-5561-0040

사 찰 안 내

- 위치 : 동두천시 생연동 보산역에서 5분거리
- 상가 5층 중 2층
- 평수 50평, 방2, 주방1, 욕실, 법당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화불, 삼성탱화
- 전세 5천만원, 시설비 절충

031)862-5399
010-5773-53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근교 (4호선 당고개역 이용)
- 평수 : 70평,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에 3층
- 법당,방3,사무실1,공양간,욕실,창고
- 삼존불및후불,산신,칠성탱화
- 지장, 관음, 호신불 각 108위
- 보증금 2천만원 월 1백만원
- 시설비 절충
- 꼭 하실분 전화 상담

010-3422-2575

포교원안내

- 위치 : 최상의 장소 (부산구포시장 입구)
- 완벽한 시설 (2층 건물 2층 60평, 옥상 사용)
- 저렴한 입대료
- 가액: 2천만원에 월 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5대 주차가능

010-9611-038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장
- 평수 : 3층 건물중 3층, 58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살림가능

010-2288-15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큰 도로 옆
- 2층 상가 독채
- 1층 요사채(상가), 방2, 화장실2
- 2층 법당 외 방2, 화장실 1
- 가액: 총 1억 3천 5백만원
- 사정상 급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5054-67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활천고개)
- 평수: 70평(6층건물중 2층)
- 법당:관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칠성, 약사여래불
- 후불금장탱화 : 시설 완벽한 법당으로 5개월되었음.
- 스님건강 문제로 급양도
- 방 3칸, 주차장
- 전세:2,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직접 보시고 상담후 절충가능)

010-8516-711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고급주택가
- 평수 1층. 60평
- 스님방, 접견실, 주방, 화장실2
- 법당 약사여래, 윤장대, 인등, 신중, 영단
- 가전제품 및 주방시설완비
- 모든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800만원(절충가능)
- 현재 법회중

010-7663-620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진구
- 당감시장입구 큰대로변
- 대지 62평, 3층건물 중 2층 32평
- 공양실, 주방, 욕실, 방3칸
- 3층 32평, 대법당
- 전세1억, 월세도가능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257-54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법당, 방 1개(친견실), 주방
- 평수 : 40평
- 전세금 : 1,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는 답사 후 결정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010-7533-4488

포교원(급)안내

- 경기도 부천시 심곡2동
- 부천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 4층건물중 2층 40평
- 방1, 공양간, 법당
- 삼존불봉안(미타, 관음,지장)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17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6227-5965

아담한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선산
- 총 약 200평, 실용가능 면적 약 400평
- 토굴內아파트식으로 올수리 (방2개, 넓은거실겸 부엌, 욕실, 붙박이장)
- 창고, 토굴앞 텃밭, 비닐하우스2동, 주차장 산자락끝에 위치하며 앞으로는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명당자리
- 가액: 6천 5백만원

054)457-4367
010-7163-0800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 계양구 계산시장 옆
- 평수 : 40평
- 4층 건물에 3층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법당, 방3, 주방, 해우소실내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유동인구 많음, 주차장완비

010-6310-3335

사찰(절)포교원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활천고개)
- 평수: 70평(6층건물중 2층)
- 법당:관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칠성, 약사여래불
- 후불금장탱화 : 시설 완벽한 법당으로 5개월되었음.
- 스님건강 문제로 급양도
- 방 3칸, 주차장
- 전세:2,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직접 보시고 상담후 절충가능)

010-8516-7117

토굴안내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시장 골목내 단독25평
- 법당10평,방2, 부엌, 화장실 뒷뜰 약간 있음.
- 보증금1000만원/ 월30만원
- 보살, 스님, 역학 전수

농가주택안내

- 경기도 이천 장호원에서 7분거리
- 농가주택 250평, 법당12평 따로지어 놓았음
- 법당시설 일절, 몸만오시면 됨
- 방3, 안락하고 소나무도 많음
- 보증금1000만원/월30만원
- 보살, 스님, 역학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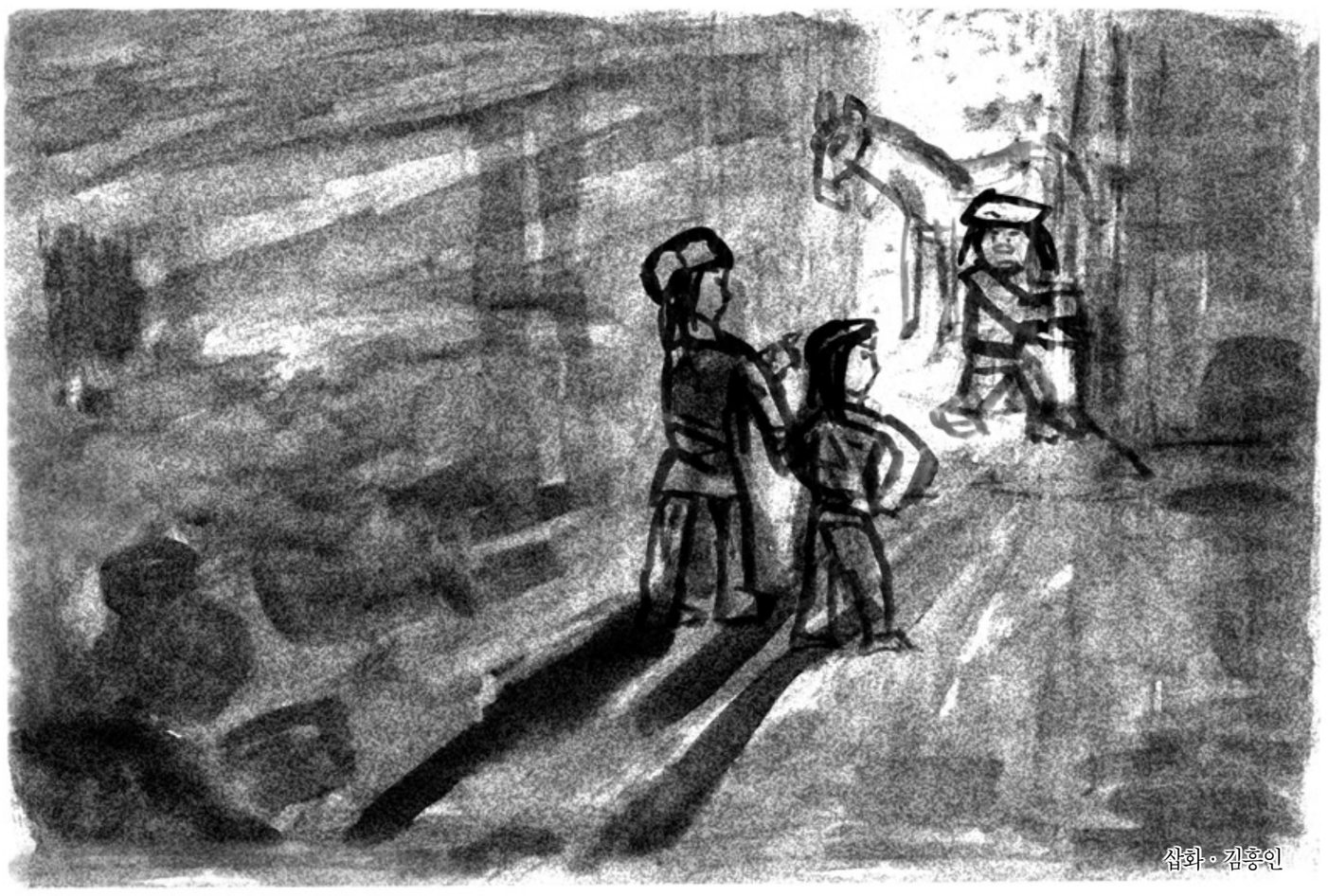
011-641-1159/017-253-3892

대체 왜 우리를 풀어주려는 거지? 무슨 수작이야?

수리아의 검-Ⅲ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사막의 세 머리 용 (4)



삽화 · 김홍인

무니는 그 한 마디에 언제 그랬냐는 듯, 문 아래에 놓인 열매를 주워 들고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가지 끝에 달려있는 열매 하나를 따 입에 넣었다. 그런데 가지에서 이상한 게 눈에 띄었다.

"어, 이게 뭐야?"

무니가 먹던 걸 꿀꺽 삼키고는 접혀 있는 종이를 들어 보였다. 그건 나뭇가지에 묶여있었다. 순간 난다가 눈을 반짝하더니 친구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 "편지 같은데…."하며 펼쳐 읽기 시작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밤에 문을 열어줄 테니, 조용히 기다려?"

"문을 열어준다고? 도대체 누가?"

난다가 대답 대신 무니를 빤히 쳐다봤다.

"아! 맞다. 네가 알 리가 없구나. 뭐, 아무튼 편지를 쓴 사람이겠지. 그런데 가둘 땐 언제고 또 풀어준대? 이 사람들 뭐 하자는 거야. 머리 아프게."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

난다가 무니의 생각을 물었다. 무니는 대답 대신 열매를 한 입 가득 넣었다. 그로서도 알 수 없긴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밤이 찾아왔다. 바깥에서는 어제처럼 희미한 달빛만 들어올 뿐,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벌써 몇 시간 째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니는 또 다시 얼음의 성에서 탈출하던 때를 떠올렸다. 말없이 보냈던 며칠과 자신을 등지고 앉아있던 칼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는 헤어지기 전 무니의 눈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었다. "역시 네게선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과거도 미래도 말이야. 그렇게 넌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겠지. 친구, 아마 그런 이유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무니는 옷 안 쪽에 감춰진 목걸이를 꺼내 매만지기 시작했다. 그 목걸이엔 원래 있던 검 조각 말고도 칼키가 그의 손에 쥐어준 또 하나의 검 조각이 끼워져 있었다. 그는 '괴로움이 없는 연못' 바닥에서 이걸 주웠다고 했었다. "지금 그 목걸이에 걸려있는 것처럼 이것도 네게 꼭 필요할 거 같아서. 아마도 네가 먼 길을 떠나온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겠지. 무엇에 쓰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말이야. 아무튼 마지막 선물이야. 다시 만나더라도 선물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지." 무니의 기억 속에서 칼키와의 모든 장면은 다 선명했다. 그런데 어떤 까닭인지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는 유독 더 그랬다. 무니는 계속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칼키의 말처럼 무니가 먼 길을 떠난 이유는 여덟 조각으로 부서졌다는 '수리아의 검' 조각을 모두 모으기 위해서였다. '무엇을 위해?'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이것은 엄마가 자신에게 남긴 유언이기도 했다. 무니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무슨 생각해?"

난다가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다. 무니는 자신의 목걸이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이제 두 개니까 앞으로 여섯 개 남았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 여덟 개를 언제 다 모을 수 있을 지도 모를 일이지만, 다 모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문제야. 연금술사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찾지? 검 조각이야 물건이니 상관없지만, 사람은 어디로 움직일 지 알 수 없잖아. 그리고 연금술사를 만나서 검을 완성했다고 쳐. 그걸로 뭘 할 수 있다는 걸까."

무니는 희미한 달빛에 어렴풋이 보이는 친구의 얼굴을 쳐다봤다.

"아무튼 난다, 넌 걱정이 끝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다보면 도대체 유리 영감이 왜 이걸 찾으라고 했는지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잖아. 그 문제가 왜 문제인지 생각하는 건 나중에 시간 남을 때 해. 우리는 답부터 찾자고. 일단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검 조각을 찾는 거잖아?"

"그래. 무엇보다 여기서 나가는 게 지금은 제일 큰 문제니까."

"그나저나 왜 아직까지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이거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속셈 아니야?"

무니가 여전히 닫혀있는 문을 덜컹덜컹 밀어보며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며 "쉿!"하는 소리를 냈다. 누군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던 것이다. 잠시 후, 끼익하며 문이 열렸다.

"칸타카!"

무니는 문이 열리자마자 들린 낯익은 숨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쉿! 조용히 해. 이, 멍청아!"

문을 연 사람이 낮게 외쳤다. 분명 아까 낮에 먹을 걸 가져다 준 남자아이의 목소리였다. 이때 난다가 말했다.

"넌 아침에 칸타카 옆에 서 있던… 이름이 남카라고 했던가?"

등불 빛을 받은 소년의 작은 눈이 반짝했다.

"대체 왜 우리를 풀어주려는 거지? 무슨 수작이야?"

소년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무니가 의심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그럼 너흰 너희들이 갇혀 있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얼른 이 짐승 끌고 멀리 도망치기나 해."

남카가 문 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내주었다. 무니와 난다는 선뜻 그 문을 나서지 못했다.

"안 가고 뭐해? 지금 출발해도 멀리 못 갈 거라구. 게다가 이 주변은 거의 다 타버려서, 서두르지 않으면 몸 숨길 데 찾기도 힘들어."

"우리 짐은? 그건 어디 있어?"

난다가 물었다. 남카는 코웃음을 쳤다.

"뭔지는 몰라도 그게 너희 생명보다 중요한가보지? 알았어, 그럼. 너희들이 용의 먹이가 되든 말든 이제 상관 않겠어."

남카의 마지막 말에 무니가 깜짝 놀라 그의 팔을 붙잡았다.

"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나 난다는 이제야 알았다는 듯 말했다.

"역시 그랬구나. 용이었어."

"난다, 넌 또 뭐야? 뭐라도 생각난 거야?"

난다는 일단 입구 쪽으로 걸어가, 소리 나지 않게 살짝 문을 닫고 돌아섰다.

"역시 그 불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어. 그런 거지? 그런데 이 지역에 용이 있다는 정보는 어떤 책에서도 읽은 적이 없는데. 용은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서만 살게 돼 있다구."

"맞아. 우리 마을에선 옛날 또 옛날이야기에도 용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른들도 여기 저기 돌아다니는 이야기꾼에게서나 들을 수 있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선 용도 큰 산불도 완전히 낯선 것들이지. 그러나 지금은 거의 매일 산이 불타오르고, 마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어. 머릿속으로 그림조차 그려본 적 없는 재앙이 실제로 점점 다가오는 거야. 사람들이 이상해진 것도 어쩌면 당연해. 우리에겐 두려움의 원인도 낯선 것이지만, 두려움 자체가 낯서니까. 그래도 사람을 용에게 먹이로 바치다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미친 짓이야."

"용에게 사람을 바친다는 건 무슨 소리야? 용은 사람을 먹지 않잖아?"

난다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그래? 그런 건 나도 잘 몰라. 용이 뭘 먹는지, 안 먹는지 말이야. 다만, 사하라라는 곳에 그 녀석이 나타났다가 우연히 여자애 하나를 삼켰는데, 그 후로는 불을 내뿜지 않았다는 거야. 물론 불이 번지는 바람에 그곳은 결국 광활한 사막이 되고 말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은 용에게 아이를 바치면 마을이 불타는 걸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남카의 말을 다 들은 무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야. 일단 다른 건 내 알 바 아니라고 치자. 진짜로 화재예방이니 뭐니 하는 헛소리가 다 사실이라는 거야? 자기네 살겠다고 별 잘못도 없는 우리를 용의 먹이로 던져줄 셈이라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란 말이야!"

무니의 목소리가 커지자, 깜짝 놀란 난다가 그의 등을 툭하고 치며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남카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러니까 더 궁금한데? 네가 왜 우릴 구해주려 하는 지 말이야."

잠시 망설이던 남카가 대답했다.

"마을 어른들이 다 이상해졌어. 그래도 자기네 아이를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서로 눈치만 보던 중에 너희가 딱 나타나니까 다들 같은 생각을 한 거지. 애초에 정말 그런 일로 마을을 살릴 수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너희들은 이 마을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저 녀석 말대로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이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 갈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잖아."

남카가 다시 문을 열며 말했다.

"그러니까 들키기 전에 어서 떠나란 말이야."

열린 문 안으로 다시 희미한 달빛이 비추었고, 그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난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우리 짐은 찾아 가야해."

남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니와 난다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습만은 분명히 보였다.

어둠에 쌓인 마을에는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적막만이 감돌았다. 차이가 있다면 아주 간혹 가다 불을 밝힌 집이 있다는 것 정도였다. 세 소년과 칸타카는 발소리를 죽인 채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었다. 무니는 고작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도, 며칠은 지나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몹시 불안한 느낌도 들었다. 그때 앞서 걸어가던 남카가 어떤 집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839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안내
- 위치: 전남 나주시
-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 3평반, CC카메라 시설
- 사찰 주변 계곡 물흐름
- 20년생 대봉나무 41일주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1호선 국도 8분
- 가액 5억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6375-0108

포교원 및 명상원(급)안내
- 위치: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층건물 3층
- 평수: 80평
- 보증금: 4,000만원 / 월70만원
- 약판이천세대 아파트밀집지역에있는메인대상가.
- 포교활동 최상급 지역(주변 불자 많음)
- 인연되시는분 상담후 형편에 맞게 절충 가능

010-2425-0427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계곡 접
- 면적 대지 200평
- 규모: 요사채(슬라브한채 약 30평 정도 방3개 주방1 대웅전 슬라브 (약 30평정도) 1채 방4칸, 주방1, 화장실1,2층 대웅전 약 15평정도 산신각 1채, 용왕당1채,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 가액: 2억 오천만원 시세이하임

011-839-1285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 군포시 당동
- 가액: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최저양도
- 면적 65평 방8개 법당공양간 및 시설완비
- 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031)427-474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평수 : 410평 (대지)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방4개, 욕실3개, 주방, 거실
- 생활권은 포함
- 굿당으로도 사용가능함
- 가액: 3억 1천만원(조절가능)
- 융자 : 1천 2백만원

010-6527-4004
053)857-1080

임법당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소재
- 평수 147평, 실사용평수 200평
- 가액: 5천만원
- 시설집기일체 포함

010-8751-3805

암자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이천 덕평IC부근
- 평수 : 1800평
- 가액 : 평당 50만원

010-2267-0944

포교원안내
- 대전 대흥동 대전여중옆
- 2층, 3층 50평
- 화장실2, 방 4, 부엌, 옥상사용, 주차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010-3214-1255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❽

관세음보살의 양치질 세트


양류관음도. 고려 후기, 일본 천초사(淺草寺) 소장.

알약이 만들어진 후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무엇일까? 하루에 1억알 이상이 팔린다는 이 약의 이름은 알리신산이 주로 포함된 아스피린이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하는 알리신산은 현대인에게 거의 만병통치의 약이다.

양류(楊柳)는 버드나무라는 뜻이다. 버드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수인성 식물이고, 잔뿌리가 땅속에서 그물처럼 서로 엉켜서 강이나 뚝을 홍수나 물난리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선 어릴 때 연필 굵기의 버드나무 가지로 피리를 만들어 불었는데, 아마 여기에 많은 약리작용이 있었던 것 같다.

아스피린 주성분 알리신산은 버드나무서 추출

관세음보살의 정병에는 버드나무 가지 담겨

과거에는 봄이 오면 버들강아지를 따서 껌처럼 씹고 다녔다. 버드나무 껍질의 살리신산에는 해열, 진통, 소염,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등에 진정 효과가 있어 겨우내 시달린 몸과 마음을 달래고 질병예방을 위해 버들피리를 불었을 것이다.

고려불화인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에는 대부분 양류관음이 나온다. 버드나무가 워낙 물을 좋아해서 물가를 배경으로 하는 수월관음도에 맞기도 했겠지만, 전통적인 수월관음도를 보면, 바위에 좌정한 관세음보살 왼편으로 솟아나온 바위의 유리그릇 위에 정병이 있고, 정병 속에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있다.

버드나무를 한층 더 강조한 수월관음도도 있다. 1310년 경 불화나 불상을 조성하는 책임자인 금어(金魚)였던 혜허(慧虛) 스님이 그린 양류관음도다. 일본 천초사(淺草寺)에 소장된 양류관음도(楊柳觀音圖)는 아예 광배를 버들잎 형태로 그리고, 마치 물방울처럼 생긴 버들잎 속에 서 있는 관세음보살을 그려냈다.

관세음보살 발아래에는 평평한 암반과 여기에 연이어 연못이 길게 놓여 있고, 왼편 모서리에는 보살을 우러러 보는 선재동자가 배치돼 있다. 이런 대각선 구도는 다른 양류관음과 비슷하지만 화면 오른쪽의 절벽과 쌍죽(雙竹)이 없어지고 버들잎 광배가 화면의 중심을 압도하는 구도로 매우 독특한 특징이다.

관세음보살의 풍만한 얼굴은 다른 수월관음의 얼굴보다는 좀 더 온화한 표정을 짓는다. 또한 부드러우면서도 세련된 어깨의 곡선이나 완만한 굴곡을 이루는 신체의 흐름과 함께 오른쪽으로 휘어진 날씬한 자태는 당시 귀족의 기품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양류관음도에는 '해동치납혜허필(海東癡衲慧虛筆)'이라는 화기가 있어 혜허 스님이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왜 스스로를 '치납'이라는 어리석은 중이라고 썼는지는 알 길이 없다. 선사의 길을 가야하는 데 화승의 길을 가는 자신을 조롱한 것인지도 모른다.

버드나무가지를 두고 많은 이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왜 관음보살은 버들가지를 들고 있을까?

어떤 이는 "5세기 때 중국 기록을 보면 버드나무(껍질)를 치료제로 썼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관음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없애준다는 뜻에서 버들가지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학계에서는 추정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중국에서, 당대(唐代)에 성행하는 '절양류(折楊柳)' 풍습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절양류란 이별하는 사람에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주는 풍속을 말하는 것이다.

승려인 내가 보기엔 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탁발이나 수행을 할 때 반드시 휴대하는 18종 도구의 하나로 수양버드나무 칫솔을 규정했다. 이를 '단타카스타' 즉 치목(齒木)이라 한다.

옛 기록에 보면, 인도의 어느 신도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후, 버드나무가지를 깎아서 양치질을 할 도구를 만들어 드렸다고 한다. 즉 버드나무는 양치질용인 것이다. 그래서 물그릇인 유리그릇 위에 정수가 든 정병을 두고 그 위에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 놓은 것은 정갈한 관세음보살의 양치질세트인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치과마다 수월관음도를 한 분씩 모셔 걸어서 깨끗한 치아습관을 장려하면 어떨까?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74 포살(布薩)



그 동안 나를 용서해준 시간들이 있어 또 다시 부처님 앞에 앉는다. 두근거리는 고백이 경판 위에 누운 종이처럼 그 시간들을 찍어내면, 팔만대장경 한 장 또 쌓인다.

그 동안 나를 용서해준 이름이 있어 또 다시 그 이름 앞에 앉는다. 두근거리는 고백이 종루에 걸린 범종처럼 그 이름을 불러내면, 나를 용서했던 그 시간이 또 다시 흘러간다.

어디선가 어제까지의 '나'를 묻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대중은 외줄을 타듯 그 뜨거운 목소리 위를 걸어간다. 한 걸음 한 걸음 고백을 옮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는 시간. 벗어놓은 신발이 댓돌 위에서 기다리고, 또 한 번 용서받은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 댓돌 위의 신발을 찾아 신고 나서듯 나는 '나'를 찾아 신고 참회 없는 날을 걷고 싶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⑫ **조선 사명유정 선사의 '복주성 누각에서 자며(宿福州城樓)'**

깨닫는 것은 하룻밤의 일

夜久角聲微 (야구각성미)
千家人迹稀 (천가인적희)
露生池館草 (노생지관초)
螢入定僧衣 (형입정승의)
悄悄坐無語 (초초좌무어)
悠悠漸息機 (유유점식기)
星廻月墮嶺 (성회월타령)
城樹曙鴉飛 (성수서아비)

밤 깊어 호각소리 잦아들고
동네에는 인적이 드무네.
이슬은 못가 객사의 풀잎에 맺히고
반딧불은 선정에 든 승려의 옷에 드네.
고요하여 저절로 말이 없어지고
유유하여 점차로 기심이 쉬어지네.
별은 돌아가고 달은 고개 마루에 떨어지는데
복주성의 나무에 새벽 까마귀 날아드누나.

조선 사명유정(四溟惟政;1544~1610) 스님은 '적장의 머리가 바로 조선의 보배'라고 한 일화로 유명한 임진왜란기의 대표적인 승군 지도자이다.

스님은 13세에 출가한 후 18세에 선과(禪科)에 급제, 임진왜란을 당해 대부분을 세속에서 보냈다. 스님의 시문은 많은 부분 전쟁터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 내용도 전쟁의 참상과 승려로서 전장에서 보내는 심경, 더불어 백성의 고난에 대해 염려하는 지극한 자비심을 드러내고 있다. 사명 스님은 "보현의 행을 성취하고 부처님처럼 중생을 제도하되 중생 세계가 다 없어져야 이 서원도 다하여지이다"라는 서원을 전장에서 몸소 실천했다. 스님은 수행의 고삐 또한 늦추지 않았는데 위의 시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기련에서는 깊어가는 밤을 소리의 잦아듦으로 조망하고 이어 풀잎에 맺힌 이슬과 좌선하는 스님의 옷자락에 날아드는 반딧불을 세밀하게 포착했다. 경련에서는 무언의 경지와 분별하는 마음이 점차 쉬어지는 선정의 깊이를 읊었고, 미련에서는 선정에 들어 밤을 꼬박 새웠음을 시간의 경과로 보였다.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흐름, 선정의 경지까지를 동중정(動中靜)으로 차분히 그려낸 구도가 돋보인다. 전장에서도 선정에 드는 스님의 구도열은 처렴상정(處染常淨)의 또 한 모습이리라.


원법 스님(운문사 · 문학박사)

(주)현대에너텍 2011년 최신형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융자지정업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瑩普珥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 · 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차 ~~45,000원~~ 38,000원 | 산차 ~~70,000원~~ 65,000원 |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수량) 99,000원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www.다영보이.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대행 스님

주인공 안에 전부 다 있는데 왜 따로따로 찾습니까!

왜 기복으로 믿지 말라 하시는지요?

문) 우리가 어디에든 지극 정성으로 빌면 병이 낫기도 하고 해결되는 일도 많은데 스님께서는 왜 그렇게 기복으로 믿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건지요?

답) 인간은 고등 동물이고 또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기는커녕 만날 그냥 뜬구름처럼 헤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면서 이 물바퀴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부딪치고 부딪치고 부딪치고 그러니까 항상 고통스럽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의사도 있고 관세음도 있고 지장도 있고 칠성도 있고 산신도 있고 지신도 있고 용신도 있고 거기 다, 약사도 있고 그 주인공 안에 일체제불이 다 계신 겁니다. 또 일체 중생이 다 거기 있고, 일체 의사가 다 거기 있고 간호원도 있고 전부 있어요. 그런데 왜 딴 데 가서 찾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 약이 수두룩하고 보이지 않는 데 의사가 있고 아니, 별게 다 있는데, 가난하면 가난을 극복하고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는 관세음이 있고, 바로 그 주인공 안에 전부 다 있는데 왜 따로따로 찾습니까?

그림을 보고 찾고 그림을 보고 믿고 말을 듣고 믿고 또는 이름을 보고 찾고, 칠성에 가서 빌어야 명이 길고 약사한테 빌어야 병이 낫고 또 좋은 데로 가려면 지장을 찾아야 하고, 명이 길려면 칠성에 가서 빌어야 하고 또는 무슨 사건이 나면 산신에 가서 빌어야 하고 어린애를 못 낳아도 산신에 가서 빌어야 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만물의 영장이기 이전에 귀신들이지, 그게 사람이 귀신 노릇을 하니까 귀신이 있는 거지 사람이 귀신 노릇을 안 하고 사람 노릇을 하는데 무슨 귀신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부적이다, 팔자 운명이다 또는 '내일 이사 가면 어떨까?' '부적을 써다 붙여야지.' '내 몸이 아프니까 이거 어디서 사고가 났나?'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즉각 알아야지. 병이 나면 즉각 '어허, 내 몸속의 악업 선업으로 뭉쳐진 과(果)로서 나온 거지. 아이고, 그 과로 내 몸에서 나온 건 바로 내 몸 안에서 한마음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다.' 하고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다가 넘어지면 여러분이 일어나지 누가 일으켜 줍디까? 그리고 대신 먹어 줍디까, 대신 아파 줍디까, 대신 죽어 줍디까? 대신 자 줍디까, 대신 똥 눠 줍디까? 아니, 대신 누가 해 줍디까? 이 세상에 자기가 혼자 왔다가 가을이 되면 혼자 낙엽 떨어지듯이 갑니다. 그랬다 다시 금 이 세상에 나올 땐 봄이 와야 다시 잎이 피듯이 잠시 중지됐다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잠시 중지가 아니라, 의식에 끄달리고 물질에 끄달리던 의식이 그냥 남아서 들어간 사람은 어디로 자기가 갈 바를 몰라요. 그래서 나무한테도 지점을 하고 또는 어디 집 짓는 데 가서 지점을 하고 대감도 되고 거기 그냥 어떤 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그냥 기복으로 믿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고 저 집으로 들어가서 괴롭히는 거죠.

이래도 기복으로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심을 두지 않고 자기 주인공을 모르는 사람 앞에는 집이 빈집과 같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자요.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들어와서 자면서 거기서 그저 집이 헐어지건 말건 들어와서 그냥 북덕거리고 있다가 또 나고, 또 북덕거리고 있다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집이 그냥 얼른 망그러집니다. 그런 거와 같아요, 이 몸뚱이가.

그러니 이 몸뚱이 속의 그 생명들이, 즉 말하자면 의식 자체가, 딴 데서 들어오는 유전성이나 세균이나 이런 것도 여기 주인이 없어 가지고 뭐 다스리지 않으니까 즉, 부모가 없어 가지고 고아들이 한데 모여서 저희들끼리 북덕거리는 거와 똑같아요, 지배인이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는 바깥에 있는 거 다 끌어들여서 서로 춤을 추니 이 몸뚱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저이는 뭐, 저런 말이 어디서 저렇게 나오나?' 이러겠지만 이게 진리예요, 전부. 내가 없는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첨단을 넘어가는 공부들을 하신 분들인데 아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찰나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게 한 바가 없이 그냥 자꾸 자동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아, 이걸 왜 몰라요? 거기에 업이나 운명이나 팔자나 이런 거 붙을 사이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도리를 알아야죠. 한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얕보여서 주먹으로 한 대 맞는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정말 아주 너그럽고 저 사람은 참 사람다운 사람이다 할 때는 거기 손 못 댑니다. 그러나 덤벙덤벙하고 그저 사기나 치고 이러는 사람들은 주먹 아니라 발길에 차이고 그냥 모가지도 눌리고 그런다고요.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주인 없이, 주모가 없이 내가 흔들린다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방에서 끄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빠져도 코가 깨지죠. 그러니 될 듯해서 하는데도 안되는 거야. 이게 뭐냐? 그게 과(果)다 이거야. 내가 나오기 이전의 인(因)으로 인해서 지금 현상에서 과로 뭉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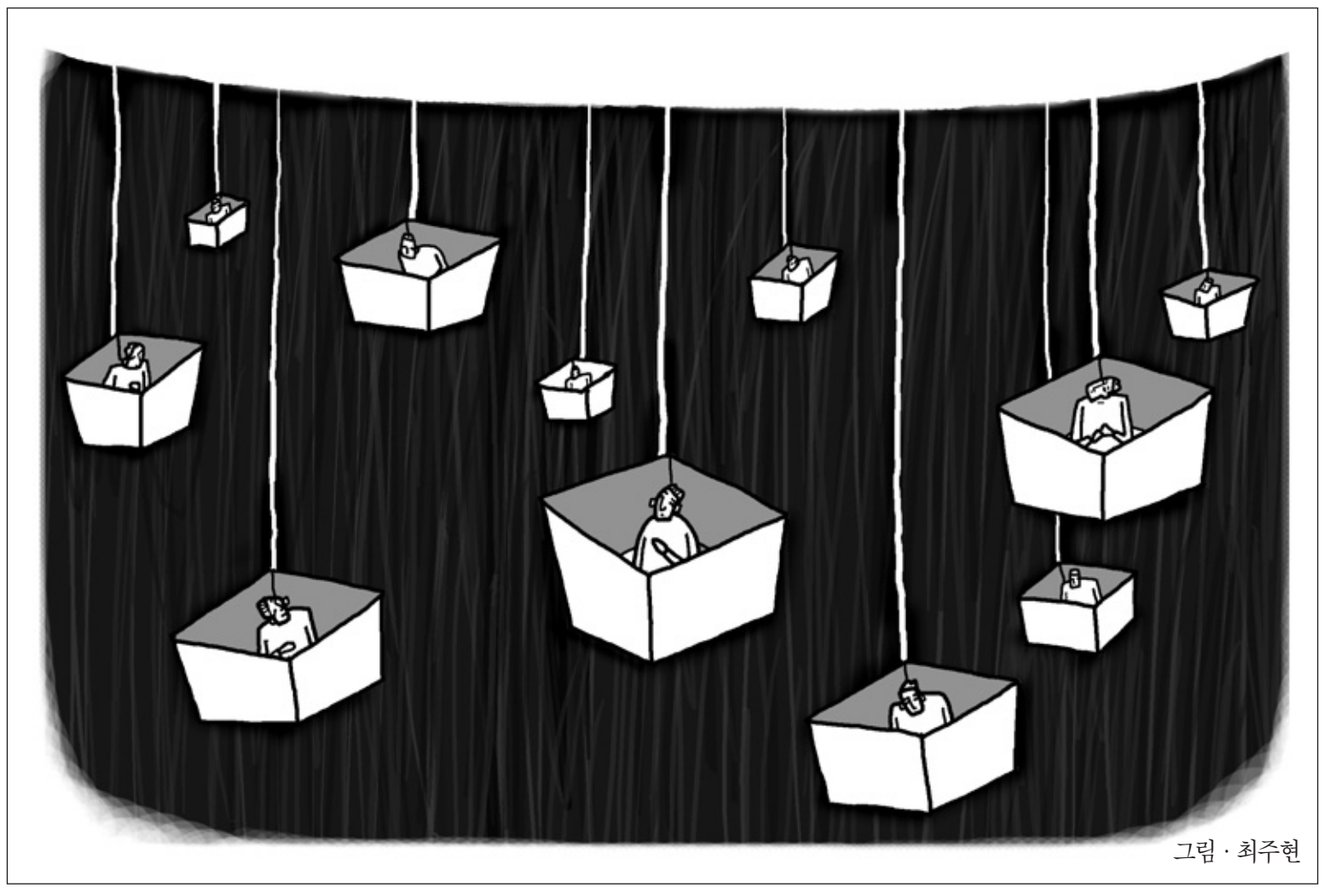
이걸 다 녹이려면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다 놔야 그것이, 전자의 그 인으로 인해서 과가 된 것이 다 녹아서 마음이 전부 한마음으로 뭉쳐져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속에 있는 마음들이 보살로 화한다 이거죠. 그러니 모든 걸 내 주인공밖에는 믿을 곳이 없고 내 주인공밖에는 나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그 믿음과 더불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큰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해!' 하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바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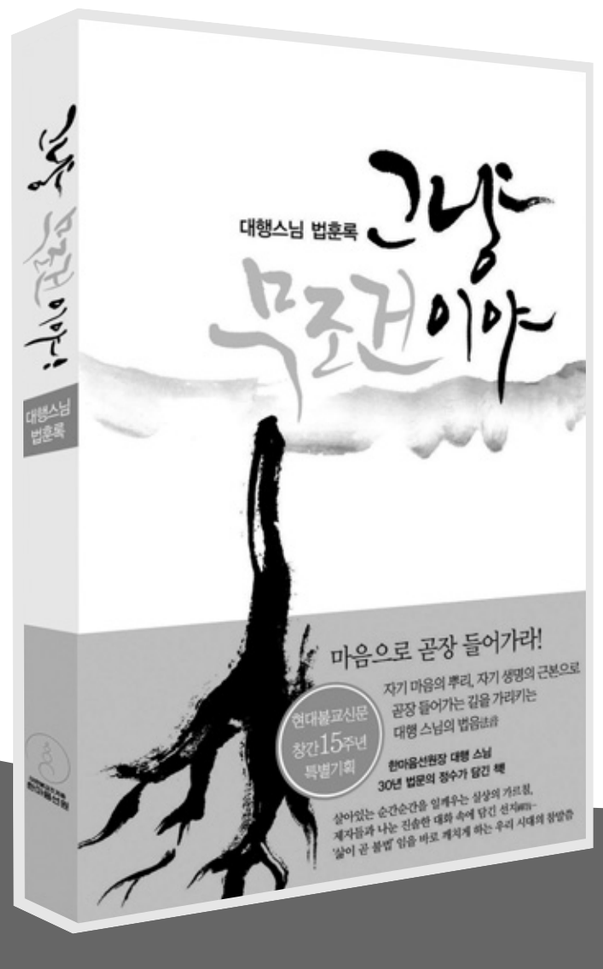
문) 왜 우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며 타인을 헐뜯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때까지 지내온 습과 인연의 소치일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답)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의 의식으로서 산다면 물질세계의 노예고, 그것은 끝간데 없는 길을 고통스럽게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으면서 죽어야 열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이 도리를 알고 죽어야 열반이지, 만약에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르고 죽는다면 그건 그냥 그대로, 그 고통 속에서 죽는다 산다도 없이 끝없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깨치고 본다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악으로 수없이 나가고 선으로 나가도 수없이 나갑니다.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가 문제죠. 이게 또 묘한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다스리는 마음이 없다면, 바로 맘대로 '내가 저걸 꼭 훔쳐와야겠다. 남이야 살건 말건 나는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꼭 자기 내면세계의 자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러면 안의 의식들은 그것이 나쁘고 좋고를 모르기 때문에 다 따라줍니다. 그 마음이 서면은 악도 그만큼 있고 또는 선도 그만큼 있습니다. 선이 더 많으냐 악이 더 많으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이 인간으로서 살지만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즐겁게 선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으로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먹는다면 그건 독이 될 것이고 약초가 먹는다면 약초가 돼서 인간을 살립니다. 칼도 칼 나름입니다. 의사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지마는 강도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 모두가 상대성 원리입니다. 부처도 중생도 풀 한 포기도 다 내 소유로서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유가 돼야만이, 그때 가서는 나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오고, 바로 그때에 부처님이 뚜렷하고 중생이 뚜렷하고, 하는 일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터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깥에 있는 지렁이를 볼 때 보기 싫고 징그럽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속에는 똥통도 들어 있고 구더기도 있고, 또는 진드기도 있고 거위도 있고, 촌충도 있고 벼룩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왜 그렇게 내 몸에 들어 있고 왜 그것이 곧 바로 나였던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생긴 이래 역사를 봐도 미생물의 시대가 있었고, 곤충의 시대가 있었고, 또 그 뒤에는 공룡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기 전에 그렇게 미리미리들 진화돼서 올라오기 위한 그 수련이, 그렇게 수많은 모습을 바꿔 가면서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인간까지 온 것이 그게 바로 정신 수행입니다. 자연적으로 지수화풍이 바탕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모두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쫓고 쫓기면서, 마음이 그렇게 해서 진화돼 가지고 모습을 바꾸고 바꾸고 한 게 인간까지 올라왔다 합니다. 누가 그것을 말해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나, 참나의 속에 다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인간까지 무수한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끝없는 길입니다.

그럼 인간이 되어 가지고도 또 짐승으로 돼야 되겠습니까? 또는 독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살리고 온통 부서지게 하고 남을 해롭게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틀림없이 미래에 올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한 일은 현실을 보면 너무나 더 잘 아실 거고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 동기를 항상 지켜본다면 아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 악업 선업으로 뭉쳐 있다가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마시고, 누(累)가 아니 되는 거는 하시고 누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한생각에 밝아지는 도리가 있으니 이 마음 도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내 주인공밖에는 믿을 곳이 없고
내 주인공 밖에는 나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믿음과 더불어
어떠한 큰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맡겨놓고
'거기서밖에는 해결 못해!' 하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문)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올해부터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돼 보자고 몇 년 전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를 빚을 내서 시작했는데 그게 갚아지는 게 아니라 누적이 돼 갖고 큰 빚으로 남게 돼 버렸어요. 그래도 가게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 보려고 하다 대부를 얻었는데 그게 더 큰 빚이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남편이 너무 무서워 가지고요. 불이 나면 눈이 파딱거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이 마음공부라는 것이, 기독교를 다녀 봤다니깐 알겠는데 주처는 당신한테 있어요. 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종교를 믿는다고 믿었겠지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종교를 믿는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모든 게 생겼고 허영의 그 눈이 당신을 망쳐 놓은 거지요. 그것도 욕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인공, 너만이 가정을 다 화합하게 해 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하고서 관하고는 남편한테 다 전후사 얘기를 하세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열심히 관하면서 지극하게, '분란 안 나게 당신만이 할 수 있다.' 하고 지극하게 관하고선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는 펄쩍 뛰지만 나중엔 다 수그러져요.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무섭잖아 천에 없어도 그래도 남편만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소리는 질러도 속으로는 그 애틋한 마음과 금창 여미는 마음, 분노와 그런 게 사무쳐도 그래도 살려야 하는 거는, 책임지는 거는 바로 남편이니까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절하는 방법과 의미

문) 부처님 앞에 가면 다 누구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드리는 방법이 어떤 분들은 가슴에다가 댔다가 또 그냥 놓고 또 어떤 분은 손을 펴고 이렇게 제멋대로 하는데 어느 식이 제일 옳은 식입니까? 절하는 방법과 의미를 좀 상세히 설해 주십시오.

답) 가슴에 손 대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에다가 놓기만 할 줄 안다면 손으로 그렇게 방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티베트에서나 그런 데서는 오체투지를 하는데 이 다리까지 쭉 뻗고선 하죠. 그러나 내면으로 믿지 않고 아무리 몸뚱이로 오체투지를 하고 그렇게 해 봤던들 소용없는 겁니다. 몸뚱이만 떨어지면 그 하던 행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절하실 때 이 궁둥이를 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발을 차분하게 궁둥이 밑에 놓고 공손히 양손을 펴서 귀 위로 살짝 올리는 접족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 주인공을 받든다는 뜻입니다. 이 바깥의 부처님을 받드는 게 아니라 내 자부처를 받든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내 주인공을 그렇게 극진히 받든다는 뜻입니다. 법당에 오시면 저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불상은 더하고 덜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형상은 내 몸이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요, 그 생명은 내 생명이니 모든 게 둘이 아닌 까닭에 손을 한데 모아 합장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섯 손가락 다섯 손가락 한데 합치죠? 그래서 '이 오온의 진리를 한데 합쳐서 내가 이렇게 하나로 받듭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이 그러니까 어느 거를 떼어 놓고, 어느 거를 위에다 놓고, 어느 거를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가 각자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저거 합니까? 자기가 제일 최고죠. 자기가 제일 먼저죠, 그러니까. 그 먼저로부터 더하고 덜함도 없다는 뜻입니다. 위로 모시다 보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평등하게 나 자체로 둘이 아니게 믿으면 아주 영원히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타의에서 구하고 기복으로 자꾸 믿으면서 시주를 해도 그건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덕이라 하는 것은 모든 마음이 한데 합쳐져서 모두 같이, 무거운 돌이라도 같이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인데 각자 이렇게 찾으면서 시주를 한다거나 이런다면 그건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만원, 이만원을 갖다 놓고 천원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이 마음, 이 한마음 주인공 당신만이, 내가 없는 줄도 당신이 더 잘 알고 있는 줄도 당신이 더 잘 아시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속일 필요는 없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속일 순 없으니까. 손가락을 볼 때에 자기 손가락을 자기 손가락이 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자기 내면세계의 바로 자기부터 알게 되면 이 세계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뿐만 아닙니다. 우주의 섭유를 다 능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리가 터져서. 그러나 이 마음 공부의 인연을 다시 만나기가 천 년 만에 한 번 만나기 어렵다고 했으니 몸 떨어지기 전에 열심히 하십시오.

반야심경을 생활 속에서 공부하려면

문) 학생회 법회에 다니는 고1 여학생입니다. 절에 가면 반야심경을 다 외우라고 하고 법회 때마다 외우고 있는데요, 저는 반야심경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던데 그 반야심경을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공부해 가야 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 그것을 간단히 말한다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모든 것이 고정된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물질로서 나는 건 영원한 게 아니라 모두 부서지고 변하고 죽고 살고, 고정됨이 없이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상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 다음에 마음을 내는 것, 그 다음에 육체가 움죽거리는 것, 그 삼합이 한데 합쳐서, 내면세계와 모든 바깥의 외면세계가 전부 한데 합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나부터, 내 주인공부터, 껍데기 자기가 아닌 영원한 자기를 믿어야 하고 찾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자체, 바로 자기 몸뚱이는 자기 마음이 끌고 다니는 거니까 자기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자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생각이 없다면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핵이라는 자체가 바로 주인이다 하면, 생각을 내면 벌써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다,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공이 없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핵과 공이 같이 이렇게 프로펠러 돌아가듯 인생이 그렇게 고정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찰나찰나 우리가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끌고 다니는 알맹이가 생각도 하게 하고 말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그 장본인 자체가 '주인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없다면 이 세상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터 믿고 자기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로부터 무의 세계, 유의 세계 포함해서 같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뭐가 뭔지 아리송하겠지만 법회에 나와서 공부하다 보면 차차 이해가 갈 겁니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결혼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본인이 여러 신랑을 맞선을 보고 자유선택
2. 일본은 인건비가 비싸 안마사, 지압사, 피부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면 월 5~6백만원 수입 절대보장
3. 기술은 1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음
4. 기숙사 완비 되어 있음
5. 뜻이 있는 분 상담 받으세요
6. 불자님 절대 우대 넓은 세상을 보라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 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초혼 · 재혼자 신청하여 주시면 궁합을 보아 좋은 배필을 선정하여 맞선을 보도록 알선함. 년월일시는 음력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 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 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불자 세상보기

캠프 캐롤의 고엽제가 남긴 숙제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
에너지학과교수

1978년은 미국에서 환경역사상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적인 매립으로 인해 중대한 사회문제가 된 러브캐널(Love Canal) 사고가 발생한 해이다. 그 이후 유해화합물질의 불법적인 매립과 수출 등이 근절되고, 각국의 환경 관련법들이 정비됐던 상징적인 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에 경북 칠곡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캐롤에서 고엽제가 포함된 다량의 유해물질들이 매립시켰다는 사실은 '제2의 러브 캐널', 또는 '한국의 러브캐널 사고'라고 부를 수 있는 반환경적인 사건이다.

10여 년 전부터 미군기지반환을 둘러싸고 정치적·군사적 의미의 문제점도 많이 거론됐지만, 지난 수십년 간 묻혀진 진실 중 하나가 미군기지내 환경오염문제였다. 그동안 미군기지내에서 야기된 크고 작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터부시되고, 묻혀져 왔다. 미군기지내에서 발생된 환경오염문제는 주로 유해물질과 유류로 인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문제 등이다. 유류나 유해물질로 인한 토양이나 지하수오염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독성과 악영향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염된 지역의 토양이나 지하수가 수십년 이상 장기간 동안 잔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더욱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비밀로 덮혀 있다가 이번처럼 근무했던 미군에 의한 양심선언이 없었다면, 오랫동안 자연생태계와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캠프 캐롤에서 발생한 고엽제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첫째는 고엽제라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강력한 유해물질 중 하나가 국내에서도 사용됨으로써 이로 인한 환경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동안 쉬쉬했던 미군기지내 환경오염문제가 다시 공론화됐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환경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맹국으로서 불평등조약인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등에 대한 적절한 개정작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됐다. 넷째, 양국 정부만의 타협과 합의가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자료들을 철저히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된 이후, 적절한 복원과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1세기 한국의 국격(國格)과 세계국가로서의 미국의 국격에 맞는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현재 문제가 된 캠프 캐롤과 반환된 마켓기지뿐만이 아니라, 이미 반환된 기지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지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및 사후 환경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의거해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자인 미군당국은 철저한 조사에 따른 복원 및 보상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미국과 한국의 환경 관련법과 제도의 수준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도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맹국이라 하면서 자국의 기준과는 다른 불평등조약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한 양국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미군측에서 유해성을 알고도 폐기시켰다면, 그보다 무책임하고, 반인륜적인 일도 없다. 설혹 모르고 매립하였다하더라도 이제는 미국이라는 국격에 맞는 책임 있는 조치들(철저한 조사와 복원, 보상 등)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의 공동조사가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기지뿐만이 아니라, 이미 반환된 기지들에 대해서도, 한미양국은 국가적 품격과 책임감을 갖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대응해주기를 기대한다.

사부대중 칼럼

오디오 대장경 원력 세웠던 스님



지장 스님
초의명상선원 대표

본격적으로 차명상을 시작한지 6년의 시간이 흘렀다. 6년이라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인 변화의 시간이었다. 어차피 세상과 우리 자신은 가만히 있어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차명상이라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나름 어떤 계기가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 같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출가수행자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사실 수행의 길은 깨어 있는 삶의 과정이어야 한다.

어느 순간 방황이라는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말았다. 막연하게 동경해왔던 이상적 삶과 나의 현실적 삶과의 괴리감이 좁혀지지 않자 답답함과 불안, 막막함 등이 휘몰아쳐 온 것이다. 그 방황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정신 차려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동안 나 자신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이는 먹어가고 경력은 늘어갔지만 실질적인 인격의 변화, 인성의 변화는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겉은 그럴싸하게 나이나 세상 경력에 걸맞게 꾸며지고 습관 들어져 있을 뿐 이었다. 그런데 속의 정신 상태는 살아온 시간에 비례하여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가치를 부여하고 산다. 사람마다 그 우선순위는 다 다를 것이다.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우선일 수도 있고 승진이나 출세가 우선일 수도 있고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아마도 행복 혹은 만족감을 가져오는 요소일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나 자신의 경우 방황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외형적인 활동이나 업적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즉 실질적인 인격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언젠가는 허탈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인격의 변화는 그 자체가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할 가장 바람직한 변화의 내용이다.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행복해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인 것이다.

인격의 변화라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인격을 유익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원리와 방법을 찾게 되었다. 전에 공부해왔던 것을 다시 기초부터 착실히 더듬어 보기도 했고, 다른 종교나 명상 혹은 자기변화 프로그램 등을 눈여겨보기도 했다. 인격의 변화라는 모토를 가지고 공부하니 전에 알지 못했던, 또 보지 못했던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무언가 서서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수행하고 싶어 외국의 수행센터에도 가서 살아보았다. 그러면서 결국 어떤 원리를 통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나마 그 핵심을 알게 되었다. 알고 나니 그것은 평소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것이었지만 단지 그 의미나 실천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원리를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 원리를 실천하게 하는 전략과 방법이 있어야 하고 다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만 '유익한 변화'는 현실화 될 수 있다.

나름 유익한 변화의 원리를 현대적인 콘셉트로 실천하고자 차명상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 막상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예상과는 달랐다. 충분히 준비가 안 된 탓도 있었지만 주위의 걱정과 실망스런 시선들이 가는 길을 더욱 힘들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때 법산 스님이 떠올랐다. 오디오 불교 대장경을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열심히 활동하셨던 스님은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원적에 들었다. 옆에서 그 스님 일을 잠시 도와 드린 적인 있었다.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역력하다. 하지만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본인의 일에 열정을 쏟는 장면을 떠올리면 고단함에 빠져 있는 나의 마음에 큰 위안이 되곤 했다. 아마도 지금 시대에 그 일을 하셨다면 고생하지 않고 뜻을 성취하실 수 있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개척해 나갈 때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시련과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본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이끌어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아직 시련의 길이 끝나지 않는 나로서는 시련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예전 이와 같은 번민과 고민을 했었을 법산 스님의 심정이 뼛속 깊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옆에 계시다면 참으로 할 말이 많은데…. 오늘도 그리움을 차와 함께 우려 마시면서 할 말을 대신해 본다.

社說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6월 6일은 현충일(顯忠日)이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넋을 기리는 날이다. 호국의 일념으로 목숨을 다한 이들의 이름을 불러내 무명의 고통을 벗기는 날이다. 나라의 이름으로 고마움을 나타내고 우러르는 날이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의 열강 속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히 번영을 누리는 것이 누구 때문이던가. 나라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버리고 피와 땀을 흘린 이들이 있었다. 이들의 가족이 흘린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의 오늘이 가능했다.

1700여 년 면면이 이어져 온 불교가 우리 민족의 삶에서 박리 될 수 없는 까닭은, 외침에 맞서 목탁과 죽비 대신 창·칼을 들어야 했던 승병에만 있지 않다.

오늘날 한국불교가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의식에는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와 민족문화수호운동의 당위성이 담겨 있다.

현충일은 '호국'으로 대한민국의 과거가 현재로 이어져 미래를 그리는 날이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울타리 안의 공동운명체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체득·실천하는 날이다. 적어도 이 날 하루만큼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날, 감사하는 날, 보답하는 날이어야 한다.

〈금강경〉에서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이라 했다. 어느 때 어느 마음도 얻을 수 없다지만 적어도 현충일,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점찍는 날이어야 한다.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역사 왜곡' 가르쳐선 안된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가 6월 18~20일 국민대통합을 기원하는 대장경 이운행렬을 개최한다.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D-day 100일 행사이다.

이에 대해 강화 선원사 등은 "대장경 이운행사는 역사왜곡"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운 코스에 강화 선원사가 포함돼야 한다. 조직위가 이운행사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가 일방적으로 공문 내용을 취소했다"며 내놓은 "해인사 장경각에 봉안한 대장경은 재조대장경으로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과는 무관하다"는 폭로(?)까지도 틀린 말 하나 없다.

선원사 측이 반발하자 조직위는 "이운행렬은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축전의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초조대장경과 해인사에 봉안된 재조 팔만대장경은 엄연히 다르지만 둘 다 부처님 말씀을 담은 그릇이요, 소중한 우리 문화재이다. 둘 중 어느 것이 올해 천년을 맞았는지 시비·우열을 가리는 것은 부질없다.

역사를 왜곡하고, 이를 정당화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많은 학생들이 역사를 국사 교과서 대신 TV 사극 등에서 배우는 요즘이다. 이들이 대장경 천년의 경이로움을 느끼기에 앞서 800여 년을 1000년이라 부를 수 있는 굴절된 융통성부터 배운다면 어찌할텐가. 시대가 아무리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溫故創新] 시대라지만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변칙을 가르쳐서는 안된다. 불교계와 조직위는 이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통도(通度)의 가풍(家風)



우리들 모두 통도의 산문에 들어와 처음 삭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시절,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천자각!
조실스님도 부럽지 않던 그 황화각(皇華閣 · 天子閣)의 주련에 이런 말씀을 우리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大護法不見僧過
위대한 불법의 보호자는 스님의 허물을 보지 않으며,
善知識能調物情
위대한 스승은 중생의 마음을 다스려 주네.
百戰英雄知佛法
백전영웅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再來菩薩說家常
다시 태어난 보살은 일상사를 말씀하시어,
永使蒼生離苦海
영원히 중생들을 고해에서 벗어나,
恒敎赤子有慈航
항상 어린 중생들에게 자비의 배가 되어주시네.”

이제 모든 총림의 대중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모신 선지식(善知識) 방장(方丈)스님의 뜻을 받들고, 방장스님을 중심으로,
새 주지스님과 함께 개개인의 허물과 모자람을 감싸주는 선지식이 됩시다. 그리고 백전영웅으로 환생한 보살이 되어,
자비의 배를 띠워봅시다. 영축총림의 대중들이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긍지요, 자부심으로 살았던 사풍(寺風)을 더욱 진작시키고,
본분사(本分事)를 투탈(透脫)하는 본분납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80평생 중생을 위하여
오직 보리심(菩提心)으로 사셨던 삶에 부끄럽지 않은 보살이 되고, 역대조사(祖師)들의 법등(法燈)을 밝혀갈
쇄락(洒落)하고 당당(堂堂)한 청정대중이 됩시다.

영축총림 통도사의 법통을 수호하고
청정승가를 위한 모임 일동 구배